碩 士 學 位 論 文

三淵漫錄 역주



高麗大學校 大學院

古典飜譯協同科程學科 古典飜譯專攻

金　　廣　　泰

2009年　12月　　日

尹 在 敏 敎授指導
碩 士 學 位 論 文

三淵漫錄 역주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日

高麗大學校 大學院

古典飜譯協同科程學科 古典飜譯專攻

金 廣 泰



金廣泰의 文學碩士 學位論文

審査를 完了함.

2009年 12月 日

委 員 長 (印)

委 員 (印)

委 員 (印)



【목 차】

Ⅰ. 머리말 ····· 1

Ⅱ. 해제 ····· 2
1. 삼연의 가계 및 생애 ····· 2
2. 삼연만록의 서지사항 ····· 3
3. 삼연만록의 구성과 내용 ····· 4

Ⅲ. 삼연만록 역주 ····· 7
일러두기 ····· 7
역주목차 ····· 8

Ⅳ. 맺음말 ····· 61

【參考文獻】 ····· 63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三淵漫錄 역주

Ⅰ. 머리말

삼연만록(三淵漫錄)은 삼연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인물·역사·제도 등에 관해 기술한 것이다. 김창흡은 자는 자익(子益), 호는 낙송자(洛誦子)·삼연, 본관은 안동(安東),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그는 전 시대의 학문, 문학, 사상 등을 폭넓게 비판·수용하여 방대한 저술을 남겼으며, 그의 학문, 문학, 사상은 후대에 당색을 초월하여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삼연이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취는 한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그가 살았던 17·18세기의 학문, 문학, 사상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학계에서 삼연의 학문, 문학, 사상 등에 관해 상당한 연구 성과를 집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연의 저술에 대한 번역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삼연이 이룩한 성취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만록(漫錄)은 필기류(筆記類)의 한 종류로, 사대부 문인학자들의 식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필기에는 저자의 체험, 교양, 관심사가 반영되어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정치, 역사, 경제, 문학, 인물일화 등 다양한 영역을 담고 있다. 곧 필기는 당시 사회상과 학술적 자료 및 문인학자의 사유체계를 엿볼 수 있는 기록물이다.

특히 삼연의 만록은 그동안 축적한 학문, 문학, 역사, 사상 분야의 식견을 만년에 진지하게 서술한 글이다. 심도 있는 학술적 내용이 짧은 글 속에 응축되어 있어 그의 논리적인 기반이 되는 출전과 전거를 찾지 못하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곧 정밀하고 상세한 주석을 통해 그의 사유의 출처를 철저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연만록이 학술성을 담보한 연구번역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하겠다.

이에 삼연만록을 연구번역의 대상으로 삼아 정밀하고 상세한 주석을 갖추어 번역함으로써 연구자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학술성을 담보한 연구번역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한편 당대를 대표하는 삼연의 저술을 역주하여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삼연의 학문, 문학, 사상의 성격과 사유체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삼연 시대의 사회상 및 학문, 문학, 사상의 윤곽을 유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Ⅱ. 해제

1. 삼연의 가계 및 생애

삼연 김창흡은 1653년(효종 4년) 윤 7월 5일 한양 명례방(明禮坊)에서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김수항은 병자호란 당시 척화신(斥和臣)의 거두였던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손자로 23세에 환로에 들어 35세에 이조판서, 40세에 정승을 지내는 등 정계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서인(西人) 산림(山林)의 이념을 정치에 적극 실현하려 했던 정계의 핵심인물이었다. 어머니는 안정(安定) 나성두(羅星斗, 1638~1710)의 따님이자, 나양좌(羅良佐, 1638~1710)의 누이이다.

그가 속한 가문을 간략히 살펴보면, 고려의 개국공신 김선평(金宣平)을 시조로 하는 안동 김씨는 15명의 정승과 35명의 판서, 그리고 3명의 왕비를 배출한 조선조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데, 이러한 번영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자살한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과 남한산성에서 항서(降書)를 찢은 청음에서 시작되었다. 청음의 명분과 예술과 학문은 손자인 김수증(金壽增)·김수흥(金壽興)· 김수항 형제와 수항의 아들인 김창집(金昌集)·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김창업(金昌業)·김창집(金昌集)·김창립(金昌立) 형제를 거치면서 정국을 좌우하는 조선후기 세도가로 자리 잡게 된다.

삼연은 13세(1665)에 동몽교관(童蒙敎官) 김시량(金時亮)에게서 수학하고, 15세(1667)에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세(1668)에 이조정랑 경주(慶州) 이세장(李世長)의 따님으로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현손과 혼인하였다. 21세(1673)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22세(1674)에 부친 김수항이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 예송(禮訟)에서 우암을 지지하여 '체이부정(體而不正)'설을 지지하다가 이듬해 7월 즉위한 숙종에 의하여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당하였다. 이후 해마다 적소(謫所)를 왕래하는데 26세(1678)에 9월에 부친이 강원도 철원으로 이배(移配)될 때까지 영암·해남 일대 월출산과 두륜산의 명승지를 탐방하였다. 27세(1679) 2월에 냉천(冷泉), 3월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7월에 철원(鐵原) 용화촌(龍華村) 삼부연(三釜淵)에 복거(卜居)하고, '삼연'으로 자호(自號)하였다.

32세(1684)에 졸수재(拙修齋) 조성기(趙聖期)와 시도논쟁(詩道論爭)을 하였다. 37세(1689)에 기사환국(己巳換局)을 겪고는 대립과 갈등의 세계상을 체득하고 동시에 정치적 입장을 잠재적으로 배웠다. 42세(1694)에 갑술환국(甲戌換局)을 전후하여서는 유학에 전념하여 유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자의 면모를 갖춤과 동시에 의리론에 입각한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다듬었다. 이를 바탕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는 노소분기(老小分岐)를 적극 주도하여 세간의 물의를 빚었다. 53세에서 62세에 걸친 설악산 생활은 전시기의 경솔함과 분잡함을 반성하며 인격과 학문을 내적으로 성숙시키는 시기였다. 설악산에서의 호환(虎患)과 노쇠함 때문에 의기소침하였던 삼연은, 사회·경제에 대한 관심의 확대, 북관여행, 제자들과의 강학 등을 통해서 자기 경신을 꾀하였다.

70세(1722)에 2월 21일 졸하였다.[1] 1732년(영조 8)에 문인 유척기(兪拓基)가 운각활자로 문집을 간행하였다. 1776년(영조 52)에 '문강(文康)'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792년(정조 16년)에 양근(楊根) 미원서원(迷源書院)에 배향되었다.

2. 삼연만록의 서지사항[2]

김창흡은 졸하기에 앞서 조카 김신겸(金信謙)과 아들 김치겸(金致謙)에게 문집(文集)의 산정(刪定)에 관한 유언(遺言)을 남겼는데, 이는 《삼연집습유(三淵集拾遺)》 권31의 어록(語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시고(詩稿)는 이병연(李秉淵)과 홍세태(洪世泰), 문고(文稿)는 어유붕(魚有鳳)에게 산정하도록 하고, 서찰(書札)은 유숙기(兪肅基), 어유붕(魚有鳳), 박필주(朴弼周)와 상의하여 취사(取捨)하라고 하였다. 특히 장서(長書) 가운데 스승 졸수재(拙修齋) 조성기(趙聖期)와의 왕복 서찰은 번잡한 것이면 빼버리고 의리를 발명한 것이면 넣도록 하고 유숙기에게 보낸 것은 어유봉과 상의하여 취사하도록 하였다. 또 묘도문자(墓

---

1) 《경종실록(景宗實錄)》 이날 기사에 김창흡의 졸기가 다음과 같이 실렸다.
"세제 시강원(世弟侍講院) 진선(進善) 김창흡이 졸하였다. 김창흡의 자는 자익(子益)이고, 호는 삼연(三淵)인데,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났고, 젊은 날 협기를 드날렸으며 약관(弱冠)에 진사(進士)가 되었다. 일찍이 장자(莊子)의 글을 읽다가 마음속에 깨달은 바가 있어 이때부터 세상일을 버리고는 산수(山水) 사이에 방랑하며 고악부(古樂府)의 시도(詩道)를 창도(唱導)하여 중흥조(中興祖)가 되었다. 또 선가(仙家)·불가(佛家)에 탐닉하여 오랫동안 스스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가화(家禍)를 당하자 비로소 그 형 김창협(金昌協)과 함께 학문에 종사하니, 그 견해가 때로 크게 뛰어났다. 만년에는 설악산(雪嶽山)에 들어가 거처를 정하고 《주역(周易)》을 읽었는데, 스스로 '정자(程子)·주자(朱子)가 이르른 곳이라면 또한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과격한 데 가까와 무릇 시론(時論)에 대하여 혹은 팔을 걷어붙이고 장편의 글을 지어 당로(當路)를 배척하고, 말이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의 선조(先祖)를 범하여 자못 처사(處士)로서 의논을 함부로 한다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많이 애석하게 여겼다. 조정에서 유일(遺逸)로 여러 차례 헌직(憲職)을 제수하였으나 나가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 70세였다." 《景宗實錄 2년 21일》

2) 이 부분은 《한국문집총간해제》 〈삼연집 해제〉의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道文字)는 짓지 말고 행장은 김신겸(金信謙)에게 짓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자질(子姪)과 문인에게 남긴 유언은 문집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여 편차된 것이 36권 18책이었다.

이 정고본이 운각활자(芸閣活字)로 간행된 것은 1732년(영조 8)이었다. 《연보(年譜)》에 의하면, 이해에 36권 18책이 완성되었고 문인 유척기(兪拓基)가 경상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봉금(俸金)을 내어 활자로 인행하였다고 하였다. 이 초간본(初刊本)은 현재 규장각(奎4903), 장서각(4-6109),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3648-文10-83),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474),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354),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삼연만록의 역주 저본은 1732년에 운각인서체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에 소장된 《삼연집》 36권 〈만록〉이다.

3. 삼연만록의 구성과 내용

삼연 만록은 총 70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명에 '경자(庚子)'라고 소주(小註)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김창흡의 만년 때인 68세(1720)에 지어진 듯하다. 내용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인물, 역사, 제도, 문학 등에 관한 것인데, 대체로 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논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문을 내용상 대략 분류해 보면, 문학에 관한 논은 1 · 2 · 35 · 36조이고, 제도에 관한 논은 3 · 4 · 17조이고, 천문에 관한 논은 5 · 6조이고, 사평(史評)에 관한 논은 7 · 15 · 16 · 23 · 25 · 27조이고, 서평(書評)에 관한 논은 10 · 11 · 34 · 38~70조이고, 인물평에 관한 논은 12 · 19 · 20 · 21 · 22 · 24 · 26 · 31 · 32조이고, 학문에 관한 논은 13 · 14이고, 학설에 관한 논은 18 · 28 · 29 · 30조이고, 기타에 관한 논은 8 · 9 · 33 · 37이다. 기타에 관한 논은 독서법, 양생법, 대화법,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유형 등에 대해 논한 것이다. 서평으로 분류한 것 중에 38~70조의 경우 〈화식전〉(40~53조)을 논한 것은 제외하고, 〈백이전〉(38~39조), 〈신릉군전(信陵君傳)〉(55조), 〈형가전(荊軻傳)〉(56~58조), 〈항우본기(項羽本紀)〉(59~65조), 〈범수전(范雎傳)〉(66~70조) 등을 논한 것은 인물평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조항에서 논의의 대상이나 근거로 직접적으로 인용되는 서명 및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서명을 밝히는 것은 김창흡의 독서 범위와 지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 사대부 지식인의 독서 범위와 지식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역주의 대상 범위인 38조까지 논의의 출처가 되는 서명을 밝혀본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구분	조항	내용	인용 서명
문학	1	宋人의 시학과 시평은 수준이 낮다	滄浪詩話, 東坡全集, 詩人玉雪, 詩藪
	2	시에 대한 朱子의 안목	朱子年譜, 宋史
	35	孔子의 말	論語集註, 禮記
	36	韓愈가 말한 진부한 말	唐宋八大家文鈔
천문	5	冬至에 대하여	
	6	古代에 절기節氣를 측정하는 방법	律呂新書
사평	7	규모의 크고 작음으로 王者와 霸者를 구별한 유래	論語集註, 孟子集註, 禮記
	15	西晉이 胡亂을 초래한 이유	晉書
	16	국운의 길고 짧음은 천운에 달렸다	谿谷集
	23	維州의 일과 관련한 牛僧孺와 李德裕의 시비 논쟁	資治通鑑, 資治通鑑綱目
	25	송나라는 藩鎭이 없어 망하였다	宋史
	27	봉건제와 역대 왕조 흥망의 관계	史記
서평	10	論孟精義	論孟精義, 論孟或問
	11	胡寅의 讀史管見	讀史管見, 朱子語類
	34	漢書와 史記	史記, 漢書
	38	伯夷傳	史記
인물평	12	張栻	朱子大全
	19	張良	朱子語類, 象村稿
	20	陸贄	二程遺書, 讀史管見, 象村稿
	21	魏相	漢書, 象村稿
	22	趙充國	漢書, 宋史
	24	蘇綽	朱子語類, 北史
	26	范仲淹과 富弼의 규모	朱子語類
	31	韓愈	唐宋八大家文鈔
	32	南衮	
학문	13	경서를 해석하는 자도 史學을 아울러 공부해야 한다	春秋左氏傳, 論語集註
	14	程頤는 사학에 어두웠다	周易傳義
학설	18	胡寅의 '先發後聞'이란 설	論語集註, 論語或問, 象村稿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28	正統論	朱子語類, 資治通鑑綱目
	29	주자가 蜀나라를 정통으로 삼은 까닭	朱子語類, 資治通鑑綱目, 朱子大全
	30	蘇軾의 正統論	唐宋八大家文鈔
제도	3	중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李珥의 주장	
	4	사면령을 자주 내리지 말라는 吳漢의 유언	十八史略
	17	봉건제	唐宋八大家文鈔, 朱子語類, 唐鑑
기타	8	책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제일 어렵다	
	9	養生하는 방법	性理大全, 老子
	33	대화를 나누는 법	朱子語類, 荀子, 論語集註
	37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유형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Ⅲ. 삼연만록 역주

일러두기

1. 본 번역문은 규장각 소장 《(原集)三淵集 卷36 漫錄》을 대본으로 삼고, 총 70조항에서 1~38조항을 번역하였다.
2. 원문에는 제목이 별도로 없는데 열람의 편리를 위해 임의로 각 조항마다 번호를 매기고 제목을 달았다.
3. 번역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에 상세하게 표점을 달아 병기하였다.
4. 번역문을 상단에 두고 원문을 하단에 두었다.
5. 번역문은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번역하였고, 더러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충역을 하기도 하였다.
7. 본 역주의 주석은 번역문에 각주를 다는 것으로 하였다.
8. 본 역주는 학술성을 높이기 위해 출전과 전거를 상세하게 주석하였다.
9. 인물 주석의 경우 번다함을 피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인물은 주석을 달지 않았다. 다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석을 달았다.
10. 교감주는 이본(異本)이 없어 많지 않기 때문에 '【校】'로 표시하고 각주로 달았다.
11. 번역문과 각주에서 인명이나 연도 등 간단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간주를 달았고, '( )'에 간주 내용을 넣었다.
12. 번역문과 각주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이 필요한 경우 '[ ]'에 넣었다.
13. 원문 표점에 사용한 문장부호는 다음과 같다.

    종지부호 : 마침표(.), 물음표, (?), 느낌표(!)

    휴지부호 : 쉼표(,), 간점(·), 쌍반점(;), 쌍점(:)

    서명 편명 표시 : 《 》, 〈 〉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역주 목차

1. 송인(宋人)의 시학과 시평은 수준이 낮다
2. 시에 대한 주자(朱子)의 안목
3. 중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이(李珥)의 주장
4. 사면령을 자주 내리지 말라는 오한(吳漢)의 유언
5. 동지(冬至)에 대하여
6. 고대(古代)에 절기(節氣)를 측정하는 방법
7. 규모의 크고 작음으로 왕자(王者)와 패자(霸者)를 구별한 유래
8. 책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제일 어렵다
9. 양생(養生)하는 방법
10. 《논맹정의(論孟精義)》
11. 호인(胡寅)의 《독사관견(讀史管見)》
12. 장식(張栻)은 도량이 크지 않아 의론이 편협하다
13. 경서를 해석하는 자도 사학(史學)을 아울러 공부해야 한다
14. 정이(程頤)는 사학에 어두웠다
15. 서진(西晉)이 호란(胡亂)을 초래한 이유
16. 국운의 길고 짧음은 천운에 달렸다
17. 봉건제
18. 호인의 '선발후문(先發後聞)'이란 설에 대해서
19. 장량(張良)
20. 육지(陸贄)
21. 위상(魏相)
22. 조충국(趙充國)
23. 유주(維州)의 일과 관련한 우승유(牛僧孺)와 이덕유(李德裕)의 시비 논쟁
24. 소작(蘇綽)
25. 송나라는 번진(藩鎭)이 없어 망하였다
26. 범중엄(范仲淹)과 부필(富弼)의 규모
27. 봉건제와 역대 왕조 흥망의 관계
28. 정통론(正統論)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29. 주자가 촉(蜀)나라를 정통으로 삼은 까닭
30. 소식(蘇軾)의 정통론(正統論)
31. 한유(韓愈)
32. 남곤(南袞)
33. 대화를 나누는 법
34. 반고(班固)의 《한서(漢書)》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35. 공자(孔子)의 말
36. 한유(韓愈)가 말한 진부한 말
37.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유형
38. 사마천(司馬遷)의 〈백이전(伯夷傳)〉

1. 송인(宋人)의 시학과 시평은 수준이 낮다

송(宋)나라 시대 이정(二程)·주희(朱熹)의 의리와 구양수(歐陽脩)·소식(蘇軾)의 문장은 모두 거의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정미하고 지극한 데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유독 그 시학(詩學)은 허술해서 수백 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모두 하등한 시마(詩魔)였으니,[3] 이른바 물 속의 달과 거울 속의 꽃과 같으며 영롱(玲瓏)하고 투철(透徹)한 절묘함이[4] 더 이상 없었다. 시를 논한 것은 거의 헛소리와 같아서 마침내 왕안석(王安石)이 〈남산시(南山詩)〉를 〈북정(北征)〉보다 낫다고 하였고,[5] "푸른 강물 만고토록 흘러 다하지 않는다.[6] [滄波萬古流不盡]"라고 한 시구는 구양공(歐陽公)이 재미 삼아 지은 것인데, 소식이 이것을 가지고 "오경(五更)의 고각(鼓角) 소리 비장하네.[7][五更鼓角聲悲壯]"라고 한 시구에 견주었

---

3) 사람들의 …… 시마(詩魔)였으니 : 시마는 흔히 시 짓기를 매우 좋아하는 성벽(性癖)을 이른다. 이 구절은 송(宋)나라 엄우(嚴羽)의 《창랑시화(滄浪詩話)》 〈시변(詩辯)〉에, "무릇 시를 배우는 사람은 식견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입문하기를 바르게 해야 하고 뜻을 세우기를 높이 해야 한다. 한(漢)·위진(魏晉)·성당(盛唐)을 스승으로 삼고, 개원(開元 713~741)·천보(天寶 742~755) 이후의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스스로 위축된다면 바로 하등한 시마(詩魔)가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다.[夫學詩者以識爲主, 入門須正, 立志須高. 以漢·魏·晉·盛唐爲師, 不作開元·天寶以下人物. 若自退屈, 卽有下劣詩魔入其肺腑之間.]"에서 온 말이다.

4) 물 속의 …… 절묘함이 : 이 말은 시의 기교가 매우 절묘해서 인위적인 흔적이 보이지 않음을 비유한 것이다. 송나라 엄우의 《창랑시화》 〈시변(詩辯)〉에, "성당(盛唐)의 시인들은 오직 흥취에 주력하여 영양(羚羊)이 뿔을 나무에 걸은 것과 같아서 자취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절묘한 부분은 투철하고 영롱하지만 근접할 수 없다. 마치 공중의 소리, 외형 속의 색깔, 물 속의 달, 거울 속의 허상과도 같아 말은 다함이 있지만 뜻은 무궁하다.[盛唐諸人, 惟在興趣, 羚羊掛角, 無迹可求. 故其妙處, 透徹玲瓏, 不可湊泊. 如空中之音, 相中之色, 水中之月, 鏡中之象, 言有盡而意無窮.]"라고 하였고, 명(明)나라 사진(謝榛)의 《사명시화(四溟詩話)》 권1에, "시에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굳이 이해할 필요 없는 것이 있으니, 마치 물 속의 달과 거울 속의 꽃과 같아 그 자취를 남겨서는 안 된다.[詩有可解, 不可解, 不必解, 若水月鏡花, 勿泥其跡可也.]"라고 하였다.

5) 〈남산시(南山詩)〉를 …… 하였고 : 〈남산시〉는 당(唐)나라 한유(韓愈)가 종남산(終南山)에 올라가서 그 승경(勝景)을 묘사한 시편의 이름으로, 오언 고시(五言古詩) 204구로 되어 있다. 《韓昌黎文集 卷1 古詩》 〈북정(北征)〉은 당나라 두보(杜甫)가 오언 고시로 안록산(安祿山)의 난리 중에 행재소(行在所)인 봉상(鳳翔)에서 처자가 있던 부주(鄜州)에 이르기까지의 감회를 읊은 기행시(紀行詩)이다. 《杜少陵詩集 卷5》 《잠계시안(潛溪詩眼)》에 송나라 왕안석(王安石)이 한유의 〈남산시〉가 두보의 〈북정〉보다 낫다고 한 말이 나온다.

6) 푸른 …… 않는다 : 이 구절은 구양수(歐陽脩)의 〈화한학사양주문희정치주(和韓學士襄州聞喜亭置酒)〉에 한 구절로, 전문은 다음과 같다. "巉巉高城漢水邊, 登臨誰與共躋攀. 淸川萬古流不盡, 白鳥雙飛意自閒. 可笑沈碑憂岸谷, 誰能把酒對江山. 少年我亦曾游目, 風物今思一夢還." 《歐陽脩集 卷12 居士集》 【校】 원문의 "滄波"가 《구양수집》에서는 "淸川"으로 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다.[8] 구양공이 자신을 칭찬한 것으로 말하면, 〈여산고(廬山高)〉[9]와 〈명비사(明妃詞)〉[10]가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작품을 뛰어넘는다고 하였는데,[11] 운격(韻格)의 고하(高下)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지나친 자부임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호응린(胡應麟)[12] 무리에게 비웃음을 당한 것[13]이 당연하겠다.

---

7) 오경(五更)의 …… 비장하네 : 이 구절은 두보(杜甫)의 〈각야(閣夜)〉에 한 구절로, 전문은 다음과 같다. "歲暮陰陽催短景, 天涯霜雪霽寒宵. 五更鼓角聲悲壯, 三峽星河影動搖. 野哭千家聞戰伐, 夷歌幾處起漁樵. 臥龍躍馬終黃土, 人事音書漫寂寥" 《續國譯漢文大成 漢詩 杜甫 卷29》

8) 푸른 …… 견주었다 : 소식(蘇軾)이 칠언시 중에 아름다운 구절을 뽑으면서 두보 〈각야〉의 "五更鼓角聲悲壯, 三峽星河影動搖."란 두 구절에 구양수 〈화한학사양주문희정치주〉의 "滄波萬古流不盡, 白鶴雙飛意自閒"이란 두 구절을 견준 것을 이른다. "七言之偉麗者. 杜子美云 : 旌旗日暖龍蛇動, 宮殿風微燕雀高 ; 五更曉角聲悲壯, 三峽星河影動搖. 爾後寂寞無聞焉. 直至歐陽永叔 : 滄波萬古流不盡, 白鶴雙飛意自閒 ; 萬馬不嘶聽號令, 諸蕃無事樂耕耘.可以并驅爭先矣."《東坡全集 補遺 評七言麗句》

9) 여산고(廬山高) : 구양수가, 자신과 같은 해에 급제한 유환(柳渙)이 절조가 높아 시속에 굴하지 않고 여산(廬山) 남쪽에 은거하니, 그 절개를 고상하게 여기고 그를 찬미한 시이다. 《歐陽修集 卷5 居士集》

10) 명비사(明妃詞) : 구양수가 왕안석의 〈명비곡(明妃曲)〉에 화답한 시로, 왕안석의 〈명비곡〉이 왕소군(王昭君) 한 개인의 슬픔을 읊은 것임에 비해 이 시는 한(漢)나라 왕조의 정치적인 실책을 비판하였다. 《歐陽修集 卷8 居士集》【校】원제가 《구양수집》에서는 "再和明妃曲"으로 되어 있다.

11) 구양공이 …… 하였는데 : 송(宋)나라 위경지(魏慶之)의 《시인옥설(詩人玉屑)》 권17 구공자부(歐公自負) 조에, 《석림시화(石林詩話)》를 들어 이르기를 "구공(歐公)이 하루는 술에 취해 그 아들 구양비(歐陽棐)에게 말하기를, '나의 시 〈여산고(廬山高)〉는 금세인은 지을 수 없고 이태백(李太白)만이 지을 수 있다. 〈명비곡(明妃曲)〉 후편(後篇)은 이태백도 지을 수 없고 두자미(杜子美)만이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명비곡〉 전장(前章)은 두자미도 지을 수 없고 오직 나만이 지을 수 있다.' 하였다.[《石林詩話》云 : "歐公一日被酒, 語其子棐曰 : '吾詩〈廬山高〉, 今人莫能爲, 惟李太白能之. 〈明妃曲〉後篇, 太白不能爲, 惟杜子美能之. 至于前章, 則子美亦不能爲, 惟吾能之也.'"]"라고 하였다.

12) 호응린(胡應麟) : 1551~1602. 명(明)나라 사람으로 자는 원서(元瑞), 호는 소실산인(小室山人), 별호는 석양생(石羊生)이다. 오래도록 급제하지 못하자 산중에 집을 지은 다음 4만여 권의 책을 구입해 놓고 독서로 일관하며 많을 글을 지었다. 일찍이 자신이 지은 시를 가지고 왕세정(王世貞)을 찾아갔는데, 왕세정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다. 《소실산방유고(少室山房類稿》, 《소실산방필총(少室山房筆叢)》, 《시수(詩藪)》가 있다.

13) 비웃음을 당한 것 : 이는 호응린의 《시수(詩藪)》 외편 권5 〈송(宋)〉에, "구양수는 본디 문(文)에 능한 사람인데 시사(詩詞)에까지 두루 미쳤다. 그가 지은 〈여산고〉와 〈명비곡〉은 논할 만한 지취(旨趣)가 없고 단지 격조가 가행(歌行)과 크게 다를 뿐이었다. 속류(俗流)들을 놀라게 했으면 됐지, 이백과 두보에게 당돌하게 굴었던 것은 어째서인가?[歐陽脩自是文士, 旁及詩詞. 所爲〈廬山高〉·〈明妃曲〉無論旨趣, 只格調迥與歌行不同. 驚駭俗流可耳, 唐突李·杜何也?]라고 한 것을 이른 듯하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宋時程·朱之義理, 歐·蘇之文章, 皆能入微造極, 殆無餘憾. 而獨其詩學寥寥, 數百年間, 入人肝脾者, 皆下劣詩魔, 所謂水月鏡花玲瓏透徹之妙, 無復存者. 至於論詩, 則殆同譫語, 乃以〈南山詩〉爲勝於〈北征〉, 而滄波萬古流不盡, 乃歐公漫調, 而持比於五更鼓角聲悲壯, 若歐公之自贊, 則以〈廬山高〉·〈明妃詞〉爲踰於李·杜. 由其全昧於韻格高下, 故不自覺其言之過矜, 宜乎見笑於胡應麟輩也.

2. 시에 대한 주자(朱子)의 안목

주자(朱子)가 어려서 선체(選體)[14]를 공부할 적에 유병옹(劉病翁)[15] · 황자후(黃子厚)[16]와 토론하며 연마하였기[17] 때문에 풍아(風雅)의 원류에 대해 안목이 자별하였으니, 그의 시평(詩評)은 구양수(歐陽脩)와 소식(蘇軾) 등 여러 사람보다 크게 뛰어났다. 호담암(胡澹菴)[18]이 일찍이 시에 능한 선비를 추천할 적에 주자가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19] 주자를 칭찬하

---

14) 선체(選體) : 남조(南朝) 양(梁)나라 소통(蕭統)의 《문선(文選)》에서 선집된 시가(詩歌)의 풍격과 체제를 이른다. 송나라 엄우(嚴羽)의 《창랑시화》 〈시체(詩體)〉에서 선체에 대해 "선시(選詩)는 시대가 같지 같아 체제도 이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은 으레 오언 고시를 선체라 하는데 틀린 말이다.[選詩時代不同, 體製隨異, 今人例謂五言古詩爲選體, 非也.]"라고 주를 달았다.

15) 유병옹(劉病翁) : 송나라 유자휘(劉子翬, 1101~1147)를 가리킨다. 유자휘의 자는 언충(彦沖), 호는 병산(屛山)·병옹(病翁),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주역(周易)》을 깊이 연구하였고, 주희가 일찍이 그에게 수학하였다. 《병산집(屛山集)》이 있다.

16) 황자후(黃子厚) : 송나라 황수(黃銖, 1131~1199)를 가리킨다. 황수의 자는 자후(子厚), 호는 곡성(穀城)이다. 유자휘(劉子翬)를 사사하였고 주희와 동문이 된다. 유자휘가 죽자, 주희와 함께 그 유문(遺文)을 정리하여 후세에 전하였다. 《곡성집(穀城集)》이 있다.

17) 유병옹(劉病翁) …… 연마하였기 : 명(明)나라 이묵(李默)의 《자양문공선생연보(紫陽文公先生年譜)》를 상고해 보면, 주희가 1143년(주희 나이 14세)에 부친 주송(朱松)의 유언을 받들어 부친의 벗인 유자휘를 찾아가 수학하였고, 《주희집(朱熹集)》 76권 〈황자후시서(黃子厚詩序)〉를 상고해 보면, 주희가 십 오륙세에 황수를 유자휘의 집에서 만나 유자휘에게 함께 수학하였고, 황수가 자신보다 1살이 어리지만 시재(詩才)가 뛰어났다고 칭찬하였다.

18) 호담암(胡澹菴) : 송나라 호전(胡銓, 1102~1180)을 가리킨다. 호전의 자는 방형(邦衡), 호는 담암(澹菴),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고종(高宗) 건염(建炎) 2년(1128)에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병부시랑(兵部侍郎)까지 역임하다가 자정전 학사(資政殿學士)로 치사(致仕)하였다. 《담암집(澹菴集)》 등이 있다.

19) 시에 …… 포함되었다 : 《자양문공선생연보》와 《송사(宋史)》 권429 〈주희전(朱熹傳)〉을 상고해 보면, 1121년(주희 나이 41세) 12월에 공부 시랑(工部侍郎) 호전(胡銓)이 시인(詩人)을 추천하여 주희가 왕정규(王庭珪)와 함께 조정으로 불러졌는데, 주희가 모친상을 마치지 못한 이유로 사양하였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기를 도학(道學)으로 하지 않고 시로 하였으니, 비록 비루한 듯하지만 또한 시가(詩家)의 지음(知音)이라 하겠다.

朱子少學選體, 與劉病翁·黃子厚上下磨礲, 故其於風雅源流, 眼目自別, 其所評詩, 大勝歐·蘇諸子. 胡澹菴嘗薦能詩之士, 而朱子與焉. 稱譽朱子, 不以道學而以詩, 雖似陋野, 亦可謂詩家賞音矣.

3. 중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이(李珥)의 주장

율곡(栗谷; 李珥)이 선묘조(宣廟朝)에 중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극력 주장하였는데[20] 참으로 명쾌하다. 당시 소재(穌齋)[21]가 재상이었는데 그 주장을 흔쾌히 따라주지 못하였다. 백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그 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혁파하는 자가 없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栗谷在宣廟朝, 力言疏決釋重囚之不可, 儘是明快. 時穌齋爲相, 而未能快從其言. 至今百餘年, 其弊猶在而未有破除之者, 良可慨惋!

4. 사면령을 자주 내리지 말라는 오한(吳漢)의 유언

어린 시절 《사략(史略)》을 읽을 적에 오한(吳漢)[22]이 죽음에 임박하여 광무제(光武帝)에게 사면령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부분에[23] 이를 때마다, 매양 그의 긴절하지

---

20) 율곡(栗谷)이 …… 주장하였는데 : 이 일에 대해 《율곡전서(栗谷全書)》, 《소재집(穌齋集)》,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찾아보았으나 구체적 사실을 상고할 수 없었다.

21) 소재(穌齋) : 조선의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을 가리킨다. 노수신의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과회(寡悔), 호는 소재(穌齋)·이재(伊齋)·암실(暗室)·여봉노인(茹峰老人), 시호는 문의(文懿)이며, 뒤에 문간(文簡)으로 고쳤다. 벼슬은 영의정에 이르렀다. 《소재집(穌齋集)》이 있다.

22) 오한(吳漢) : ?~44. 동한(東漢) 사람으로 자는 자안(子顔)이다. 처음에는 정장(亭長)이었는데 왕망(王莽) 말기에 어양(漁陽)으로 망명하여 말을 파는 업에 종사하였다. 뒤에 유수(劉秀 훗날 광무제(光武帝))에게 귀순하여 왕랑(王郎)을 정벌하였다. 제장(諸將)들과 함께 유수를 황제로 옹립하였는데 대사마(大司馬)에 임용되고 무양후(舞陽侯)로 봉해졌다. 그 후 온갖 지역을 평정하였고, 건무(建武) 11년(35)에 군대를 이끌고 촉(蜀)을 치고 이듬해에 촉을 멸망시키고 공손술(公孫述) 종족을 몰살시켰다.

23) 오한(吳漢)이 …… 부분에 : 《십팔사략(十八史略)》 권3 〈동한광무東漢光武)〉에, 건무(建武) 20년(44)에 오한이 위독하여 죽음에 임박하자 광무제(光武帝)가 친히 위로하고 하고 싶은 말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않은 대답에 대해 조소하였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생각해 보니, 고금의 유언 가운데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 오늘날에 죄수들을 관대하게 처분하여 풀어 주는 것을 오한이 본다면 또한 필시 근심할 것이다.

兒時讀《史略》, 至吳漢臨死, 言願無赦, 每笑其不緊. 到老思之, 古今顧言, 莫如此切確. 今之疏決, 使吳漢見之, 則亦必腹悶矣.

5. 동지(冬至)에 대하여

주천(周天; 公轉)은 365도(度) 4분의 1도이니 천(天)과 일(日)이 서로 만나는 것이 동지(冬至)가 된다. 1년은 12개월이고 달마다 각각 하나의 벽괘(辟卦)[24]가 있으니, 동지에 이르러 일양(一陽)의 획(畫)이 생겨 복괘(復卦)가 된다. 천과 일이 헤어지고 만나는 것과 괘·획이 음이 되고 양이 되는 것이 길은 다르지만 귀결처는 같아서 기약하지 않아도 만나는 것이 하루 안에 있으니, 참으로 기묘하다!

周天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 而天與日相會爲冬至. 一年十二月, 月各有一辟卦, 而至冬至一陽畫生, 爲復卦. 天日之離合, 卦畫之陰陽, 殊塗同歸, 不約而會, 乃在一日之內, 奇乎妙哉!

을 물었는데, 오한이 신중히 생각하여 사면령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이라고 대답하였다. 참고로 《십팔사략》에서 이 부분 바로 뒤에 오한의 말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당 태종(唐太宗)이 "사면은 소인이 요행으로 바라는 것이니 군자는 행하지 않는다. 무릇 피를 내버려 두는 것은 좋은 곡식을 해치는 일이고 죄수를 사면하는 것은 선량한 사람을 해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짐이 사면령을 자주 내리려고 하지 않는 것은 소인들이 사면령을 믿고서 법을 가벼이 범할까 두려워해서이다. 오한이 광무제에게 사면령이 없게 하기를 간한 것은 또한 이 뜻이다."라고 한 말을 덧붙였다.

24) 벽괘(辟卦) : 군괘(君卦)·주괘(主卦)라고도 하는데, 복괘(復卦), 임괘(臨卦), 태괘(泰卦), 대장괘(大壯卦), 쾌괘(夬卦), 건괘(乾卦), 구괘(姤卦), 돈괘(遯卦), 비괘(否卦), 관괘(觀卦), 박괘(剝卦), 곤괘(坤卦) 등 12괘를 벽괘라 부르고 12개월에 짝한다. 즉 일양(一陽)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11월)의 복괘로부터 시작하여 12월은 이양(二陽)의 임괘, 정월은 삼양(三陽)의 태괘, 2월은 사양(四陽)의 대장괘, 3월은 오양(五陽)의 쾌괘, 4월은 순양(純陽)인 건괘(乾卦)이며, 다시 일음(一陰)이 생기는 하지(5월)의 구괘(姤卦)로부터 시작하여 6월은 이음(二陰)의 돈괘, 7월은 삼음(三陰)의 비괘, 8월은 사음(四陰)의 관괘, 9월은 오음(五陰)의 박괘, 10월은 순음(純音)의 곤괘로 순환한다. 이는 한(漢)나라의 경방(京房)에게서 비롯되었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6. 고대(古代)에 절기(節氣)를 측정하는 방법

십이율관(十二律管)[25]은 십이벽괘(十二辟卦)와 서로 부합하기 때문에 매달 율관의 갈대 재가 날리는 것으로[26] 벽괘와 절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증험해보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황제(黃帝)가 이 방법을 처음 고안한 이후로 전승하여 사용해 폐지되지 않았는데 주(周)나라 말기에 이르러 흩어져 없어져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唐)나라 이전에는 오히려 남은 법이 있었고 또한 영특한 사람들이 많아서 간혹 율관을 묻고 재를 날릴 수 있었다. 예컨대 고씨(高氏) 북제(北齊) 때 신도방(信都芳)[27]이 24개의 부채를 묻었는데 신묘하게 절기에 따라 반응하여 부채가 움직였으니,[28] 대개 사람의 기교가 천기(天機)와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주자가 채계통(蔡季通)[29]과 함께 율관을 논한 것이 매우 정치하였지만 유

---

25) 십이율관(十二律管) : 율관은 죽관(竹管) 혹은 금속관(金屬管)으로 만든 음(音)을 정하는 기구인데, 고대에는 또한 절기를 측정하는 기구로도 쓰였다. 십이율관은 황종(黃鐘), 태주(大簇), 고선(姑洗), 유빈(蕤賓), 이칙(夷則), 무역(無射), 대려(大呂), 협종(夾鐘), 중려(仲呂), 임종(林鐘), 남려(南呂), 응종(應鐘)의 십이율려(十二律呂)가 12개월에 짝하는 것이다. 즉 황종은 11월(동지), 태주는 정월, 고선은 3월, 유빈은 5월, 이칙은 7월, 무역은 9월, 대려는 12월, 협종은 2월, 중려는 4월, 임종은 6월, 남려는 8월, 응종은 10월에 각각 배속된다.

26) 매달 …… 것으로 : 이는 고대(古代)에 절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에 의하면, 방 하나를 삼중(三重)으로 밀폐하고 방 안에 나무 탁자 12개를 각각 방위에 따라 안쪽은 낮고 바깥쪽은 높게 비치한 다음, 12개의 율관을 12개의 탁자 위에 각각 안치하고 갈대 재[葭灰]를 각 율관의 속에 채워 놓고 절기를 기다려 살피면 매양 한 절기가 이를 때마다 해당 율관의 재가 날리게 된다. 예컨대 11월 동지에는 황종율관의 재가 움직이고, 12월에는 태주율관의 재가 움직이게 된다. 《律呂新書 卷2 律吕證辨 候氣》

27) 신도방(信都芳) : 【校】 원문은 '申屠芳'인데, 앞뒤의 문맥으로 살펴보아 '申屠'를 '信都'로 교감하여 번역하였다. 신도방은 중국 북제(北齊) 때의 사람으로 자는 옥림(玉琳)이다. 어려서부터 산술(算術)에 밝았다. 저서에 《기준(器準)》, 《악서(樂書)》 등이 있다. 《北齊書 卷49 信都芳列傳》

28) 24개의 …… 움직였으니 : 이는 신도방이 율관의 갈대 재를 이용하는 것 외에 절기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신도방이 둥근부채 24개를 땅속에 묻어 24절기를 측정하였는데, 매양 한 절기가 오면 해당하는 하나의 부채만 움직이고 다른 부채는 모두 그대로 있어 마치 부절을 합친 것처럼 율관의 갈대 재와 상응하였다.[又爲輪扇二十四, 埋地中, 以測二十四氣. 每一氣感, 則一扇自動, 他扇並住. 與管灰相應, 若符契焉.] 《隋書 卷16 志 律歷上 候氣》

29) 채계통(蔡季通) : 중국 남송(南宋)의 학자 채원정(1135~1198)을 이른다. 자는 계통, 호는 서산(西山),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어려서는 부친인 채발(蔡發)에게 수학하였고 장성해서는 주희(朱熹)를 사사하였다. 주희는 그를 강우(講友)로 보았다. 주희가 사서(四書)를 해석하고 《역전(易傳)》, 《시전(詩傳)》,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지을 때 모두 그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토론하여 수정하였다. 저서에 《율려신서(律呂新書)》, 《서산공집(西山公集)》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독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니, 율관의 재를 통해 절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로부터 마침내 끊어졌다. 내가 생각건대, 문무(文武)의 재능과 백공(百工)의 기예에 관한 일은 사람의 명철함에 달려 있으니, 당나라 시기와 송나라 시기가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된다. 송나라 시대의 인물이 부족한 것은 효제충신(孝悌忠信)이 아니고, 유독 기발함과 명찰(明察)함이 당나라 시대의 인물보다 크게 뒤떨어진다. 이로써 어짊과 재능 두 가지 품성을 하나로 섞어 논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十二律管, 與十二辟卦相準, 故每月管灰之飛, 用驗卦氣淺深, 少無差爽. 自黃帝創造以來, 承用不廢, 至周末而散亡不理. 然唐以前則猶有餘法, 而亦多靈悟之人, 間能埋管揚灰. 如高齊時, 申屠芳埋二十四扇, 而隨節飜氣如神, 蓋人巧與天機脗合故也. 朱子與蔡季通論律甚精, 而獨於此一事, 未透其竅, 灰管之法, 自是遂絶. 竊謂文武才能與百工技藝之事, 存乎人神明者, 唐後宋前, 爲一大限. 宋時人物所不足者, 非孝悌忠信, 而獨其機神明鑑, 大有愧於唐世. 以此知賢能二品, 未可混論也.

7. 규모의 크고 작음으로 왕자(王者)와 패자(霸者)를 구별한 유래

왕자(王者)와 패자(霸者)라는 칭호는 은(殷)나라와 주(周)나라 이전에 나온다. 예컨대 곤오(昆吾), 시위(豕韋)[30]와 같은 부류는 제후(諸侯)의 수장(首長)이 되는데, 그 규모를 논하면 더러 천하를 통치하기에 부족하기도 하지만, 애당초 이것을 가지고 바름[正]과 속임[譎]을 구별한[31] 적이 없었다. 제 환공(齊桓公)과 진 문공(晉文公)이 인의(仁義)를 가장하여 속임수와 무력을 행한 데에 이르러서는 맹자(孟子)부터 배척하여[32] 무릇 공(公)과 의(義)를 가지

30) 곤오(昆吾), 시위(豕韋) : 곤오는 하(夏) 왕조 때의 소국(小國) 이름을 가리키기도 하고 곤오의 임금을 이르기도 하는데, 하 왕조 때의 패주(霸主)이다. 시위는 은(殷) 왕조 때의 소국 이름을 가리키기도 하고 시위의 임금을 이르기도 하는데, 은 왕조 때의 패주이다.

31) 바름[正]과 …… 구별한 : 공자(孔子)가 춘추 시대의 패자인 제 환공(齊桓公)과 진 문공(晉文公)을 논하면서 정(正)과 휼(譎)로써 구별하였다. 《논어》 〈헌문(憲問)〉에, "진 문공은 속이고 바르지 않았으며, 제 환공은 바르고 속이지 않았다.[晉文公譎而不正, 齊桓公正而不譎]"라고 하였는데, 주자(朱子)의 집주(集註)에 제 환공은 초(楚)나라를 칠 때에 천자국(天子國)인 주(周)나라에 공물(貢物)을 바치지 않았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고, 진 문공은 초나라를 치려 하였으나 명분이 없으므로 초나라의 동맹국인 위(衛)나라를 공격하여 초나라를 전쟁에 끌어들이고 음모로써 승리를 취하였기 때문에 공자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32) 인의(仁義)를 …… 배척하여 : 이는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무력을 인으로써 가장한 자는 패자이니 패자는 반드시 대국을 소유해야 하고, 덕으로써 인을 행한 자는 왕자이니 왕자는 대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탕왕(湯王)은 70리를 가지고 왕도를 행하고 문왕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고 도모한 자는 왕도(王道)라 지목하고 사(私)와 이(利)를 가지고 도모한 자는 패도(霸道)라 지목하였다. 《예기(禮記)》에, “지극한 효는 왕도에 가깝고 지극한 공경[悌]은 패도에 가깝다.”[33] 하였는데, 그 말이 순정하지 않은 듯하지만 그 규모의 크고 작음으로 패자와 왕자를 구별한 것은 아마도 유래가 있을 듯하다.

王霸之稱, 出於殷周之前. 如昆吾·豕韋之類, 爲諸侯雄長. 論其規模, 或不足於君天下, 而初未嘗以是別其正·譎也. 及齊桓晉文假仁義而行詐力, 則自孟子而斥之, 凡以公以義者, 目之以王道; 以私以利者, 目之以霸道. 《禮記》曰: “至孝近于王, 至弟近于霸.” 其言雖似不醇, 然其以規模闊狹, 爲霸王之別, 則恐有來歷也.

8. 책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제일 어렵다

나는 일찍이 생각하기를, 한갓 읽기만 하고 외우지 못하는 자는 제일 게으르고, 한갓 외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는 두 번째로 게으르다고 여겼으니, 어째서인가? 한갓 읽기만 하는 자는 눈을 글에서 떼지 않아 눈을 감으면 볼 수 없고, 한갓 외우기만 하는 자는 외우는 소리가 목과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 소리가 끊기면 음미할 수 없다. 오직 생각을 잘하는 자는 한 구절, 한 글자마다 하나하나 자세히 따지고 건건이 완전히 해석하여 마침내 통달하는 단계에 이르니, 매우 부지런하지 않고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그 난이도를 말한다면, 생각하는 것이 외우는 것보다 어렵고, 외우는 것이 읽는 것보다 어렵다. 읽으면서도 외우지 못하는 자는 잡된 생각을 하면서 읽고자 하는 사람이고, 외우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자는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들을 통틀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余嘗謂徒讀而不能誦者, 爲第一懶, 徒誦而不能思者, 爲第二懶, 何者? 徒讀者眼

(文王)은 100리를 가지고 왕도를 행하였다.[以力假仁者霸, 霸必有大國,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湯以七十里, 文王以百里.]”라고 하고, 〈고자 하(告子下)〉에, 천자는 죄를 성토만 하고 정벌하지 않으며, 제후는 정벌하기만 하고 성토하지 않는 법인데, 오패(五霸)는 제후를 이끌어 제후를 정벌하였다 하여 “오패는 삼왕(三王)의 죄인이다.[五霸者, 三王之罪人也.]”라고 한 부분을 가리킨다.

33) 지극한 …… 가깝다 : 이는 《예기》 〈제의(祭義)〉에 나온다. 삼연은 지효(至孝)의 대상은 부(父)이고 지제(至弟)의 대상은 형(兄)이니 상대하여 비교해 볼 때 지효의 규모가 크므로 왕도에 해당시킨 것이고 지제의 규모가 작으므로 패도에 해당시킨 것이라고 여겨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目不離於行墨, 而合眼則無見矣; 徒誦者伊吾不絶於喉吻, 而聲絶則味乏矣. 惟善思者, 逐句逐字, 一一消詳, 件件融釋, 終底通貫之地, 非大勤而能如是乎? 言其難易, 則思難於誦, 誦難於讀. 讀而不成誦者, 欲與雜慮爲伴者也; 誦而不深思者, 不欲勞神明者也. 捻謂之懶, 不亦可乎?

9. 양생(養生)하는 방법

화(火)는 밖이 밝고 안이 어두우며, 수(水)는 밖이 어둡고 안이 밝다.[34] 사람이 하늘로부터 품부 받을 때 수와 화가 모두 온전한 뒤에야 안과 밖이 통틀어 밝아서 한쪽이 치우치게 어두운 근심이 없을 수 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용모와 기상으로부터 언어와 동작에 이르기까지 모두 끓어오르는[炎炎] 화기만 있고 조금도 깊고 고요한[淵淵] 뜻이 없다. 그러므로 분별하는 것이 남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터럭까지 반드시 살피고,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비록 산처럼 크더라도 반성하지 못하니, 참으로 이른바 밝은 곳은 거울처럼 밝고 어두운 곳은 칠흑처럼 어둡다는 것이다. 만일 깊고 고요한 속에 밝음을 간직하여 두루 넓으며 깊고 고요하도록 닦아 때때로 밝음을 발현할 수 있다면[35] 도(道)가 있는 기상에 가까울 것이다. 《노자(老子)》에 이른바 "백(白)을 알고 흑(黑)을 지킨다."[36]라고 한 것은 뜻이 대개 이와 같다. 수양하는 사람은 수를 올리고 화를 낮추는 것으로 연단(鍊丹)하는 터전을 삼아 발을 드리운 채 입을 막고 옥천(玉泉)으로 입을 행구며 단전(丹田)에 물을 대어

---

34) 화(火)는 …… 밝다 : 《성리대전(性理大全)》, 권27 〈이기 이(理氣二)〉 오행조(五行條)에 "음은 양을 바탕으로 삼고 양은 음을 바탕으로 삼는다. 수는 안이 밝고 밖이 어두우며 화는 안이 어둡고 밖이 밝다.[陰以陽爲質, 陽以陰爲質, 水內明而外暗, 火內暗而外明.]"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팔괘(八卦) 중에 초효(初爻)와 상효(上爻)가 양, 중효(中爻)가 음인 이괘(離卦, ☲)의 상(象)이 화(火)이므로 밖이 밝고 안이 어둡다고 한 것이고, 초효와 상효가 음, 중효가 양인 감괘(坎卦, ☵)의 상이 수(水)이므로 밖이 어둡고 안이 밝다고 한 것이다.

35) 두루 …… 있다면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31장에, "두루 넓으며 깊고 고요하여 때때로 발현된다. 두루 넓은 것은 하늘과 같으며 깊고 고요한 것은 못과 같으니, 드러나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고, 말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는 이가 없고, 행하면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다.[溥博淵泉, 而時出之. 溥博, 如天, 淵泉, 如淵. 見而民莫不敬, 言而民莫不信, 行而民莫不說.]"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여기에서는 '溥博'은 火에, '淵泉'은 水에 대응시켜 화와 수를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닦아 덕성을 기르는 뜻을 이른다.

36) 백(白)을 …… 지킨다 : 《노자(老子)》 제28장에, "그 백을 알고 그 흑을 지키면 천하의 법이 된다.[知其白, 守其黑, 爲天下式.]"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 구절에 대한 하상공(何上公)의 주에, 백은 밝음을 비유하고 흑은 침묵을 비유하는 것으로, 사람이 비록 명백하게 알고 있더라도 침묵을 지키기를 마치 어리석어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해야 하니,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의 법식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백을 화에, 흑을 수에 대응하여 본 것이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화기(火氣)로 하여금 올라가 끓어오르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노인을 소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비결이다. 대개 어릴 때에는 수가 올라가고 화가 내려갔다가, 노쇠하게 되면 화가 수 위에 있게 된다. 수가 올라가고 화가 내려가면 화의 밝음과 수의 윤택함이 서로 이루어 주고, 화가 수 위에 있게 되면 수는 졸여지고 화는 꺼져서 모두 없어진다. 노쇠한 기와 젊은 기를 가지고 고금(古今)의 흥하고 망한 분계를 견주어보면 그 이치가 다르지 않다. 오늘날은 화기가 극도로 끓어올라 온 땅이 모두 붉으니, 아! 또한 너무도 위태롭다.

火外明而內暗, 水外暗而內明. 人之稟賦, 水·火俱全而後, 內外通明, 可無偏暗之患. 觀今世人, 自容體·氣象, 至言語·動作, 都是炎炎之氣, 少無淵淵之意. 故其所了別者, 於人是非, 則毫釐必察, 於己愆尤, 則雖如丘山, 不能反省, 眞所謂明處明如鏡, 暗處黑如漆者也. 如能藏昭昭於淵淵之中, 溥博淵泉, 時出其明, 則庶幾乎有道氣象. 老子所謂知白守黑, 意蓋如此. 修養家以水升火降, 爲鍊丹基地, 垂簾塞兌, 漱玉泉灌丹田, 不使火候上炎, 此其所以返老還童之妙訣也. 蓋童時則水升火降, 衰老則火在水上. 水升火降, 則明潤相濟, 火在水上, 則煎爍俱亡. 以老幼氣候, 比古今界限, 其理不殊, 今之嫩嫩炎炎, 遍地皆赤, 吁亦殆矣!

10. 《논맹정의(論孟精義)》

《논맹정의(論孟精義)》[37]는 이정(二程)과 횡거(橫渠; 張載) 및 정문(程門) 제자들이 주해한 것을 수집하여 한 책으로 합한 것이고, 주자가 그 동이(同異)와 득실(得失)을 변론한 것은 《논맹혹문(論孟或問)》[38]이라 한다. 《논맹혹문》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래된 것이 거의 100년에 이르는데, 《논맹정의》는 뒤따라 들어온 것이 겨우 수십여 년이 된다. 그러므로 우

37) 논맹정의(論孟精義) : 남송의 성리학자 주희(朱熹)가 43세인 1172년(乾道 8)에 편찬한 《논어》·《맹자》에 대한 주석서이다.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논어》·《맹자》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하고, 장재(張載), 범조우(范祖禹), 여희철(呂希哲), 여대림(呂大臨), 사양좌(謝良佐), 유작(游酢), 양시(楊時), 후중량(侯仲良), 윤돈(尹焞) 등 9가(家)의 설을 덧붙였다. 뒤에 '논맹집의(論孟集義)'로 이름을 바꿨는데, 오늘날 간행본을 '논맹정의'로 그대로 쓰는 것은 주희가 원래 이름 붙인 것을 따른 것이다. 총 34권으로 《논어》 20권, 《맹자》 14권이다. 주자의 《논어집주(論語集註)》·《맹자집주(孟子集註)》는 이 책의 정수를 추려 모은 것이다.

38) 논맹혹문(論孟或問) : 《주자연보(朱子年譜)》를 상고하면, 주희가 48세인 1177년(淳熙 4) 6월에 《논맹집주》와 《논맹혹문》을 편차하였다. 논맹혹문은 문답 형식으로 논변한 《논어》·《맹자》에 대한 주석서이다. 주자가 《논맹정의》를 편차한 뒤에 그 정수를 추려 모은 것이 《논맹집주》가 되고, 그 취사(取捨) 선택한 뜻을 밝힌 것이 《논맹혹문》이 된다. 《논어혹문》은 20권이고, 《맹자혹문》은 14권이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리나라의 선비들은 퇴도(退陶; 李滉) 이래로 비록 《논맹혹문》을 읽었지만, 논변한 내용의 곡절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였으니, 마치 눈금 없는 저울과 같아서 모두 애매하게 이해하였다. 비록 우재(尤齋; 宋時烈)라 하더라도 또한 만년(晩年)에서야 《논맹정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미처 연구하지 못하여 일찍이 스스로 한탄하였다.[39] 지금 이 책을 보건대, 마치 한 자리에서 제현(諸賢)을 대하고서 토론하며 문답하는 것과 같아서 주자가 취사(取捨)한 것으로 맞추어 보면 매우 분명하니, 참으로 더욱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선비가 쇠퇴한 말기에 태어나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지만, 글에서 전현(前賢)들이 보지 못한 이치를 볼 수 있다면 또한 유쾌할 것이다. 다만 이 책이 전래된 뒤로 또한 번거로움을 참고 연구한 자가 없었다. 그렇다면 장차 부질없이 책장에 보관되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니, 너무도 개탄스럽다.

《論孟精義》, 卽裒集兩程·橫渠及程門諸子所註解, 合爲一書者, 而朱子辨其同異得失者, 則謂之《或問》. 《或問》之自中國來東方, 幾至百年, 而《精義》則追到纔數十餘年. 故我東諸儒, 自退陶以來, 雖讀《或問》, 而不知所辨云云曲折如何. 有同無星之秤, 捻受其黯黯, 雖尤齋, 亦於晩年得見, 故未及研究, 嘗自恨歎云. 今閱其書, 如參對諸賢於丈席之內, 而上下叩質, 準之以朱子所取捨, 歷歷分曉, 誠不可不益加鑽研也. 士生衰末, 無一事可樂, 獨於文書, 得見前賢所未見者, 亦足爲快. 但此書來後, 亦未有耐煩從事者, 則其將束閣矣, 慨惋奈何?

11. 호인(胡寅)의 《독사관견(讀史管見)》

치당(致堂)[40]의 《관견(管見)》[41]은 본디 역사에 관한 의론이다. 간혹 억측하여 잘못된 곳

39) 우재(尤齋)라 …… 한탄하였다 : 송시열이 1686년(숙종 12) 5월 3일에 참판 이선(李選)에게 답한 편지를 상고해보면, 중국 사신으로 연경(燕京)에 갔다가 《논맹정의》를 구해 보내준 이선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나온다. 송시열은 평소 《논맹혹문》을 보다가 곡절을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음을 한탄하여 30년 동안 백방으로 《논맹정의》를 구하였는데, 이때 그의 나이 80세에 이선의 도움으로 구해 보게 되었다. 그 후 그의 나이 83세인 1689년 3월에 제주 유배 중에서 《논맹혹문정의통고(論孟或問精義通攷)》를 편수하였고, 6월에 사사(賜死)되었다. 《宋子大全 卷72 書 答李擇之》

40) 치당(致堂) : 중국 송(宋)나라의 성리학자 호인(胡寅, 1098~1157)의 호이다. 호인의 자는 명중(明仲),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벼슬은 예부시랑(禮部侍郎)에 이르렀다. 숙부인 호안국(胡安國)의 양자가 되었고, 양시(楊時)에게 수학하였다. 저서에 《논어상설(論語詳說)》, 《독사관견(讀史管見)》, 《비연집(斐然集)》 등이 있다.

41) 관견(管見) : 중국 송 나라의 성리학자 호인(胡寅)의 저서로, 완칭은 '독사관견(讀史管見)'이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이 있기도 하지만, 일의 정황이 편안해지거나 위태로워지는 기미와 사람의 계책이 선하거나 악한 까닭에 대해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든 것은 사마광(司馬光)과 범조우(范祖禹)[42]에 비하면 훨씬 뛰어나다. 그런데 그의 동생 오봉(五峯)[43]은 무엇을 보고 그 책을 태워버리고자[44] 하였는지 모르겠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가운데 남헌(南軒)[45]이 《관견》에 대해 "병폐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라 논하고, 또 "오로지 진회(秦檜)[46]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지은 것이다."[47]라고 말한 부분들을 인용하였다. 무릇 《관견》의 여러 논설은 천고(千古)를 오르

며, 총 30권이다. 호인이,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이 사실은 두루 갖추어져 있으나 의리를 세운 것은 실(實)이 적다고 하여 《춘추》 대의에 입각하여 자세히 논평한 사평집(史評集)이다. 왕응린(王應麟)·주직(朱直) 등에게 의론이 너무 각박하다는 평을 받았다. 《四庫全書總目提要 卷89 史部45 史評類存目1》

42) 사마광(司馬光)과 범조우(范祖禹) : 이 부분의 원문은 '馬范'으로, 일반적으로는 《사기(史記)》를 지은 사마천(司馬遷)과 《후한서(後漢書)》를 지은 범엽(范曄)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호인(胡寅)이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읽고 아쉽게 여겨 《독사관견》을 지었으므로, 《자치통감》을 편찬한 사마광과 사마광의 편찬을 도운 범조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43) 오봉(五峯) : 중국 송(宋)나라의 성리학자 호굉(胡宏, 1106~1162)의 호이다. 호굉의 자는 인중(仁仲),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호안국(胡安國)의 아들이고 호인(胡寅)의 동생이다. 어려서 양시(楊時)와 후중량(侯仲良)에게 수학하였고, 가학(家學)을 전수하였다. 장식(張栻)이 사사하였다. 저서에 《지언(知言)》, 《황왕대기(皇王大紀)》, 《오봉집(五峰集)》 등이 있다.

44) 그 책을 태워버리고자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01 〈정문호강후(程門胡康侯)〉를 살펴보면, 호인은 평소 아우인 호굉의 정확(精確)한 의론을 두려워하고 호굉은 형인 호인을 무시하였는데, 호굉이 호인의 저작인 《논어해(論語解)》와 《독사관견》을 불태우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주자는 매우 옳지 않다고 하며, 《논어해》와 《독사관견》 중에 엉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대부분 명백하고, 호굉의 의론은 도리어 지나치게 고원하기를 좋아하여 그가 한 가지 설(說)을 얻으면 곧바로 말하는데 사실 그 사안과 전혀 연관되지 않아 그의 설이 귀결처가 없다고 평하였다.[明仲嘗畏五峰議論精確, 五峰亦嘗不有其兄, 嘗欲焚其論語解, 并讀史管見. 以今觀之, 殊不然. 如論語管見中雖有粗處, 亦多明白. 至五峰議論, 反以好高之過, 得一說便說, 其實與這物事都不相干涉, 便說得無著落.]

45) 남헌(南軒) : 중국 남송(南宋)의 성리학자 장식(張栻, 1133~1180)의 호이다. 장식의 자는 경부(敬夫 또는 欽夫)·낙재(樂齋)이다. 주희, 여조겸(呂祖謙)과 함께 '남송삼현(南宋三賢)'으로 불린다. 일찍이 승상을 지내고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진 장준(張浚)의 아들이다. 호굉(胡宏)에게 수학하였다. 저서에 역설(易說), 논어해(論語解), 맹자설(孟子說) 및 남헌집(南軒集) 등이 있다.

46) 진회(秦檜) : 1090~1155. 중국 남송(南宋)의 재상으로, 자는 회지(會之)이다. 고종(高宗)의 신임을 받아 19년간 국정을 전단(專斷)하였다. 명상 장준(張浚)·조정(趙鼎) 등을 귀양 보내고 대장군인 한세충(韓世忠), 악비(岳飛), 장준(張俊) 등의 병권을 빼앗고는 악비를 죽였다. 주전파(主戰派)를 탄압하여 금(金)나라와 굴욕적인 화약(和約)을 체결하였다. 영종(寧宗) 때 그의 왕작(王爵)을 추탈하고 시호를 무추(繆醜)로 고쳤다.

47) 병폐를 …… 것이다 : 이는 《주자어류》 권11 학(學)5 〈독서 하(讀書下)〉에 보인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又問: "致堂管見, 初得之甚喜. 後見南軒集中云: '病敗不可言.' 又以爲專爲檜設. 豈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내리며 많은 일들을 망라하였는데, 어찌 일개 간신(奸臣) 때문에 지었겠는가. 남헌은 바로 오봉의 문인(門人)이니, 대개 오봉의 설을 조술(祖述)하여 이 책을 태우고자 한 것이다. 아, 너무도 편협하다.

致堂《管見》, 自是史論. 間或有臆料失中處, 其於事情安危之機, 人謀臧否之由, 剔刮入微, 比諸馬·范, 不啻過之. 其弟五峰, 不知何所見而欲焚其書也. 《朱子語類》中, 引南軒論管見曰: "病敗不可言." 又言專爲憤檜而作. 夫《管見》諸論, 上下千古, 包羅許多事, 曷嘗爲一奸諛而作也? 南軒是五峰門人, 蓋祖其說而欲爲火攻之策, 吁亦偏矣!

12. 장식(張栻)은 도량이 크지 않아 의론이 편협하다

남헌(南軒; 張栻)은 참으로 명쾌한 사람인데 도량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의론에 나타난 것이 대부분 편협하다. 예컨대 남헌이 제갈첨(諸葛瞻)[48]의 일을 논한 것으로 말하면,[49] 제갈첨이 황호(黃皓)[50]를 물리치지 않은 것을 극구 비난하면서 죽어도 용서될 수 없다고 하여 순절(殉節)한 위인들의 반열에 올리려고 하지 않았으니, 너무 각박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이 삶을 버리는 것은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니, 나라가 망하려고 하여 몹시 혼란스러울 때에 적들이 침략하였다는 소문만 듣고도 투항하고 수풀 사이에 몸을 숨겨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다. 그러나 제갈첨은 등애(鄧艾)의 사신을 벤

有言天下之理而專爲一人者?" 曰: "儘有好處, 但好惡不相掩爾." 【道夫】]

48) 제갈첨(諸葛瞻) : 227~263.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장수로, 자는 사원(思遠)이다. 제갈량(諸葛亮)의 아들이다. 공주에게 장가들었고, 벼슬이 시중(侍中)에 이르렀다. 263년에 위(魏) 나라 장수 등애(鄧艾)가 촉을 쳤는데, 제갈첨이 음평(陰平)을 지키지 못하고 면죽(綿竹)으로 후퇴하였다. 등애가 항복하기를 권유하였지만 거절하고 힘써 싸우다가 자신의 아들 제갈상(諸葛尙)과 함께 전사하였다.

49) 남헌이 …… 말하면 : 《주희집(朱熹集)》 권40 〈답하숙경(答何叔京)〉을 상고해보면, 장식이 제갈첨은 권세가 장상(將相)을 겸하였는데도 극간하여 황호를 제거하지 못하였고, 간언하여도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면 또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남으로써 임금이 과오를 깨닫기를 도모하지 못하여 군대는 패배하고 자신은 죽었으니 비록 항복하지 않았지만 매국노보다 조금 나을 뿐이라고 혹평하였다.[欽夫論瞻權兼將相而不能極諫以去黃皓, 諫而不聽, 又不能奉身而退, 以冀主之一悟, 兵敗身死, 雖能不降, 僅勝於賈國者耳.]

50) 황호(黃皓) :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환관(宦官)으로, 후주(後主) 유선(劉禪)의 총애를 받아 중상시(中常侍)가 되었다. 경요(景耀 258~262) 초에 비로소 정사에 참여하여 권력을 농단하고 대장군 강유(姜維)를 폐하고자 하였다. 촉한이 망하자 등애(鄧艾)가 황호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황호가 등애의 좌우에게 후히 뇌물을 죽어 죽음을 면하였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다음 성을 등지고 싸우다가 죽어서 위로는 어진 아비의 공렬(功烈)을 잇고 아래로는 사랑하는 아들과 운명을 같이하여 한 가문의 세 사람의 충절(忠節)이 해와 별을 꿰뚫을 만하였으니, 어찌 지난 허물을 들추어 꾸짖고는 순절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무릇 모든 절의를 위해 죽은 신하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서 전후로 완벽하게 선한 뒤에야 순절한 공로를 표창할 수 있다면 사책(史冊)에 이름을 올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옛날에 공(功)과 죄(罪)는 서로 연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절의를 논하는 자들도 이로써 법을 삼아야 한다고 본다. 제갈첨의 순절한 공로는 황호를 내치지 못하였다고 해서 경시해서는 안 될 듯하다. 주자가 이 일에 대해 누차 변론하였지만 끝내 남헌의 결단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南軒固明快人, 而由其器欠淵宏, 故發諸論議者, 多失之偏淺. 如論諸葛瞻事, 極誅其不退黃皓, 而謂死不足贖, 不欲置於死節之列, 無乃太刻乎? 人之捨生, 亦自不易, 亡國搶攘之際, 望風投降, 草間求活者, 滔滔皆是. 瞻能斬艾之使, 背城戰死, 上承賢父之烈, 下與愛子併命, 一門三忠, 可貫日星, 豈可追咎旣往而不許其殉節乎? 凡諸死義之臣, 必一一細勘, 待其前後完善而後, 可褒其死, 則書名竹帛, 有幾人哉? 古稱功罪不相掩, 余謂論節義者, 亦當以此爲法. 如瞻死節, 恐未可以坐黃皓而視溝瀆也. 朱子於此屢相辨詰, 而終未見其快斷, 竊所未解.

13. 경서를 해석하는 자도 사학(史學)을 아울러 공부해야 한다

경서를 해석하는 자도 사학(史學)을 아울러 공부해서 당시의 사실을 잘 알아야 성인(聖人)이 평한 인물에 대해 참고하고 증험하여 착오가 없을 수 있다. 예컨대 영무자(甯武子)[51]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까닭은 바로 험난한 일을 피하지 않은 데 있다.[52] 《좌전(左傳)》을

51) 영무자(甯武子) : 중국 춘추 시대 위(衛)나라 대부(大夫) 영유(甯兪)이다. 무(武)는 그의 시호이다.

52) 어리석은 …… 있다 :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지혜로웠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어리석었으니, 그의 지혜는 따를 수 있지만 그의 어리석음은 따를 수 없다.[甯武子邦有道則知, 邦無道則愚. 其知可及也, 其愚不可及也.]"라고 하였는데, 주희의 집주에, "영무자가 위나라에서 벼슬한 것은 문공과 성공의 시대에 해당하는데 문공은 도가 있었으나 영무자는 볼만한 공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지혜를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성공은 무도하여 나라를 잃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영무자가 그 사이에서 주선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험난한 일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처한 일은 지혜롭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꺼리고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마침내 자기 몸을 보전하고 임금을 구제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를 수 없는 것이다.[武子仕衛, 當文公·成公之時. 文公有道, 而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살펴보면, 영무자가 임금에게 옷과 미음을 바치고[53] 짐독(鴆毒)을 적게 타게 한[54] 등의 일이 바로 그 실제 사례이다. 그런데 정자(程子) 이하 제현들은 모두 말하였는지 침묵하였는지를 가지고 말하여 마치 임금에게 과실이 있는데 영무자가 혹은 간하거나 혹은 간하지 않은 것처럼 보아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화를 면한 것을 가지고 비간(比干)이 간하다가 죽은 일과 대비하였으니,[55] 전혀 적절하지 않다. 《좌전》에서 영무자가 임금에게 간하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본래의 일을 제쳐놓고 인물을 품평한다면 성인이 말씀한 본뜻을 잃지 않을 자가 거의 드물 것이다.

釋經者亦須兼治史學, 諳悉其當時事實, 於聖人所評人物, 可以參證無差. 如寧武子之所以爲愚者, 正在不避艱險. 按左傳, 納橐饘, 薄其酖等事, 乃其實際, 而自程子以下諸賢, 皆從語默上言之, 有若君有過失, 或諫或不諫者然, 乃以沉晦免患, 與比干諫而死作對, 全不襯著. 左傳中, 曷嘗見武子不諫其君乎? 掉了本事, 懸作評品, 其不失聖言本旨者幾希.

14. 정이(程頤)는 사학에 어두웠다

《역전(易傳)》[56]에 "은택을 베풀기가 어렵다.[屯其膏]"[57]를 해석하면서 "편안히 여기고 아

武子無事可見, 此其知之可及也. 成公無道, 至於失國, 而武子周旋其間, 盡心竭力, 不避艱險. 凡其所處, 皆智巧之士所深避而不肯爲者, 而能卒保其身以濟其君,此其愚之不可及也.]" 하였다.

53) 임금에게 …… 바치고 :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28년을 살펴보면, 겨울에 제후들이 온(溫)에서 회합하였을 때, 위 성공(衛成公)이 원훤(元咺)과의 송사(訟事)에서 패소하여 경사(京師)로 보내져 심실(深室)에 유치되었는데, 영유(甯兪)가 위 성공을 따라가서 의복과 음식을 바치는 일을 하였다.

54) 짐독(鴆毒)을 …… 한 :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30년을 살펴보면, 봄에 진후(晉侯)가 의원 연(衍)으로 하여금 약물에 짐독을 타서 위 성공을 독살하게 하였는데, 영유가 의원에게 뇌물을 주어 짐독을 조금 타게 해서 위 성공이 죽지 않았다.

55) 자신을 …… 대비하였으니 : 이는 앞 주석의 《논어》 〈공야장(公冶長)〉에서 영무자를 논한 부분에 대한 주희의 집주(集註)에 나오는 정이(程頤)의 설을 두고 말한 것이다. 정이는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화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따를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또한 어리석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으니 비간이 이에 해당된다.[邦無道, 能沈晦以免患, 故曰: "不可及也." 亦有不當愚者, 比干是也.]"라고 하였다. 비간은 은(殷)나라의 충신으로 주왕(紂王)의 숙부인데, 주왕에게 간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56) 역전(易傳) : 중국 북송의 성리학자 정이(程頤, 1033~1107)가 편찬한 《주역》의 주석서이다. '이천역전(伊川易傳)' 또는 '정씨역전(程氏易傳)'이라고도 한다. 총 4권이다. 정이가 미완성인 채로 죽자 그의 문인 장역(張繹) 등에 의해 수정 보완되었다. 주석의 특징은 한대(漢代)의 역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무 것도 하지 않기를 당(唐)나라의 희종(僖宗)과 소종(昭宗)처럼 한다."[58]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두 사람이 전혀 같지 않은 이유로 정이(程頤)가 잘못 살폈다고 하였다.[59] 대개 두 사람은 한쪽은 일을 도모하였고 다른 한쪽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비괘(否卦)[60]에서 왕윤(王允)과 이덕유(李德裕)를 나란히 일컬었는데,[61] 두 사람의 규모 역시 같지

학(易學)에 반대하여 유가(儒家)의 도의(道義)를 비유적으로 논한 책으로 본 것에 있다.

57) 은택을 …… 어렵다 : 《주역》 〈둔괘(屯卦)〉에, "구오(九五)는 은택을 베풀기가 어려우니 조금씩 바로잡으면 길하고 크게 바로잡으면 흉하리라.[九五, 屯其膏, 小貞, 吉, 大貞, 凶.]"라고 한 데서 온 말인데, 정이의 《역전》에, "오(五)가 존위에 거하고 정(正)을 얻었으면서 어려운 때를 당하였으니, 만일 강명(剛明)한 현자가 보필한다면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으나 신하가 없기 때문에 은택을 베풀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

58) 편안히 …… 한다 : 정이의 《역전》에, "또 편안히 여기고 아무 것도 하지 않기를 당나라의 희종과 소종처럼 하는 것은 아니니,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항상 어려워서 망하는 데 이를 것이다.[又非恬然不爲, 若唐之僖昭也, 不爲, 則常屯以至於亡矣.]"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희종은 당나라 말기에 환관들에게 옹립되어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고, 소종은 희종의 아우로 희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나 환관들의 전횡에 제대로 뜻을 펴지 못하다가 진번(鎭藩)인 주전충(朱全忠)에게 시해 당하였으며 아들 애제(哀帝)에 이르러 당나라가 끝내 망하고 말았다.

59) 주자는 …… 하였다 : 《주자어류》 권135 〈역대 2(歷代二)〉에, "이천의 역전 주해는 또한 잘못 살핀 것이다. '둔기고(屯其膏)'를 설명하기를, '편안히 여기고 아무 것도 하지 않기를 당나라의 희종과 소종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저 두 사람은 전혀 같지 않으니 한 사람은 일을 도모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如伊川易解, 也失契勘. 說'屯其膏'云: "又非恬然不爲, 若唐之僖昭也." 這兩人全不同, 一人是要做事, 一人是不要做.]"라고 하였다.

60) 비괘(否卦) : 【校】 원문은 '比卦'인데, 뒤의 문맥으로 살펴보아 '比'를 '否'로 교감하여 번역하였다.

61) 왕윤(王允)과 …… 일컬었는데 : 《주역》 〈비괘(否卦)〉에, "구오(九五)는 비색함을 그치게 하는지라 대인의 길함이니, 망할까 망할까하여야 총생(叢生)하는 뽕나무에 매어놓듯이 편안하리라.[九五, 休否, 大人吉. 其亡其亡, 繫于苞桑.]"라고 한 데 대한 정이의 《역전》에, "오(五)는 양강중정(陽剛中正)의 덕으로 존위(尊位)에 거하였으므로 천하의 비색함을 종식시킬 수 있으니, 대인의 길함이다. 대인이 지위를 담당하여 도(道)로써 천하의 비색함을 종식시켜서 태(泰)를 점차 이르게 하지만 아직 비색함을 떠나지 못했으므로 '망할까'하는 경계가 있는 것이다. 비(否)가 이미 종식되어 점점 태로 돌아올 때에는 곧바로 편안히 여기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멀리 경계하여 항상 비색함이 다시 올까 염려하여 '망할까 망할까'하여야 총생하는 뽕나무에 매어놓음과 같음을 이른 것이다. 뽕나무라는 물건은 뿌리가 깊고 견고하며, 포(苞)는 총생함을 이르는데 그 견고함이 더욱 심하니, 성인(聖人)의 경계가 깊다. 한(漢)나라의 왕윤(王允)과 당나라의 이덕유(李德裕)는 이 경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화를 초래한 것이다.[漢王允·唐李德裕不知此戒, 所以致禍敗也.]"라고 한 것을 이른다. 왕윤(137~192)은 후한 말기의 재상으로 여포와 은밀히 결탁하여 동탁을 제거하였으나 그의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지 않았다가 끝내 잔당에게 피살되었으며, 이덕유(787~850)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않다. 정자의 정확함으로도 사학을 이처럼 익숙히 공부하지 않았으니, 비록 큰 오류는 아니지만 또한 유감이 없지 않다.

《易傳》解屯其膏, 有云恬然不爲, 如唐之僖·昭, 朱子以兩人全不同, 謂失契勘. 蓋兩人, 一則要做, 一則不要做故也. 又於比卦, 有以王允·李德裕幷稱者, 兩人規模亦不同. 以程子之精確, 而史學之不熟如此, 雖非大段差謬, 亦不無餘憾矣.

15. 서진(西晉)이 호란(胡亂)을 초래한 이유

서진(西晉)이 호란(胡亂)을 불러들인 것은 요약하여 말하면 세 가지 요인이 있다. 금용(金墉)의 화[62]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로, 이륜(彝倫)이 무너져서 중국이 바로 이적(夷狄)이 되었으니, 이적으로서 이적을 부른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육혼(陸渾) 지역의 융적(戎狄)을 일찍 처리하지 않아 융적으로 하여금 기회를 틈타 일어나게 하였으니 이것은 형세이다. 혁장(鬩墻)의 변고[63]는 외적을 막는 데 겨를이 없어서 서로 자멸하는 지경에 이르렀으

는 당나라 문종과 무종 때의 명재상이었으나 우승유(牛僧孺)· 이종민(李宗閔) 일파와 알력이 심하였고 선종(宣宗)이 즉위한 뒤에는 소인들의 모함으로 좌천되어 죽었다. 정이는 왕윤과 이덕유가 비색한 시대에서 태평한 시대로 넘어갈 즈음에 비괘 구오의 경계를 알지 못하고 방심하여 화를 초래하였다고 본 것인데, 김창흡은 이덕유의 규모가 왕윤에 비해 훨씬 커서 동일 선상에 놓을 인물이 아닌데 정이가 사학에 어두워 나란히 두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62) 금용(金墉)의 화 : 290년에 진 무제(晉武帝)가 죽고 연소한 혜제(惠帝)가 즉위하자 무제의 황후 양씨(楊氏)가 자신의 아버지 양준(楊駿)을 재상으로 앉히고 국정을 전단하였는데, 291년에 혜제의 황후 가씨(賈氏)가 양준을 죽이고 양태후(楊太后)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강등시킨 뒤 금용성(金墉城)으로 옮겨 유폐시킨 일을 가리킨다. 금용은 삼국 시대 위 명제(魏明帝) 때 세운 작은 성의 이름으로, 당시 낙양성(洛陽城) 서북쪽에 있었는데 당나라 정관(貞觀) 연간에 폐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금용은 황후나 왕후가 폐하여 유폐된 곳 또는 그 사건을 비유하는 데 쓰인다. 《晉書 紀 卷4 惠帝》

63) 혁장(鬩墻)의 변고 : 혁장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상체(常棣)〉에, "형제가 담 안에서는 싸우지만 밖으로는 남의 업신여김을 막는다.[兄弟鬩於牆, 外禦其務]"라고 한 데서 온 말로, 형제간의 싸움을 이른다. 여기에서는 이른바 '팔왕(八王)의 난(難)'을 이른다. 서진 초기에 무제(武帝; 司馬炎)가 왕권강화를 위해 종실(宗室) 왕자들을 지방의 요새지에 분봉(分封)하여 그들로 하여금 병권을 장악하게 하였는데, 무제가 죽고 혜제가 즉위한 뒤에는 팔왕들이 난을 일으켜 서로 죽이며 정권을 다툰 결과 국력이 쇠퇴하여 나라가 끝내 남흉노에게 멸망되었다. 그리고 여러 왕이 병력 보충을 위해 끌어들인 흉노(匈奴), 선비(鮮卑) 등 북방민족이 그 뒤 화북(華北) 각지에 증식하여 이른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이 발흥하게 되었다. 팔왕은 여남왕(汝南王) 사마량(司馬亮), 초왕(楚王) 사마위(司馬瑋), 조왕(趙王) 사마윤(司馬倫), 제왕(齊王) 사마경(司馬冏), 장사왕(長沙王) 사마예(司馬乂), 성도왕(成都王) 사마영(司馬穎), 하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니 이것도 형세이다. 동양(董養)이 명륜당(明倫堂)에 올라가 한탄하면서 큰 난리가 장차 일어날 것임을 안 것은[64] 이치로 말한 것이다. 곽흠(郭欽)이 큰 계책을 내어 일찍 도모하고자 하고,[65] 유홍(劉弘)이 독견(獨見)을 내어 이적이 틈을 타고 난리를 일으켜 우환이 조만간에 생길까 걱정하였으니[66] 모두 형세로 말한 것이다. 마치 하늘이 시킨 것처럼 이치와 형세가 모두 모여서 수천 년의 문물(文物)이 있는 땅을 이적이 번갈아 왕이 되는 곳으로 바뀌게 하였다. 처음 소란을 일으킨 자를 따져보면, 사마씨(司馬氏)가 수죄(首罪)로 복주(伏誅)되어야 할 것이다.[67] 아, 너무도 통탄스럽다!

간왕(河間王) 사마옹(司馬顒),동해왕(東海王) 사마월(司馬越)을 가리킨다.

64) 동양(董養)이 …… 것은 : 동양은 서진의 태학생(太學生)으로서 자는 중도(仲道)이다. 진 혜제(晉惠帝) 때 가후(賈后)가 양준(楊駿)을 죽이고 태후를 폐위하였는데, 동양이 태학에서 공부하면서 명륜당에 올라가 한탄하기를, "이 당(堂)을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매번 국가의 사면 교서를 보면 모반 대역 죄인은 모두 용서하더라도 조부모와 부모를 죽인 죄인은 용서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법에 있어 용납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 공경(公卿)들이 처결하여 예법을 꾸며댄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하늘과 사람의 이치가 이미 인멸되었으니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及楊后廢, 養因游太學, 升堂歎曰: "建斯堂也, 將何爲乎? 每覽國家赦書, 謀反大逆皆赦, 至於殺祖父母·父母不赦者, 以爲王法所不容也. 奈何公卿處議, 文飾禮典, 以至此乎! 天人之理旣滅, 大亂作矣."]"라고 하였다. 《晉書 卷94 董養傳》

65) 곽흠(郭欽)이 …… 하고 : 진 무제가 오(吳)나라를 평정한 이후에 천하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 주군(州郡)의 군비(軍備)를 다 없앴다. 한(漢)나라와 위(魏)나라 이래로 항복한 강(羌)·호(胡)·선비(鮮卑)의 족속들이 변경 안의 여러 군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자주 장리(長吏)를 살해하여 점차 우환거리가 되었다. 이에 시어사 서하(侍御史西河) 곽흠이 상소하여, 오나라를 평정한 위세를 이용하여 점차적으로 내군(內郡)의 여러 오랑캐를 변방으로 옮기고 사방 오랑캐가 국경을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며 선왕(先王)의 오복(五服) 제도를 밝혀 복구하기를 청하였는데, 무제가 들어주지 않았다. 《史略 卷3 西晉武帝》·《晉書 卷97 匈奴傳》·《資治通鑑 卷81 晉紀》

66) 유홍(劉弘)이 …… 걱정하였으니 : 유홍(236~306)의 자는 계화(季和)이다. 당시 팔왕(八王)의 난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동해왕(東海王) 사마월(司馬越)이 유교(劉喬)가 명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치려 하자, 유홍이 진 혜제에게 표(表)를 올려 동해왕과 유교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논변하면서 동해왕과 유교가 싸울 경우 "만일 사방의 오랑캐가 틈을 타고 변고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또한 맹수 두 마리가 서로 싸워 결국 곁에서 그 싸움을 지켜보던 사람에게 자신을 바치는 꼴입니다.[萬一四夷乘虛爲變, 此亦猛獸交鬪, 自效於卞莊者矣.]"라고 하였다. 《晉書 卷61 劉喬傳》

67) 사마씨(司馬氏)가 …… 것이다 : 서진의 사마씨 즉 사마의(司馬懿, 179~251, 宣帝), 사마소(司馬昭, 211~265, 文皇帝), 사마염(司馬炎, 武帝) 등이 간교를 부려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백성들에게 공덕을 쌓지 못해 금용의 화, 팔왕의 난을 초래하고 끝내 이적이 중국을 차지하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를 열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西晉致胡亂, 約言之有三, 金墉之禍, 載籍未有. 彝倫斁逆, 中國卽夷狄, 以夷狄召夷狄, 理固然也. 陸渾之戎, 不早區處, 使之乘機闖發, 此則勢也. 閬墻之變, 不遑於禦外侮, 以至淪胥以敗, 此亦勢也. 董養明倫之嘆, 知大亂之將作, 則以理言之也. 郭欽大計, 欲早爲之所, 劉弘獨見, 恐乘虛而爲亂, 憂有早晩, 皆以勢言之也. 理勢湊會, 若有天使, 使數千年文物之地, 爲夷虜迭王之所. 詰其所俶擾者, 司馬氏當伏首誅, 嗚呼痛哉!

16. 국운의 길고 짧음은 천운에 달렸다

호오봉(胡五峯; 胡宏)이 정전법(井田法)과 봉건제(封建制)를 가지고 주(周)나라와 한(漢)나라의 국운(國運)이 길고 짧은 것을 논한 것은[68] 매우 오활한데, 계곡(溪谷; 張維) 역시 은(殷)나라가 질박함을 숭상하고 일을 간편하게 하여 그 치세(治世) 기간이 하(夏)나라와 주나라보다 훨씬 성대하였다고[69] 하였다. 무릇 국조(國祚)가 길고 짧은 것은 진실로 나라의 덕이 후한지 박한지를 징험할 수 있지만 길어도 4백 년이면 또한 그친다. 4백 년 이후 남는 기간의 길고 짧음은 굳이 상세히 따질 것이 없으니, 대개 그렇게 함이 없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은 천운(天運)이기 때문이다.[70] 삼왕(三王)[71]의 성스러움은 우열을 따질 수 없으니

---

68) 호오봉(胡五峯)이 …… 것은 : 이는 적확한 출전을 상고할 수 없다. 다만 《오봉집(五峯集)》 권4 〈황왕대기론(皇王大紀論) 건국정전(建國井田)〉에서 호굉은 정전법과 봉건제를 상세히 논하면서 "정전법과 봉건제는 제왕의 시대에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井田封國, 帝王之世, 萬事根本也.]"라고 하고, 또 "정전법와 봉건제는 백성을 사랑하는 요법이다.[井田封國, 仁民之要法也.]라고 하였다.

69) 계곡(溪谷) …… 성대하였다고 : 《계곡만필(谿谷漫筆)》 권1에서 장유(張維)는 삼대(三代)의 성대함을 논하면서 하 나라의 치세 기간은 450여 년이지만 중간에 예착(羿浞)의 난리로 40년 동안 사씨(姒氏 하 왕조의 성씨)의 제사가 단절되었고, 주나라의 치세 기간은 800여 년이지만 무왕(武王)부터 유왕(幽王)까지 겨우 350년에 불과한데 유왕이 쫓겨나서 천하에 임금이 없었던 기간이 14년이며 동천(東遷)한 이후에는 왕실의 힘이 점차로 미약해져 열국(列國)과 같은 지위로 강등되며 전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천자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으며, 오직 은나라만은 치세한 640년 동안 성군(聖君)이 계속 배출되어 국력을 사방에 떨쳤다고 하였다. 장유는 그 이유에 대해, "삼대 가운데 은나라가 가장 성대한 까닭은 질박함을 숭상하였기 때문이다. 질박하면 일이 간편해지고 일을 간편하게 하면 힘이 적게 들어가 백성이 고생하지 않는다. 나라가 오랫동안 강성하고 쇠퇴하지 않은 까닭은 이 때문일 것이다.[三代殷最盛, 以其尙質也. 質則事簡, 事簡則費寡而民不困. 國之所以久強而不衰者, 其以此乎!]"라고 하였다.

70) 그렇게 …… 천운(天運)이기 : 《맹자》 〈만장 상(萬章上)〉에, 만장이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은 모두 현자(賢者)에게 선위(禪位)하였는데 우(禹)임금은 현자에게 선위하지 않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까닭을 맹자에게 묻자, 맹자가 요와 순의 아들은 모두 불초하였고 순이 요를 돕고 우가 순을 도운 기간은 길었으므로 요와 순의 아들이 천하를 소유하지 못하고 순과 우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그 자손이 나라를 보전한 것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것을 두고 억지로 그 이유를 대서는 안 된다. 또 일을 간편히 하여 힘을 적게 들인 것이 나라의 명맥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라는 후덕하고 주나라는 인자하여 사람들의 골수에 사무쳤는데 유독 나라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여 오래도록 국운을 잇는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단 말인가. 이로써 절충해 보면, 오봉과 계곡의 설이 성립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胡五峰以井田封建, 論周漢享國長短者, 已失之迂矣. 谿谷亦以殷尙質事簡, 歷年最盛於夏周爲說. 夫國祚延促, 固可驗德厚薄, 而延過四百年, 亦可以止矣. 其餘多少, 不必細較, 蓋莫之爲而爲者天也. 以三王之聖, 莫可優劣, 而子孫之保, 或長或短, 不容强說於其間. 且事簡費寡, 謂可以延活國脉矣, 則夏厚周仁, 淪浹人肌骨者, 獨不可以維持鞏固, 以收祈永之效乎? 以此折之, 知其說之難立矣.

17. 봉건제

호씨(胡氏) 형제[72]가 매양 치도(治道)를 논할 때마다 반드시 봉건제와 정전법으로 상책(上策)으로 삼아 유자후(柳子厚; 柳宗元)의 의론[73]을 심하게 공박하였는데, 그 설이 크게

가 천하를 소유하게 된 것이고, 우의 아들 계(啓)는 어질고 익(益)이 우를 도운 기간은 짧았으므로 계가 천하를 소유하고 익이 천하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하고, 이어 "이것은 모두 천운이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함이 없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은 천운이고, 이르게 함이 없는데도 이르는 것은 명운이다.[皆天也, 非人之所能爲也. 莫之爲而爲者, 天也; 莫之致而至者, 命也]"라고 하였다. 김창흡은 나라의 명운이 길고 짧은 것은 호굉이 말한 정전법·봉건제를 쓰는지의 여부와 장유가 말한 질박함을 숭상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천운에 달린 것이라고 본 것이다.

71) 삼왕(三王) : 하나라의 우왕(禹王), 은나라의 탕왕(湯王), 주나라의 문왕(文王)을 이른다.

72) 호씨(胡氏) 형제 : 호안국(胡安國)의 아들인 호인(胡寅)·호굉(胡宏) 형제를 이른다.

73) 유자후(柳子厚)의 의론 : 유종원(柳宗元)의 〈봉건론(封建論)〉을 이른다. 유종원은 〈봉건론〉에서 봉건제는 애당초 성인(聖人)의 뜻에서 나와 만든 제도가 아니라 당시 형세상 어쩔 수 없어 답습해 쓴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은(殷)나라는 자국에 귀속한 3000명의 제후들을 이끌고 하(夏)나라를 축출하였기 때문에 탕왕(湯王)이 봉건제를 폐지하지 못한 것이고 주(周)나라는 귀속한 800명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은나라를 이겼기 때문에 무왕(武王)이 봉건제를 바꾸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봉건제를 쓴 은나라, 주나라, 한(漢)나라 등은 봉건제의 폐단으로 망하게 되었고, 군현제(郡縣制)로 바꾸어 쓴 진(秦)나라는 군현제의 폐단이 아니라 폭정으로 인한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호씨 형제가 봉건제와 정전법은 성인이 만든 훌륭한 제도로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요법(要法)이라고 주장한 의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唐宋八大家文鈔 卷24 柳州文鈔8 封建論》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치우쳤다. 주자가 이에 대해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은 듯하다가[74] 끝내 《당감(唐鑑)》[75]에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다는 논의를[76] 취하였으니, 호씨를 따르지 않은 은미한 뜻을 볼 수 있다. 또한 일찍이 말하기를, "봉건제는 시행하기 어려우니, 가령 부귀한 집안의 자제가 배우지 않고 사민(士民)의 위에 처한다면 그 해악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77] 라고 하고, 또 정자(程子)는 처음에 봉건제를 옳게 여겼다가 끝내 그 설을 고쳤으니, 오랫동안 여러 일을 경험한 끝에 봉건제를 억지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 것이라고 하였다.[78] 그렇다면 호씨가 일찍이 감개(感慨)한 것은 고금의 일을 비교하여 그 이해(利害) 여

---

74) 주자가 …… 듯하다가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08 〈논치도(論治道)〉에, 주자가 "유자후의 봉건론에서는 전적으로 봉건제가 그릇되었다고 하였고, 유자후의 설을 논박한 호명중(胡明仲; 胡寅) 무리는 전적으로 봉건제를 옳다고 하였다. 요컨대 천하의 제도는 완전하게 이롭거나 또는 완전하게 해로운 도리는 없으니, 단지 이로움과 해로움이 어느 정도인지 볼 뿐이다. 봉건제는 근본이 비교적 공고하여 국가가 믿을 만하고, 군현제는 나누어서 다스리기 쉽지만 수령들이 자주 교체되어 장구한 뜻이 없으니 공고함을 믿을 수 없다.[柳子厚封建論, 則全以封建爲非; 胡明仲輩破其說, 則專以封建爲是. 要之, 天下制度, 無全利而無害底道理, 但看利害分數如何. 封建則根本較固, 國家可恃; 郡縣則截然易制, 然來來去去, 無長久之意, 不可恃以爲固也.]"라고 하여, 양쪽의 의론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다.

75) 당감(唐鑑) : 중국 북송의 범조우(范祖禹 1041~1098)가 지은 사서(史書)로, 편년체(編年體)이고 총 12권이다. 사마광(司馬光)이 왕명을 받들어 《자치통감》을 편차할 때 범조우는 편수관(編修官)으로 당사(唐史)를 분장(分掌)하였는데, 뒤에 이 작업을 통해 얻은 것을 가지고 이 책을 지었다.

76) 인재를 …… 논의를 : 《주자어류》 권108 〈논치도〉에, "대체로 법을 세우면 반드시 폐단이 있고 폐단이 없는 법은 있지 않았으니, 그 요체는 인재를 얻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만약 인재라면 법이 좋지 않더라도 잘 다스릴 것이고, 인재가 아니라면 훌륭한 법이 있더라도 또한 일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군현제는 봉건제만 못하다는 설을 가지고 말하면, 만약 봉해진 제후가 인재가 아니라면 대대로 계승하여 그들을 바꿀 수 없을 것이고, 군현의 수령이 인재가 아니더라도 그가 2, 3년 임기를 채우고 떠나가거든 대번에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으니 또한 일정함이 없다. 범태사(范太史; 范祖禹)가 지은 《당감》의 의론들이 대체로 모두 인재를 얻는 데로 귀결된다. 내가 처음에 그의 이러한 설을 의심하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와 같은 설이 옳게 여겨졌다.[大抵立法必有弊, 未有無弊之法, 其要只在得人. 若是箇人, 則法雖不善, 亦占分數多了; 若非其人, 則有善法, 亦何益於事! 且如說郡縣不如封建, 若封建非其人, 且是世世相繼, 不能得他去; 如郡縣非其人, 却只三兩年任滿便去, 忽然換得好底來, 亦無定. 范太史唐鑑議論大率皆歸於得人. 某初嫌他恁地說, 後來思之, 只得如此說.]"라고 하였다.

77) 봉건제 …… 있겠는가 : 이는 《주자어류》 권108 〈논치도〉에 보인다.

78) 정자(程子)는 …… 것이다 : 《주자어류》 권97 〈정자지서(程子之書)〉에, "정 선생이 젊은 시절에는 정전법와 봉건제가 꼭 필요하다고 누차 말하였다가 만년에 이르러서는 또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는 창잠도(暢潛道; 暢大隱)의 기록에 보인다. 아마도 선생이 세상일을 많이 겪은 끝에 사세상 시행하기 어려움을 안 것인 듯하다.[程先生幼年屢說須要井田封建, 到晩年又說難行, 見於暢潛道錄. 想是它經歷世故之多, 見得事勢不可行.]"라고 하였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부를 연구한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胡氏兄弟每論治道, 必以封建井田爲上策, 大攻柳子厚之論, 所以爲說者, 未免太偏. 朱子於此, 似亦無所適莫, 而終有取於唐鑑在得人之論, 其不從胡氏微意可見. 亦嘗曰: "封建難行, 使膏粱子弟不學而居士民上, 其爲害, 豈有涯哉?" 又言程子初以封建爲是, 而終改其說, 便是閱事之久, 知難强行也. 然則胡氏之所嘗感慨者, 恐未曾參商古今以究其利病也.

18. 호인의 '선발후문(先發後聞)'이란 설에 대해서

《논어》에 목욕하고 토벌하기를 청한 일[79]에 대한 해석에, 호씨(胡氏; 胡寅)는 "임금을 시해한 역적은 사람마다 주벌할 수 있으니, 중니(仲尼; 孔子)의 이 일은 먼저 군사를 출동시킨 뒤에 보고해야 한다."[80]라고 하였다. 이른바 '보고한다[聞]'는 것은 천자(天子)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주자가 《혹문(或問)》에서 이 뜻을 부연한 것이 매우 상세하니, 지세(地勢)의 원근(遠近)을 헤아리거나 정세의 완급(緩急)을 가늠하여 모두 천자에게 보고할지의 여부로써 말하였다.[81] 그런데 상촌(象村; 申欽)은 자세히 상고하지 못하여 노나라가 먼저 군대

79) 목욕하고 …… 청한 일 : 이는 《논어》 〈헌문(憲問)〉에, 제 대부(齊大夫)인 진항(陳恒)이 제 간공(齊簡公)을 시해하자 "공자가 목욕하고 조회하여 애공에게 말하기를, '진항이 임금을 시해하였으니 토벌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孔子沐浴而朝, 告於哀公曰: "陳恒弑其君, 請討之."]" 라고 한 일을 가리킨다.

80) 임금을 …… 한다 : 주희의 《논어집주》에 보인다.

81) 지세(地勢)의 …… 말하였다 : 《사서혹문(四書或問)》 권19 〈논어 헌문〉에, "가령 그 지역이 천자와 가까워 고할 수 있고 그 일이 급박하지 않아 고할 수 있으며 그 힘이 대적하기에 부족해 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 천자에게 고하여 명을 기다려 군대를 출동시키고, 심한 경우라면 더러 명을 기다리지 않고 군대를 출동시키는 것이 모두 옳다. 그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고 정세가 급박하여 조금도 늦출 수 없으며 나의 힘이 또 역적을 제압할 수 있는데도 구차하게 명을 청하는 소절(小節)을 따르고 시역(弑逆)한 대죄를 잊어서 저 역적으로 하여금 뿌리를 튼실하게 하고 그 무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마침내 도망치게 하여 다시 잡을 수 없도록 한다면 그 일을 맡은 자는 또한 춘추대의(春秋大義)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무릇 노(魯)나라의 약함으로 제(齊)나라를 토벌하고자 하였으니 천자에게 청하는 것은 사리와 형세로 볼 때 진실로 당연하다.[使其地近於天子而可以告也, 其事之未至乎迫據而得以告也, 其力之不足以敵而不得不告也, 則告之而俟命以行, 甚則或不俟命而遂行, 皆可也. 使其地之相去也遠 其事機之來也, 不可以少緩, 而吾之力又自足以制之, 而乃區區焉徇請命之小節, 忘弑逆之大罪, 使彼得以植其根, 固其黨, 或遂奔逸而不可以復得, 則任其事者, 亦無以免乎春秋之責矣. 夫以魯之弱而欲討齊, 其請於天子, 理勢固有當然者.]"라고 하였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를 출동시킨 뒤에 천자에게 보고한다는 것을 노나라 임금에게 고하지 않고 공자가 먼저 군대를 출동시키는 것으로 여기고, 드디어 임금의 권한이나 방백(方伯)·연수(連帥)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부로서 제후의 일을 행하는 것이니 의리와 형세로 볼 때 모두 옳지 않다[82]고 하였다. 호씨의 설은 진실로 간결하여 곡절이 적지만, 대개 노나라 임금이 과연 공자의 청을 따른다면 비록 천자에게 천천히 고하더라도 또한 통쾌한 일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또 호씨가 비록 패악한 사람일지라도 《논어》를 주해하면서 중니의 유약함을 기롱하는 것[83]은 사리상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상촌의 경솔함이 참으로 애석하다.

《論語》沐浴請討解, 胡氏有云, "弑君之賊, 人得而誅之, 仲尼此擧, 先發後聞可也." 所謂聞者, 聞于天子也. 朱子《或問》中, 演此義甚詳, 或度地勢遠近, 或量事機緩切, 皆以聞于天子與否爲說. 象村未能詳考, 而以先發後聞, 認作未告魯君而先發者然, 遂謂非有南面之權方伯連帥之職, 而以大夫行諸侯之事, 義理形勢俱不可也. 胡氏之說, 固簡潔, 少曲折, 而槩謂魯君果從其請, 則雖徐告天子, 亦爲快耳. 且胡氏雖悖, 方俯首於註解論語, 而輒譏仲尼之儒緩, 事理之所不敢出. 惜乎! 象村之失之率易也!

19. 장량(張良)

자방(子房; 張良)의 마음은 크니, 일찍이 재주를 자랑하고 지혜를 뽐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끝을 엿보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소자(邵子; 邵雍)가 "그 용(用)을 잘 감추었다."[84]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자방을 논하는 자들은 그 요체를 파악하지 못하여, 무릇 술수

---

82) 임금의 …… 않다 : 《상촌고(象村稿)》 권43 외고(外稿) 2 〈휘언(彙言) 2〉에, "임금을 시해한 역적은 사람마다 토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자는 당시에 단지 치사(致仕)한 일개 대부(大夫)일 뿐이다. 임금의 권한이나 방백·연수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먼저 군대를 출동시킨 뒤에 보고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대부로서 제후의 일을 행하여 먼저 군대를 출동시킨 뒤에 보고한다면, 어찌 후세에 표문을 올리는 즉시 군대를 출동시키는 폐단을 열어 주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의리와 형세로 볼 때 모두 옳지 않은데 호씨는 이와 같이 주장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弑君之賊, 雖曰人得而討, 孔子於其時, 直致仕之一大夫也. 非有南面之權·方伯連帥之職, 烏得以先發後聞哉? 大夫而行諸侯之事, 先發後聞, 則豈不啓後來拜表輒行之弊耶? 義理形勢, 俱不可也, 而胡氏之說如此, 舛矣哉!]"라고 하였다.

83) 중니의 …… 기롱하는 것 : 호인의 '선발후문'이란 설에 대해 신흠이 이해한 대로 보면, 공자가 먼저 군대를 출동시킨 뒤 노나라 임금에게 고해야 옳은데 공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호인이 공자의 유약함을 기롱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84) 그 용(用)을 …… 감추었다 :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권13 〈관물외편 상(觀物外篇上)〉에,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와 기량이 있어 천문, 지리, 삼기(三奇)[85], 육도(六韜) 따위에 밝은 사람을 두고 모두 자방이 다시 나왔다고 하여 스스로 자랑하거나 남들이 칭찬하는 것이 모두 그러하였다. 최호(崔浩)[86]와 같은 자는 스스로 지혜는 자방과 같지만 고사를 상고한 것은 자방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어리석다. 기미를 헤아리고 기이함을 드러낸 유기(劉基)[87]는 또한 최호와 같은 무리이니 모두 협소한 국량을 가진 자들이다. 자방의 흉중에는 이들과 같은 국량 몇 만개를 담을 수 있다. 야율초재(耶律楚材)[88]와 같은 자도 지혜가 많고 기예가 많은 사람일 뿐인데, 상촌은 무엇을 보고 그를 자방에 견주었단 말인가.[89] 내가 일찍이 그의 사적(事蹟)을 대략 상고하였는데 강개(慷慨)한 말로 간쟁을 잘하여 취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끝내 울분으로 죽음을 재촉하였다.[90] 변통의 유무(有無)와 국량의 대소(大小)를 비

"유후(留侯; 張良)는 참으로 지혜롭다! 그 용을 잘 감추었다.[智哉留侯! 善藏其用.]"라고 하였고, 《주자어류》 권100 〈소자지서(邵子之書)〉에, "강절(康節; 邵雍)은 장자방(張子房)을 매우 좋아하였는데 자방이 그 용을 잘 감추었다고 여겼다. 노자(老子)를 역(易)의 체(體)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맹자(孟子)를 역의 용(用)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두 사람을 합쳐 용을 삼았으니 일에 잘 대처하였음을 볼 수 있다.[康節甚喜張子房, 以爲子房善藏其用. 以老子爲得易之體, 以孟子爲得易之用, 合二者而用之, 想見善處事.]"라고 하였다.

85) 삼기(三奇) : 술법의 한 종류로, 기문(奇文)과 둔갑(遁甲)에서 을(乙)·병(丙)·정(丁) 세 천간(天干)을 가리키는데 길흉을 점치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86) 최호(崔浩) : 381~450. 중국 북위(北魏) 사람으로, 자는 백연(伯淵), 아명(兒名)은 도간(桃簡)이다. 어려서 배우기를 좋아하여 경사백가(經史百家)를 두루 보았고 천문과 역학에 밝았다. 북위의 도무제(道武帝)· 명원제(明元帝)·태무제(太武帝) 세 조정에 벼슬하고, 관직이 사도(司徒)에 이르렀으며, 군국(軍國)의 대계(大計)에 참여하여 북위가 북방을 통일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남북조 시대의 최고 군사모략가'라 칭송하였다.

87) 유기(劉基) : 1311~1375. 중국 원말명초(元末明初) 때의 군사가·정치가 및 시인으로, 자는 백온(伯溫),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경사(經史)에 통달하고 천문에 밝으며 병법에 정통하였다. 유기는 주원장(朱元璋)을 보좌하여 제업을 완성하여 명조를 열었고, 아울러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이로 인하여 천하에 명성을 떨쳤고, 후세 사람들이 그를 제갈량(諸葛亮)에 비견하였다. 주원장이 자주 유기를 칭찬하며 '나의 자방(子房)이다.'라고 하였다.

88) 야율초재(耶律楚材) : 1190~1244. 중국 원(元)나라의 대신으로, 자는 진경(晉卿), 호는 옥천노인(玉泉老人), 법호는 담연거사(湛然居士),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거란족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한적(漢籍)을 학습하여 한문(漢文)에 정통하고, 많은 책들을 널리 읽고 천문, 지리, 율력, 술수 등에 두루 통하였다. 야율초재는 원나라 태조(太祖), 태종(太宗) 두 조정에 벼슬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개혁을 단행하고 많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저서에 《담연거사문집(湛然居士文集)》 등이 있다.

89) 상촌은 …… 말인가 : 《상촌고(象村稿)》 권45 외고 4 〈휘언 4〉에, "야율초재는 장자방과 같은 부류이다.[耶律楚材, 張子房之流也.]"라고 하였다.

90) 울분으로 …… 재촉하였다 : 야율초재가 1244년 마진후(馬眞后)의 칭제(稱帝) 때 황후가 총애하는 신하를 누차 탄핵한 일로 점차 신임을 잃고 정치에서 배제되자, 이에 울분을 억누르지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교해보면 자방과 매우 다르니, 어찌 상촌이 잘못 고찰한 것이 아니겠는가.

子房之心大矣, 未嘗衒才揚智, 使人窺際, 故邵子曰: 善藏其用. 古來論子房者, 未得其要, 凡有術數伎倆, 曉天文地理三奇六韜之屬者, 皆以爲子房復出, 自矜與人稱, 莫不皆然. 如崔浩, 自謂智如子房, 而稽古過之, 其言甚駭. 劉基之測微露奇, 亦崔浩者流, 都是淺局. 子房胸中, 足包此輩幾萬箇. 至於耶律楚材, 亦只是足智多藝之人, 象村何所見而比諸子房乎? 余嘗略考其事蹟, 則慷慨善諫諍, 非無可取, 而終至憤恚促死. 較其方圓宏窄, 殊異乎子房, 豈象村之失契勘耶?

20. 육지(陸贄)

육선공(陸宣公)[91]의 경세제민(經世濟民)하는 재주는 정자와 주자도 논하여 제갈공명(諸葛孔明)과 나란히 일컬어 천고에 필적할 만한 자가 없다[92]고 하였다. 나는 일찍이 《독사관견(讀史管見)》에서 육선공을 크게 칭송하면서 위현성(魏玄成; 魏徵)에 뒤지지 않는다고 한 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위현성은 진실로 과실을 바로잡으면서도 행여 임금에게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하였으니, 충성스러우며 강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문은 연원(淵源)이 있고 계책은 주도면밀하여 어리석고 괴팍하며 의심이 많은 임금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하고, 그 말은 묘리(妙理)를 밝히고 사정(事情)에 절실해서 천하를 아우를 수 있어 왕좌(王佐)에 부끄럽지 않은 면모로 볼 때, 육선공을 위현성에 비교한다면 어찌 그

못하다가 죽고 말았다. 《元史 卷146 耶律楚材列傳》

91) 육선공(陸宣公) : 중국 당(唐)나라의 문신 육지(陸贄 754~805)를 이른다. 육지의 자는 경여(敬輿), 시호는 선(宣)이다. 대력(大曆) 8년(773)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덕종(德宗)이 즉위하자 육지를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삼았다. 정원(貞元) 8년(792)에 재상에 임명되었는데, 2년 뒤에 호부시랑(戶部侍郞) 배연령(裵延齡)에게 탄핵되어 파직되었다. 이듬해에 충주(忠州) 별가(別駕)로 좌천되었다가 영정(永貞) 원년(805)에 임소에서 졸하였다. 그가 지은 주의(奏議)는 대우(對偶)를 많이 쓰고 조리가 정밀하며 문장이 유창하여 후세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서에 《한원집(翰苑集)》 등이 있다.

92) 정자와 …… 없다 : 《이정유서(二程遺書)》 권22 하(下) 〈부잡록후(附雜錄後)〉에, 당체(唐棣)가 정이(程頤)에게 동중서(董仲舒)가 왕좌(王佐)의 자질이 있는지를 묻자, 정이가 "동중서는 그의 학술을 말해야 한다. 왕좌의 자질로 논한다면 반드시 이윤(伊尹)과 주공(周公)과 같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장량·제갈량·육선공과 같은 이가 없다.[仲舒是言其學術. 若論至王佐才, 須是伊周, 其次莫如張良·諸葛亮·陸宣公.]"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자어류》 권136 〈역대(歷代) 3〉을 살펴보면, 주희가 육선공을 제갈공명에 견주어 말하고, 육선공의 주의(奏議) 및 경세제민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사이에 몇 사람만 용납할 뿐이겠는가. 《독사관견》이 이미 허탄한 설인데 상촌(象村)은 그 설을 그대로 답습하고 또 '명백정대(明白正大)'라는 말로 일컬었다.[93] 이 네 글자는 진실로 좋은 제목(題目)이지만 이러한 말로 육선공의 평가를 끝낸다면 천박한 것이다.

陸宣公經濟之才, 程·朱尙論, 與孔明並稱, 以爲千古無可參者. 嘗怪《管見》亟稱宣公, 謂不下於魏玄成. 玄成固能繩愆糾繆, 恐君之有遺失則忠且直矣. 若其學有淵源, 筭無遺策, 能使昏愎多疑之主, 不得不從吾之言, 而其言之晰理妙而切事情, 足可範圍天下, 無愧王佐, 比諸玄成, 豈特容數人於其間哉? 管見旣失之浮泛, 而象村仍襲其說, 又以明白正大稱之, 四字固好題目, 而以此了宣公則淺矣.

21. 위상(魏相)

내가 일찍이 생각건대, 위상(魏相)[94]의 공업(功業)은 동한(東漢)과 서한(西漢)에 있어서 비견할 자가 드물다고 여겼다. 홍수, 가뭄 및 재이(災異)에 대해 자주 말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감히 방심하지 못하고 경계심을 품게 하였고, 또 호(胡)를 치는 일에 대해 극력 간하여 변경 지역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호를 귀순시키는 효과를 거두도록[95] 하였다. 이 두 가지 일만 들어 보아도 위상의 공업은 성대하다 하겠다. 곽산(霍山)과 곽운(霍雲)의 변고[96]에 이르러서도 역적을 토벌하는 것을 도왔으니 또한 하나의 공업이다. 그런데 상촌은 그 사람됨을 좋게 보지 않고 마침내 외척(外戚)을 이용하여 사람을 모해한 일로 죄를 삼았다.[97] 무릇 허광한(許廣漢)을 통하여 일을 아뢴 것은 혹여 경로가 바르지 않음을 나무

---

93) 상촌(象村)은 …… 일컬었다 : 《상촌고》 권45 외고 4 〈휘언(彙言) 4〉에, "육선공은 명백하고 정대하였다. 육선공이 가령 정관(貞觀 당 태종의 연호) 시대를 만나 활약했다 하더라도 어찌 위현성에게 뒤떨어졌겠는가.[陸宣公, 明白正大. 使遇貞觀, 何下於魏玄成]"라고 하였다.

94) 위상(魏相) : ?~기원전 59. 중국 서한(西漢)의 저명한 대신으로, 자는 약옹(弱翁), 시호는 헌(憲)이다. 관직은 승상에 이르고 고평후(高平侯)에 봉해 졌다. 선제(宣帝)가 즉위한 뒤에 위상을 불러 대사농(大司農)으로 삼았다가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승진시켰다. 위상이 선제에게 건의하여 곽광(霍光)의 아들인 곽우(霍禹), 조카인 곽운(霍雲)·곽산(霍山)의 권력을 약화시키게 하였다. 또 선제에게 경솔히 출병하여 흉노를 치는 것에 대해 간언함으로써 무력을 쓰지 않고도 흉노(匈奴)를 귀순시켜 변방을 안정시켰다.

95) 홍수 …… 거두도록 : 이는 《한서(漢書)》 권74 〈위상열전(魏相列傳)〉에 자세히 보인다.

96) 곽산(霍山)과 곽운(霍雲)의 변고 : 곽산과 곽운은 형제로서 곽광(霍光)의 조카이다. 곽광이 죽은 뒤에 선제(宣帝)가 위상의 간언에 따라 곽씨 일가의 권력을 약화시켰는데, 이에 곽산, 곽운 및 곽씨 일가가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끝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곽산과 곽운은 자살하고 곽씨 일가는 참변을 당한 일을 가리킨다. 《漢書 卷68 霍光列傳》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랄 수도 있겠지만, 곽씨(霍氏)가 반역을 도모한 것으로 말하면 매우 확실하였으니, 위상이 곽씨를 제거할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억울할 것이다. 포상할 만한 일은 있고 죄줄 만한 일은 없으니, 위상을 한나라 조정의 명재상으로 삼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余嘗謂魏相事業, 在東西漢, 罕有其比. 數言水旱災異, 使人主不敢弛心戒愼, 而又力諫伐胡, 使無開邊釁, 以收賓服之效, 擧此二段, 相業隆矣. 至於霍氏山雲之變, 贊行誅討, 亦一事業. 象村旣短其人, 乃以因外戚而謀戕人爲罪. 夫因廣漢而奏事, 或可咎蹊徑不正, 而若霍氏之謀逆, 不啻的實, 謂魏相有心於翦霍則寃矣. 有可褒而無可罪, 以魏相爲漢朝名相, 不亦可乎? 在東西漢, 罕有其比. 數言水旱災異, 使人主不敢弛心戒愼, 而又力諫伐胡, 使無開邊釁, 以收賓服之效, 擧此二段, 相業隆矣. 至於霍氏山雲之變, 贊行誅計, 亦一事業. 象村旣短其人, 乃以因外戚而謀戕人爲罪. 夫因廣漢而奏事, 或可咎蹊徑不正, 而若霍氏之謀逆, 不啻的實, 謂魏相有心於翦霍則寃矣. 有可褒而無可罪, 以魏相爲漢朝名相, 不亦可乎?

22. 조충국(趙充國)

조충국(趙充國)[98]은 훌륭한 장수일 뿐만 아니라 그의 도량과 식견을 보면 재상 그릇이 될 만한데, 거사(車師)의 소란으로 인하여 정길(鄭吉)과 함께 흉노(匈奴)의 우측 지역을 치려고 하였으니,[99] 오히려 노련함이 부족하여 위상(魏相)보다 한 수가 달린다. 대개 위상은

97) 외척(外戚)을 …… 삼았다 : 외척은 선제(宣帝)의 장인인 평은후(平恩侯) 허광한(許廣漢)을 가리키는데, 위상이 허광한을 통해 선제에게 일을 아뢰어 곽씨 일가의 권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끝내 곽씨 일가를 제압할 수 있었다. 신흠(申欽)은 위상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혹평하였다. “위상이 곽씨를 제거할 마음을 품고서 허광한을 통해 일을 아뢴 것은 군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 군자라면 어찌 외척을 이용하여 사람을 모해할 수 있겠는가.[魏相有心於翦霍, 因許廣漢奏事, 非君子之心也. 安有君子, 因外戚而謀人?]” 《象村稿 卷44 外稿 3 彙言 3》

98) 조충국(趙充國) : 기원전 137~기원전 52. 중국 서한 때의 저명한 장군으로 자는 옹손(翁孫), 시호는 장(壯)이다.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고 모략이 있었다. 무제(武帝) 때로부터 선제(宣帝)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흉노를 정벌하여 변방을 안정시켰다. 소제(昭帝)가 죽었을 때에는 곽광(霍光)과 더불어 선제를 영접하여 세워 영평후(營平侯)에 봉해 졌다. 선제 신작(神爵) 1년(기원전 61)에 선령강(先零羌)이 반란을 일으키자 76세의 나이로 군대를 거느리고 강(羌)을 격파하였다.

99) 거사(車師)의 …… 하였으니 : 거사(車師)는 지명으로 옛날 서역(西域) 지역이고, 정길(鄭吉 ?~기원전 86)은 서한 때의 장수로 서역 지역을 정벌하는 데 공을 많이 세웠다. 원강(元康) 연간 중에 흉노가 한나라 둔전(屯田)이 있는 거사 지역을 치자, 선제(宣帝)가 조충국과 의논하여 흉노의 우측 지역을 쳐서 흉노로 하여금 다시는 서역 지역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국사를 도모하는 데 잘하였고 조충국의 식견은 지극하지 못하였으니, 선제(宣帝)가 위상의 건의를 따라 정길을 귀환시키고 흉노와 우호를 유지한 것이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는가. 송 신종(宋神宗)은 부필(富弼)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100] 왕소(王韶)·서호(徐浩) 무리의 계책을 써서[101] 끝내 국력이 약해져 국운을 재촉하게 되었다. 위상은 진실로 어질거니와, 위상의 말을 쓴 자가 대단한 것이다.

趙充國非但良將, 觀其度量識慮, 足爲宰相器, 而其因車師之擾, 而欲與鄭吉擊匈奴右地, 則猶欠老實, 輸魏相一著. 蓋魏相善於謀國, 而充國見未到, 何幸宣帝從魏相而還鄭吉, 與匈奴保和. 宋神宗之不從富弼而用王韶·徐浩輩, 終致國弱而命促, 魏相固賢, 用魏相者高矣.

23. 유주(維州)의 일과 관련한 우승유(牛僧孺)와 이덕유(李德裕)의 시비 논쟁

당나라 유주(維州)의 일[102]에 대해 우승유(牛僧孺)와 이덕유(李德裕)가 논쟁한 것은 바로 천고의 큰 시비이니, 사책을 보는 자는 소상하게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대개 유주는

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상(魏相)이 글을 올려 흉노를 치는 것은 오히려 후환만 남길 뿐이므로 우호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간하니, 선제가 위상을 말을 따르고 출병을 중지하였다. 《漢書 卷74 魏相列傳》

100) 부필(富弼)의 …… 않고 : 이는 희녕(熙寧) 1년(1068)에 신종이 부필에게 변경의 일에 대해 묻자, 부필이 "20년 동안까지는 군대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願二十年, 口不言兵.]"라고 대답하였지만, 신종이 부필의 간언을 따르지 않은 일을 가리킨다. 부필(1004~1083)은 중국 북송(北宋) 때의 재상으로 자는 언국(彦國),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宋史 卷313 富弼列傳》

101) 왕소(王韶) …… 써서 : 이는 희녕 1년에 왕소가 평융책(平戎策)을 올려 하(河)· 황(湟) 등의 지역을 수복하고 연변(沿邊)의 강족(羌族)을 귀속시켜 서융(西戎)을 고립시키자고 하였는데, 신종이 가납한 일을 가리킨다. 왕소(1030~1081)는 중국 북송 때의 명장(名將)으로 자는 자순(子純), 호는 양민(襄敏)이다. 서호는 《송사(宋史)》에서 상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김창흡이 잘못 인용한 인물이 아닐까 의심된다. 《宋史 卷328 王韶列傳》

102) 유주(維州)의 일 : 당 문종(唐文宗) 태화(太和) 5년(832) 9월에 토번(吐藩)의 유주 부사(維州副使) 실달모(悉怛謀)가 항복을 청하고 그 무리들을 다 이끌고 오자, 이덕유(李德裕)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토번을 제압할 거점으로 삼고자 군대를 보내 유주성(維州城)을 함락한 다음 조정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조정에서 이 일에 대해 회의하여 모두 이덕유의 계책을 찬성하였지만 유독 우승유(牛僧孺)만은 현재 토번과 우호를 맺고 있으므로 먼저 신의를 저버릴 수 없고 유주를 차지하더라도 이득이 별로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에 문종이 우승유의 의견을 옳게 여겨 이덕유에게 유주성과 실달모 무리를 모두 토번에게 돌려주게 하니, 토번이 국경에서 실달모 무리를 참혹하게 죽였다. 《資治通鑑 卷244 唐紀60》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본디 당나라 땅인데 토번(吐藩)에게 빼앗긴 곳이다. 실달모(悉怛謀)가 항복할 때 유주를 가지고 귀순하였으니 당나라가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온공(溫公; 司馬光)은 마치 이웃의 소를 탈취한 것과 같다 하여 그릇된 짓[103]이라고 하여 이로써 우승유를 두둔하고 이덕유를 비난하였다. 만약 소를 땅에 비유한다면, 소에게는 본 주인이 있다. 소를 잃었다가 남이 다시 소를 돌려준다면 의리상 마땅히 받아야 하니, 탈취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비유를 취한 것이 이미 그르고, 또 우승유가 원한을 갚고자 계책을 훼방한 것이 전적으로 사의(私意)에서 나왔음을 살피지 못하였으니, 호씨(胡氏; 胡安國)가 사마광의 논평을 논박한 것[104]은 참으로 정확한 의론이다. 소자유(蘇子由; 蘇轍)가 우승유와 이덕유의 대체(大體)를 논하면서 덕량(德量)으로 우승유를 인정하고 유주의 일도 이덕유를 옳게 여기지 않았으니,[105] 끝내 명쾌하지 못하다. 주자의 말로 질정하면, “이덕유의 말은 이해(利害) 여부를 가지고 말한 것이지만 뜻은 오로지 나라를 위하는 데 있었고, 우승유의 말은 의리를 가지고 말한 것이지만 뜻은 오로지 자신의 사사로움을 이루기 위하는[106] 데 있었다.”라고 하였다. 대의는 호씨와 부합하니 다시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唐維州事, 牛·李所爭, 乃千古大是非, 看史者不可不著眼消詳. 蓋維州本係唐地, 而爲吐蕃所奪者也. 悉怛之降, 持以歸唐, 唐之受之也則宜. 溫公以掩取隣牛爲非, 以是右牛而左李. 若以牛比地, 則牛有本主, 失而復還, 於義當受, 未可謂掩取也. 其取喩旣謬, 又不察僧孺修隙敗謀, 全出於私意, 胡氏之駁之也, 誠爲確論. 蘇子由論牛·李大體, 以德量許僧孺, 而維州事, 亦不以德裕爲是, 終欠明快. 質以朱子之言, 則曰:

---

103) 온공(溫公)은 …… 그릇된 짓 : 사마광(司馬光)은, 이덕유의 말은 이익으로써 말한 것이고 우승유의 말은 의리로써 말한 것이라고 하며 이덕유가 유주를 차지하려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웃집 소가 우연히 나의 집에 들어와 내가 돌려주지 않고 차지한 짓과 다름이 없는 짓이니, 이덕유가 그릇된다고 논평하였다. 《資治通鑑 卷247 唐紀63》

104) 호씨(胡氏)가 …… 논박한 것 : 호안국(胡安國)은, 유주는 원래 당나라의 땅이니 취한다 해도 신의에 문제될 것이 없고, 유주를 토번에 돌려주어 조종(祖宗)의 영토를 버리고 실달모를 묶어 보내 귀순하려는 마음을 막았으니 우승유는 작은 신의로 대계를 망친 자이고 유주에 군대를 보내 점거하게 하여 수십 년의 수치를 씻고 실달모를 뒤미처 표창하여 관질(官秩)을 추증하게 하였으니 이덕유는 대의로써 국사를 도모한 자라고 논평하며, 이덕유가 옳다고 하였다.《資治通鑑綱目 卷50》

105) 소자유(蘇子由)가 …… 않았으니 : 소철(蘇轍)은 우승유는 덕량이 뛰어나고 이덕유는 재기가 승(勝)한 사람이라 하였으며, 토번은 본디 변경의 우환거리가 되지 않으니 우승유의 주장은 사의(私意)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덕유가 옳지 않다고 보았다. 《欒城後集 卷11 歷代論5 牛李》

106) 이덕유의 …… 있었다 : 《주자어류》 권136 <역대(歷代) 3>에 보인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德裕所言, 雖以利害言, 然意却全在爲國, 僧孺所言雖義, 然意却全濟其己私." 大旨與胡氏合, 更不容別議矣.

24. 소작(蘇綽)

조용조(租庸調)와 부병제(府兵制)의 법은 세상 사람들이 천고에 훌륭한 제도라고 일컫고 있다. 이것이 당 태종(唐太宗)의 독견(獨見)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나 실은 소작(蘇綽)[107]이 처음 만들어낸 것인데 당나라가 답습하여 쓴 것이다.[108] 정심(正心)과 성의(誠意)의 설을 이미 정자와 주자 이전에 마련해 내었고,[109] 또 유례없는 군정(軍政)과 세법(稅法)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어 대당(大唐)이 조술(祖述)하였으니, 그 사람이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

租·庸·調·府兵之法, 世稱千古良制. 謂出於太宗獨見, 而實則蘇綽創出, 而唐乃因之也. 正心誠意之說, 旣能辨出於程·朱之前, 而又創無前之軍政稅法, 爲大唐所祖述, 其人豈不偉哉?

---

107) 소작(蘇綽) : 498~546. 중국 남북조 시기 서위(西魏)의 대신으로 자는 영작(令綽)이다. 소작은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여 여러 책을 두루 보았고 특히 산술(算術)에 밝았다. 우문태(宇文泰)의 신임을 깊이 얻어 우문태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도왔다. 계장(計帳), 호적 등의 법을 처음 만들고 쓸데없는 관원을 줄이고 둔전(屯田)·향관(鄕官)을 설치하여 국가의 부세 수입을 증가시켰다. 대통(大統) 15년(545)에 소작이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치심신(治心身), 돈교화(敦教化), 진지리(盡地利), 탁현량(擢賢良), 휼옥송(恤獄訟), 균역법(均賦役)으로 조목을 삼은 〈육조조서(六條詔書)〉를 초안하였다. 뒤에 또 《대고(大誥)》를 지어 육조 이후의 부화한 문풍을 통렬히 배척하고 본보기 글[範文]을 제시하였다. 만년에 명을 받들어 《주례(周禮)》에 의거하여 관제를 개정하였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졸하였다. 《北史 卷63 蕝綽列傳》

108) 처음 …… 쓴 것 : 《주자어류》 권136 <역대 3>에, "북주(北周)의 우문태와 소작은 복고(復古)에 뜻을 두어 관제가 자못 상제하다. 예컨대 조용조 및 부병제 따위는 모두 소작이 창제한 것인데 당나라가 마침내 그대로 따라 쓴 것이다.[北周宇文泰及蘇綽有意復古, 官制頗詳盡. 如租·庸·調·府兵之類, 皆是蘇綽之制, 唐遂因之.]"라고 하였다.

109) 정심(正心)과 …… 내었고 : 이는 소작이 지은 〈육조조서(六條詔書)〉의 '치심신(治心身)' 조목 중에 '수심(修心)' 부분을 두고 이른 듯하다. 소작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요체는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닦는 데 있다고 전제하면서 마음을 닦는 방법, 순서, 효과 등에 자세히 진술하였다.[凡理人之體, 當先理己心. 心者, 一身之主, 百行之本. 心不清靜, 則思慮妄生, 思慮妄生, 則見理不明, 見理不明, 則是非謬亂, 是非旣亂, 則一身不能自理, 安能理人也? 是以理人之要, 在於清心而已. 夫所謂清心者, 非不貪貨財之謂, 乃欲使心氣清和, 志意端靜. 心和志靜, 則邪僻之慮, 無因而作, 邪僻不作, 則凡所思念, 無不皆得至公之理. 率至公之理, 以臨其人, 則彼下人, 孰不從化? 是以稱理人之本, 先在理心.] 《北史 卷63 蕝綽列傳》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25. 송나라는 번진(藩鎭)이 없어 망하였다

당나라 말기에 번진(藩鎭)의 폐단을 천하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여겨 아녀자조차도 모두 혁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송 태조(宋太祖; 趙匡胤)가 기회를 이용하여 변통한 것은 기묘한 책략이 되지 못하고, 또 마치 몸이 팔을 부리는 것처럼[110]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고 울타리가 없으면 범이 들어오는 우환을 근심하지 않아 끝내 이적(夷狄)이 난입하는데도 주군(州郡)에 지탱할 만한 군대와 군량이 없음을 초래하였다. 남송(南宋)의 국운이 거의 끊어지려고 할 때에 이르러 문천상(文天祥)이 번진을 설치하기를 청하였으니,[111]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다. 이로써 태조가 엉성하게 나라를 도모하였음을 볼 수 있으니, 사책을 보는 자는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唐末藩鎭之弊, 天下苦之, 雖婦孺, 皆言可革. 宋太祖因機變通, 未足爲奇略, 且取快於如手使臂之利, 而不憂其藩缺虎入之患, 終致夷狄闌入, 州郡無兵糧可支吾. 至於南渡垂絶之際, 文天祥請置藩鎭, 嗚呼! 其晩矣! 卽此而便見太祖謀國之疎, 看史者不可不察.

26. 범중엄(范仲淹)과 부필(富弼)의 규모

회남(淮南)의 도적 왕륜(王倫)[112]이 고우(高郵) 지역을 격파할 때 군수 조중약(晁仲約)이

---

110) 마치 …… 것처럼 : 【校】 원문은 '如手使臂'인데, 다수의 용례에 의거하여 '手'를 '身'으로 교감하여 번역하였다.

111) 문천상(文天祥)이 …… 청하였으니 : 덕우(德祐) 1년(1275)에 문천상이 상소하여, 건국 초기에 번진을 없애고 군읍(郡邑)을 세운 것은 일시적으로 번진의 세력이 커지는 폐단을 바로잡기는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국력도 점점 쇠약해졌으니 천하를 넷으로 나누어 네 개의 번진을 다시 설치하기를 청하였으나, 당시 의론이 문천상의 의견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하여 상소가 보고되지 않았다. 《宋史 卷418 文天祥列傳》

112) 왕륜(王倫) : ?~1043. 중국 북송 인종(仁宗) 때 의군(義軍)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킨 사람이다. 인종 경력(慶曆) 3년(1043)에 기주(沂州)에서 사병(士兵) 백여 인을 이끌고 순검사(巡檢使) 주진(朱進)을 살해하고 북상(北上)하여 밀주(密州)와 청주(青州)를 공격한 다음, 남하(南下)하여 초주(楚州), 진주(眞州), 양주(揚州), 태주(泰州) 및 고우군(高郵軍)을 격파하고 곧바로 화주(和州)까지 이르렀다. 복식(服飾)을 고치고 황의(黃衣)를 입으며 연호를 세우고 관직을 설치하였으며, 의군의 얼굴에 '천강성첩지휘(天降聖捷指揮)' 6자를 새겼다. 7월에 관군(官軍)과 양주 산광사(山光寺) 남쪽에서 싸우다가 불리하여 화주로 후퇴하였고, 화주에서 싸우다가 죽었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고을에 군대와 군수품이 없다 하여 성문을 열고 적군에게 음식물을 주고 지나가게 하였다. 부정공(富鄭公; 富弼)이 노하여 조중약을 주벌하려고 하였는데, 범문정(范文正; 范仲淹)이 간쟁하기를, “주군에 군대와 군수품이 없으니 어떻게 적군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수신(守臣)이 임기응변하여 한 성의 백성들을 보전한 것은 또한 옳은 일인데, 어찌 도리어 죄를 준단 말입니까.”[113]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범문정과 부정공의 규모가 현격하게 다름을 볼 수 있다.

淮南盜王倫破高郵, 郡守晁仲約以郡無兵財, 開門犒之, 使去. 富鄭公怒欲誅之, 范文正爭之, 曰: “州郡無兵財, 將何捍拒? 守臣能權宜應變, 以全一城之生靈, 亦可矣. 豈可反以爲罪耶?” 此可見范·富規模大相懸絶處.

27. 봉건제와 역대 왕조 흥망의 관계

주(周)나라는 봉해 준 제후국이 많아서 말운이 좋지 못하였으니, 진(秦)나라는 마침내 봉건제(封建制)를 군현제(郡縣制)로 바꿨지만 이세(二世) 때에 망하였다. 한(漢)나라가 흥기하여 종실(宗室)을 크게 봉함으로써 칠국(七國)의 난[114]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무제(武帝)가 주보언(主父偃)의 계책[115]을 써서 분봉(分封)함으로써 그 세력을 약화시켰는데, 왕망(王莽)이 이러한 틈을 타서 권력을 독점하여 더 이상 꺼릴 것이 없게 되자 마침내 왕위를 찬탈할 계책을 부렸다. 동한(東漢)은 자사(刺史)의 권세가 거의 옛날의 제후처럼 막강하여 끝내 동탁(董卓)의 난을 초래하였다. 위(衛)나라는 비록 여러 왕을 봉하였지만 세력이 미약하여 보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권신(權臣) 사마씨(司馬氏)가 권세를 잡아 드디어 왕조를

113) 부정공(富鄭公)이 …… 말입니까 : 이 일은 《주자어류》 권108 〈논치도(論治道)〉에 보인다. [淮南盜王倫破高郵, 郡守晁仲約以郡無兵財, 遂開門犒之使去. 富鄭公聞之大怒, 欲誅守臣, 曰: “豈有任千里之寄, 不能拒賊, 而反賂之!” 范文正公爭之曰: “州郡無兵無財, 俾之將何捍拒? 今守臣能權宜應變, 以全一城之生靈, 亦可矣. 豈可反以爲罪耶?”]

114) 칠국(七國)의 난 : ‘오초칠국(吳楚七國)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오(吳)를 비롯한 여섯 제후왕이 조정의 억압 정책에 반대하여 일으킨 반란이다. 한 경제(漢景帝) 3년(기원전 154)에 제후국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조조(鼂錯)의 건의에 따라 오왕(吳王) 유비(劉濞)의 봉지(封地)를 줄이려고 하자, 오왕이 초(楚)·조(趙)·교서(膠西)·교동(膠東)·치천(菑川)·제남(濟南) 6국의 제후왕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주아부(周亞夫)와 대장군 두영(竇嬰)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평정되었다.

115) 주보언(主父偃)의 계책 : 이는 주보언(?~기원전 126)이 한 무제 원광(元光) 연간에 글을 올려, 제후왕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은(推恩)’한다는 명분으로 제후로 하여금 그 자제에게 분봉(分封)하여 후(侯)로 삼게 하라고 주장한 것을 이른다. 《史記 卷112 主父偃列傳》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바꿨다. 진(晉)나라는 그 병폐를 징계하여 여러 왕으로 하여금 큰 번진(藩鎭)을 맡고 강한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다가 서로 도륙하여 점차로 대란을 초래하였다. 형세로 말하면 융적(戎狄)을 막을 수 있었지만 끝내 못한 것은 왕실간의 싸움 때문이었다. 육조(六朝)는 제대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었으니 논할 것이 없다. 당나라에 이르러 번진을 대규모로 설치하니 형세가 봉건제와 같았지만 끝내 번진의 세력이 강대하여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우환을 초래하였고 변란으로 인한 참혹한 상황이 오대(五代)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송 태조(宋太祖)는 이를 징계하여 번진을 철폐함으로써 근간을 강하게 하고 지엽을 약하게 하려고 하였으니, 이적(夷狄)이 난입하는데도 막지 못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고금에 봉건제를 인습하거나 개혁하여 중앙과 지방 중에 어느 쪽을 무겁게 할지 가볍게 할지를 결정할 때 모두 뒷시대의 사람이 앞 시대의 과오를 징계하여 스스로 훌륭한 계책을 얻었다고 여겼지만, 결국 조금이라도 편중되면 그때마다 병폐가 생겨났다. 이는 이치와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니 진실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계책이 훌륭한지의 여부는 오히려 뒤미처 논할 수 있다. 주나라가 800년 동안 유지되고 진나라가 이세에 망한 것은 봉건제와 군현제를 가지고 그 득실을 판단할 수 없고, 한 고조(漢高祖)는 제후를 크게 봉한 데 잘못되었으며, 무제는 봉지(封地)를 너무 줄인 데 잘못되었으며, 위나라는 지나치게 줄인 부류이며, 진나라도 크게 봉하여 난을 초래하였다. 동한과 당나라는 강력한 번진으로 인한 병폐가 대략 비슷한데, 번진의 제한된 형세로 말하면 외적도 막고 중앙도 통제할 수 있었지만 병권이 너무 막강하여 임금이 약해지고 신하가 강해진 데 잘못되었다. 송 태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고 번진의 권한을 모두 거두고 군현제로 바꾸었는데, 너무 심하게 축소시켜 외적을 막을 만한 군대와 식량을 없게 하였으니, 너무도 잘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상황에 알맞게 변통하여 이로움을 극대화시키는 자에게 크게 부끄럽다고 하겠다.

周以樹國之多, 末運不振, 則秦乃改封建爲郡縣, 亡於二世. 漢興, 大封宗室, 以致七國之亂. 故武帝用主父偃之策, 分封以削其勢, 王莽乘此專權, 不復顧忌, 遂售簒弒之謀. 東京, 刺史權重, 殆如古之諸侯, 而終致董卓之亂. 魏則雖封諸王, 而勢弱力微, 至不能存活, 則權臣秉柄, 遂移其祚. 晉懲其弊, 使諸王典大藩, 捴强兵, 而相屠相戮, 馴致大亂. 以形勢言之, 足可禦戎, 而終不能焉者, 以閫墻故也. 六朝瓜分, 無可論矣. 至唐大設藩鎭, 勢同封建, 而終致尾大不掉之患, 壞亂慘黷, 至五代而極. 宋祖懲之, 撤去藩籬, 爲强幹弱枝之圖, 則夷狄亂入, 無以扞禦.

由此觀之, 古今因革, 內外輕重之際, 莫不由後懲前, 自謂得筭之多, 而畢竟乍有偏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重, 隨手弊生. 理勢使然, 固無奈何. 然人謀臧否, 猶有可追論者. 周之八百, 秦之二世, 非可以封建郡縣, 判其得失, 而漢祖則失之大封, 武帝則過於太削, 魏乃過削之流, 晉亦大封而致亂, 東京與唐, 强藩之弊, 大略相似. 言其形格勢禁, 可以扞外制內, 而過在兵權太重, 君弱臣强. 宋祖有見於此, 盡收方鎭之權, 轉爲郡縣, 而刮刷太甚, 至使無兵糧可禦敵, 則其全欠斟酌, 而有媿於變通盡利者大矣.

28. 정통론(正統論)

예로부터예로부터 정통(正統)을 논한 것은 매우 복잡다단하여 지금까지도 하나로 귀결되지 못하였는데, 주자의 말로 절충하면 정하지 못한 것을 확정할 수 있다. 《주자어류》에, 혹자가 묻기를, "삼대(三代) 이하로 한나라와 당나라와 같은 경우는 또한 정통에 순정하지 못하니 변(變) 가운데의 정(正)이고, 진(秦)나라, 서진(西晉), 수(隋)나라와 같은 경우는 통일하였지만 바르지 못하였으며, 촉(蜀)나라와 동진(東晋)의 경우에는 바르지만 통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어찌 꼭 이와 같이 논하겠는가. 단지 천하를 통일하여 제후들이 조회하러 오고 송사(訟事)하기 위해 모두 오기만 하면 곧 정통을 얻은 것이다."[116] 하였다. 이는 주자가 평소 말한 것이고, 《자치통감강목》의 범례(凡例)로 참고해 보면 또한 이 뜻을 써서 진(秦)나라·진(晉)나라·수나라 등과 같이 천하를 통일한 여러 나라는 모두 정통으로 인정하였다.[117] 이것을 의거하여 논하면, 이른바 '정통(正統)'의 '정(正)'은 '사정(邪正)'의 '정'이 아니라 바로 '편정(偏正)'의 정(正)이니, 영토가 넓은지 좁은지를 가지고 말한 것일 뿐이다. 만약 선악(善惡)의 실제인 '사(邪)'나 '정(正)'을 가지고 따진다면 진(秦)나라·진(晉)나라·수나라의 부류가 어찌 그 사이에 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선과 악,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을 막론하고 단지 천하를 통일한 나라가 곧 정통이 되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방손지(方遜志; 方孝孺)와 구경산(丘瓊山; 丘濬)이 원(元)나라는 정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론을 처음으로 냈는데, 이적을 배척하는 의리에 있어서 강개(慷慨)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자어류》의 뜻과 《자치통감강목》의 범례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만약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이적과 중화의 구분만 엄격히 한다고 한다면 또한 옳지 않은 듯하다. 이적을 미워하는 것은 선한 행실이 없기 때문이다. 간혹 어질고 의로운 임금이 있는데 호

116) 혹자가 …… 것이다 : 이는 《주자어류》 권105 〈논자주서(論自注書) 통감강목(通鑑綱目)〉에 보인다.

117) 《자치통감강목》의 …… 인정하였다 : 《주자전서(朱子全書) 자치통감강목4》 부록1 〈범례(凡例)〉에 "무릇 정통은 주(周)나라, 진(秦)나라, 한(漢)나라, 진(晉)나라, 수(隋)나라, 당(唐)나라를 이른다.[凡正統, 謂周秦漢晉隋唐.]"라고 하였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해(胡亥; 秦二世)·양광(楊廣; 隋明帝)과 똑같이 정통의 이름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공정한 의론일지 모르겠다. 또 한 가지 설이 있다. 주자가 일찍이 왕통(王通 584~617)이 극력으로 송(宋; 劉宋)나라를 두둔하고 위(魏; 北魏)나라를 깎아 내린 것으로 기롱을 초래한다고 하였다.[118] 무릇 송나라는 중화이고 위나라는 북적(北狄)이지만 오히려 한쪽은 남조(南朝)이고 다른 한쪽은 북조(北朝)일 뿐이라서 정통을 인정하거나 박탈하기에 부족하다. 여기에서 이적과 중화, 선과 악에 대해 똑같이 보고 구분하지 않은 뜻을 볼 수 있다.

自古論正統者, 紛然淆亂, 至今未歸一, 而折之以朱子之說, 則可定其未定矣. 《語類》中, 或問: "自三代以下, 如漢唐, 亦未純乎正統, 乃變中之正者, 如秦西晉隋, 則統而不正者, 如蜀東晉, 則正而不統者." 答曰: "何必恁地論? 只天下爲一, 諸侯朝覲, 獄訟皆歸, 便是得正統." 此是雅言, 而參以《綱目》凡例, 亦用此意, 如秦晉隋諸國, 凡混一區宇者, 皆與之正統. 据此論之, 則所謂正統之正, 非邪正之正, 卽偏正之正, 以區域闊狹而言耳. 如以善惡之實曰邪曰正勘之, 則秦晉隋之類, 安得齒於其間乎? 然則無善無惡, 無華無夷, 只天下爲一者, 便是正統, 無容異議. 方遜志, 丘瓊山創爲元不可與正統之論, 其於攘夷之義, 非不慷慨, 而得無乖於《語類》旨意與《綱目》凡例乎? 若曰不擇善惡而獨嚴夷夏之分, 則亦恐未然. 所惡乎夷者, 以其無善狀也. 間有賢君義辟, 不得與胡亥·楊廣同得正統之名, 吾未知其爲公也. 抑有一說, 朱子嘗以王通攘臂於宋魏扶抑之際, 有所致譏. 夫宋是中華, 魏是北狄, 而猶曰一南一北, 不足與奪. 此可見夷夏善惡, 一視無揀之意矣.

29. 주자가 촉(蜀)나라를 정통으로 삼은 까닭

혹자는 주자가, 온공(溫公)이 위(魏)나라를 천자의 나라로 여긴 것을 따르지 않고 촉(蜀)나라를 정통으로 삼은 것은 악(惡)을 억제하고 선(善)을 진작하려는 데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뜻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주객(主客) 관계로 논해야 한다. 촉나라는 대한(大漢)의 적통(嫡統)이고 오(吳)나라와 위나라는 포악하고 교활한 신하가 세운 나라이니, 한때 삼국으로 병립하였다 하여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 장무(章武)를 가지고 건안(建安)의

118) 왕통(王通)이 …… 당하였다 : 이는 《주희집》 권67 〈왕씨속경설(王氏續經說)〉에 보인다. "至於宋魏以來, 一南一北, 校功度德, 蓋未有以相君臣也. 則其天命人心之向背, 統緖繼承之偏正, 亦何足論? 而欲攘臂其間, 奪彼予此, 以自列於孔子之春秋哉! 蓋旣不自知其學之不足以爲周·孔, 又不知兩漢之不足以爲三王, 而徒欲以是區區者比而效之於形似影響之間, 傲然自謂足以承千聖而詔百王矣, 而不知其初不足以供兒童之一戲, 又適以是而自納於吳楚僭王之誅, 使夫後世知道之君子雖或有取於其言, 而終不能無恨於此, 是亦可悲也已."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뒤에 이은 것은[119] 단지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추는 의리일 뿐, 애당초 선을 진작하고 악을 억제하는 데 관련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或言朱子之不從溫公之帝魏而以蜀爲正統, 意在於抑惡扶善, 此未知本意也. 此處當以主客言之. 蜀乃大漢之嫡統, 吳魏卽臣僕之桀黠者, 未可以一時幷峙等視之也. 以章武承建安, 只是尊君卑臣之義, 初非關於扶善抑惡而然也.

30. 소식(蘇軾)의 정통론(正統論)

주자 이전으로 정통설(正統說)을 세운 자 중에 동파(東坡; 蘇軾)보다 명쾌하게 말한 사람은 없다. 그는 "정통이란 말은 천하를 소유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120] 임금 자리를 찬탈한 자도 당시의 바름[正]일 뿐이다."[121]라고 하고, 또 "실상으로 이름을 상하게 하지 못하지만 이름이 끝내 실상을 상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가볍고 실상이 중하다. 천하가 귀히 여기는 것을 성인(聖人)도 따라 귀히 여기니 이는 어진 사람과 불초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122]라고 하였다. 장망지(章望之)[123]가 패통(覇統)을 논한 것[124]과 구양자(歐陽

119) 장무(章武)를 …… 이은 것은 : 장무(章武 221~222)는 촉(蜀)나라 소열제(昭烈帝)의 첫 번째 연호이고, 건안(建安 196~220)은 후한(後漢)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獻帝)의 끝 번째 연호이다. 주자는 사마광과 달리 《자치통감강목》에서 세년(歲年)의 연호를 표기할 때 장무를 가지고 건안의 뒤에 이음으로써 후한의 적통을 이은 나라를 촉나라로 삼은 것이다.

120) 정통이란 …… 같으니 : 이는 소식(蘇軾)의 〈정통론 상(正統論上)〉에 보인다. "正統者, 何耶? 名耶? 實耶? 正統之說曰: '正者, 所以正天下之不正也; 統者, 所以合天下之不一也.' 不幸有天子之實, 而無其位, 有天子之名, 而無其德, 是一人者, 立於天下, 天下何正何一, 而正統之論決矣. 正統之爲言, 猶曰有天下云爾. 人之得此名, 而又得此實也, 夫何議?" 《唐宋八大家文鈔 卷127 東坡文鈔11 正統論上》 송 인종(宋仁宗) 강정(康定) 1년(1040)에 구양수(歐陽脩)가 지은 〈정통론〉을 소식이 보고 깊이 감발되어 지화(至和) 2년(1055)에 자신도 〈정통론〉을 지었다.

121) 임금 …… 뿐이다 : 이는 소식의 〈정통론 중(正統論中)〉에 보인다. "章子曰: '君子大居正, 而以不正人居之, 是正不正之相去未能相遠也.' 且章子之所謂正者, 何也? 以一身之正爲正耶? 以天下有君爲正耶? 一身之正, 是天下之私正也. 天下有君, 是天下之公正也. 吾無取乎私正也. 天下無君, 篡君出而制天下, 湯武旣沒, 吾安所取正哉? 故篡君者, 亦當時之正而已." 《唐宋八大家文鈔 卷127 東坡文鈔11 正統論中》

122) 실상으로 …… 때문이다 : 이는 소식의 〈정통론 상〉에 보인다. "天下固有無其實而得其名者, 聖人於此不得已焉, 而不以實傷名. 而名卒不能傷實, 故名輕而實重. 不以實傷名, 故天下不爭. 名輕而實重, 故天下趨於實. 天下有不肖而曰吾賢者矣, 未有賤而曰吾貴者也. 天下之爭, 自賢不肖始, 聖人憂焉, 不敢以亂貴賤, 故天下知賢之不能奪貴. 天下之貴者, 聖人莫不從而貴之, 恃有賢不肖存焉. 輕以與人貴, 而重以與人賢. 天下然後知貴之不如賢, 知賢之不能奪貴, 故不爭" 《唐宋八大家文鈔 卷127 東坡文鈔11 正統論上》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子; 歐陽脩)가 과중하게 인정한 것[125]을 논박한 데 이르러서는 더욱 치밀하였다.

다만 미진한 점이 있으니, 천하에 정통이 없음을 싫어하여 마치 구차하게 인원을 채우는 것처럼 하여 반드시 조위(曹魏)를 정통으로 뽑고는 막강하기 때문[126]이라고 하였다. 치우쳤는지 온전한지[偏全]의 여부를 논하지 않고 강한지 약한지의 여부를 비교하여 끝내 구차함을 면치 못하였고, 처음부터 이해한 것이 또 대단히 명료하지 못하였다. '정통'의 '정(正)'자를 해석하기를, "정이란 것은 천하의 바르지 못함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끝내 '편정(偏正)'의 '정'자로 해석하기 어려워 장차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정도(正道)를 준수하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大居正] 뜻으로 귀결시킨다. 이는 진실로 구양자의 설을 답습하여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이 때문에 우물쭈물하며 선입견에 사로잡혀 이 한 글자를 적합한 뜻으로 쓰지 못하였다. 그리고 '천하의 바르지 못함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임금의 자리를 찬탈한 자도 당시의 바름일 뿐이다.'라고 한 것은 그 말뜻이 어찌 모순되지 않겠는가.

구양자로 말하면, 이미 요(堯)임금· 순(舜)임금부터 한나라·당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하의 정도를 준수하였다고 하였는데, 대개 《공양전(公羊傳)》의 천하의 정도를 준수하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뜻을 쓴 것이다. 그런데 또 진(晉)나라와 수(隋)나라를 두고 천하를 통일하고 정도를 준수하였다고[127] 하였다. 그렇다면 선(善)도 정도를 준수하고 악(惡)도 정도를

---

123) 장망지(章望之) : 【校】 원문은 '章惇'인데, 장망지(章望之)가 '정통'에 관하여 논한 〈명통론(明統論)〉을 지은 저자인 것에 의거하여 '惇'을 '望之'로 교감하여 번역하였다. 장망지는 자가 표민(表民)으로, 재상 장득상(張得象)의 조카이다. 구양수 등에게 추천 받았고, 관직이 광록시승(光祿寺丞)에 이르렀다. 저서로 〈구성(救性)〉 3편, 〈명통론〉 3편, 〈예론(禮論)〉 1편 등이 있다. 《宋史 卷443 章望之列傳》

124) 패통(覇統)을 논한 것 : 장망지(章望之)가 〈명통론(明統論)〉에서 통(統)을 두 가지로 나누어 공덕(功德)으로써 천하를 얻은 자를 '정통'이라 하고 요(堯), 순(舜), 하(夏), 상(商), 주(周), 한(漢), 당(唐), 송(宋)을 여기에 해당시키며, 공덕이 아니라 막강함으로 천하를 얻은 자를 '패통'이라 하고 진(秦), 진(晉), 수(隋)를 여기에 해당시켰다.

125) 구양자(歐陽子)가 …… 인정한 것 : 이는 구양수(歐陽脩)가 〈정통론 하〉에서 진(秦), 진(晉), 수(隋)가 천하의 정도를 준수하고 천하를 통일하였으므로 정통으로 인정한 것을 이른다. 《唐宋八大家文鈔 卷40 廬陵文鈔12 正統論》

126) 조위(曹魏)를 …… 막강하기 때문 : 이는 소식이 〈정통론 중〉에서 조위는 정통의 이름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망지(章望之)의 의론을 논박하면서 조위는 천하를 통일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삼국에서 가장 막강하므로 정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이른다. "章子以爲, 魏不能一天下, 不當與之統. 夫魏雖不能一天下, 亦無有如魏之彊者, 吳雖存, 非兩立之勢, 奈何不與之統?" 《唐宋八大家文鈔 卷127 東坡文鈔11 正統論中》

127) 진(晉)나라와 …… 준수하였다고 : 이는 구양수의 〈정통론 하〉에 보인다. "夫居天下之正, 合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준수한 것이니, 나는 바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중요한 부분이 이미 잘못되어 그 이하 부분에 건건이 오류가 나서 이루 다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인데, 진(秦)나라 선세(先世)에 쌓은 공덕(功德)의 원류가 마땅히 정통을 얻어야 한다고 극언한 것은,[128] 과중하게 인정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소자(蘇子; 蘇軾)가 비록 구양수의 논의가 이름에 순정한 것이라고 일컫기는 하였지만 실상의 경우에는 함부로 포용하여 불순함을 면치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름과 실상이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구분한 소자에게 크게 부끄럽다고 하겠다.

朱子以前, 爲正統之說者, 莫如東坡之明快也. 其曰: “正統之爲言, 猶曰有天下云爾, 篡君者, 亦當時之正而已.” 又曰: “不以實傷名, 而名卒不能傷實, 故名輕而實重. 天下之貴者, 聖人從而貴之, 恃有賢不肖存焉.” 至駁章惇之覇統·歐陽子之重與處, 尤爲刺骨.

惟有未盡者, 惡天下之無統, 若將苟爲充員, 必進曹魏以爲莫强也. 偏全之不論, 而强弱是較, 終未免苟且, 而從頭理會, 又有大段未瑩. 其釋正統之正字, 曰: “正者, 所以正天下之不正云者.” 終難以偏正釋之, 將歸於春秋大居正矣. 是固因襲歐陽子之說而未能卸脫, 所以依違籠罩, 安頓此一字, 未得其所. 且正天下之不正與篡君亦當時之正, 其語意豈不矛盾哉?

若歐陽子則旣以堯舜至漢唐, 謂之居天下之正, 蓋用公羊大居正之意矣. 又以晉隋, 謂之一天下而居正, 則善亦居正, 惡亦居正, 吾不知正之所在. 頭腦旣側, 以下種種差謬, 不可爬梳, 其盛言秦世德源流, 合得正統, 則不啻重與之也. 蘇子雖稱其論純乎名者, 而實則未免包籠, 所以剖判名實之不相侵者, 大愧蘇子矣.

天下於一, 斯正統矣, 堯·舜·夏·商·周·秦·漢·唐是也. 始雖不得其正, 卒能合天下於一, 夫一天下而居正, 則是天下之君矣, 斯謂之正統可矣, 晉·隋是也” 《唐宋八大家文鈔 卷40 廬陵文鈔12 正統論下》

128) 진(秦)나라 …… 극언한 것은 : 이는 구양수의 〈정통론 하〉에서 진나라 선세인 백예(伯翳)로부터 소양왕(昭襄王)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세운 공덕을 기술한 부분을 이른다. “秦之紀曰: 其先大業, 出於顓頊之苗裔, 至孫伯翳, 佐禹治水, 有功, 唐·虞之間, 賜姓嬴氏. 及非子爲周養馬, 有功. 秦仲始爲命大夫. 而襄公與立平王, 遂受岐·豐之賜. 當是之時, 周衰固已久矣. 亂始於穆王, 而繼以厲·幽之禍, 平王東遷, 遂同列國而齊·晉大侯, 衛同姓, 擅相攻伐, 共起而弱周, 非獨秦之暴也. 秦於是時旣平犬夷, 因取周所賜岐·豐之地. 而繆公以來, 始東侵晉, 地至於河, 盡滅諸戎, 拓國千里. 其後關東諸侯, 彊僭者日益多, 周之國地日益蹙, 至無復天子之制, 特其號在爾. 秦昭襄王五十二年, 周之君臣, 稽首自歸於秦.” 《唐宋八大家文鈔 卷40 廬陵文鈔12 正統論下》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31. 한유(韓愈)

퇴지(退之; 韓愈)가 맹자(孟子)에 대해 겉 부분과 거친 부분만 보았고 속 부분과 정미한 부분은 꿰뚫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물리쳤다는 것이 모두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다. 지금 〈답맹간서(答孟簡書)〉를 읽어보면, 맹자를 칭송하면서 그 공로가 우(禹)임금의 아래에 있지 않다고[129] 한 것은 맹자가 양주와 묵적을 물리친 것을 통쾌하게 여겨서인데, 한퇴지의 〈독묵자(讀墨子〉에 이르러서는 묵적은 공자(孔子)와 도(道)가 같다고[130] 하였다. 이는 그의 설이 모순된 것으로 그의 견해가 명쾌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 양주와 묵적이 양주와 묵적이 되는 까닭은 단지 기질(氣質)이 편벽되어 의견이 이에 다르기 때문이다. 묵적은 통체(統體)의 인(仁)을 중요하게 보아 피차간의 경계가 없으니 이것을 귀히 여겨 천하를 바꾸기를 생각하였고, 양주는 분수(分殊)의 의(義)를 중요하게 보아 주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으니 이로써 스스로 고상하게 여기고 세상에 간섭하고자 하지 않았다. 맹자가 묵적을 배척하여 아비가 없는 자라고 한 것은 분수(分數)를 없애는 점을 미워해서이고, 양주를 배척하여 임금이 없는 자라고 한 것은 인륜을 어지럽히는 점을 미워해서이다.[131] 한퇴지가 이에 대해 이미 밝게 보지 못하고 또 기질이 묵자와 자못 가까웠다. 그러므로 선비로서 온 세상 사람들과 교유하여 두보(杜保)와 같은 의기[132]가 많았고,

---

129) 〈답맹간서(答孟簡書)〉 …… 않다고 : 이 편지의 원제는 〈여맹상서서(與孟尙書書)〉이다. 이 편지에서 "지난날 맹씨가 없었다면 모두 오랑캐처럼 옷깃을 왼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오랑캐의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맹씨를 추존하여 그 공로가 우임금의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向無孟氏, 則皆服左衽, 而言侏離矣. 故愈嘗推尊孟氏, 以爲功不在禹下者, 爲此也.]"라고 한 부분을 이른다. 《唐宋八大家文鈔 卷3 昌黎文鈔3 與孟尙書書》

130) 〈독묵자(讀墨子〉에 …… 같다고 : 한유(韓愈)는 〈독묵자(讀墨子〉에서 묵자의 정치사상인 상동(尙同), 겸애(兼愛), 상현(尙賢), 명귀(明鬼)가 공자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며 "공자는 반드시 묵자를 쓰고 묵자도 반드시 공자를 썼을 것이니, 만약 서로 쓰지 않는다면 공자와 묵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孔子必用墨子, 墨子必用孔子, 不相用, 不足爲孔·墨.]"라고 하였다.《唐宋八大家文鈔 卷10 昌黎文鈔10 讀墨子》

131) 맹자가 …… 미워해서이다 : 《맹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聖王不作, 諸侯放恣, 處士橫議, 楊朱·墨翟之言盈天下. 天下之言, 不歸楊, 則歸墨. 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公明儀曰: '庖有肥肉, 廐有肥馬, 民有飢色, 野有餓莩, 此率獸而食人也.' 楊墨之道不息, 孔子之道不著, 是邪說誣民, 充塞仁義也. 仁義充塞, 則率獸食人, 人將相食."라고 한 부분을 이른다.

132) 두보(杜保)와 같은 의기 : 두보는 중국 후한(後漢) 때 사람으로 자는 계량(季良)이다. 광무제(光武帝) 때 월기사마(越騎司馬)에 임명되었다. 그는 특히 의협심이 강하기로 유명하였다. 마원(馬援)이 그의 조카들을 경계하기를, "계량을 본받으려다가 이루지 못하면 천하의 경박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벼슬을 구하기 위해 재상의 집을 분주하게 찾아가 거의 내열병(內熱病)을 얻어 죽은 장의(張毅)[133]와 가까웠다. 그의 뜻을 살펴보면, 마치 같은 것을 숭상하여[尙同][134] 폭넓게 사귀고 은혜를 널리 베풀어 세상을 구제하려는 듯하였지만, 자신도 모르게 한 자를 굽혀 한 길을 펴는 짓을 하여 맹자의 엄중한 경계를 앞장서 범하였다.[135] 그런데 유독 취향이 가깝지 않다는 이유로 자기의 몸만을 깨끗이 하려는 부류를 몹시 미워하였다. 한번 〈왕승복전(王承福傳)〉을 살펴보면, 왕승복의 자신만을 위한 것이 많음을 폄하하여 양주에 가까운 자라고 하였으니,[136] 한퇴지의 호오(好惡)가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왕승복이 반대로 한

한 사람이 될 것이니, 이른바 범을 그리다가 이루지 못하면 도리어 개를 닮게 된다는 것이다.[效季良不得, 陷爲天下輕薄子, 所謂畫虎不成反類狗者也.]"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한유가 의협심이 강하지만 다소 경박한 의기를 가졌다고 이른 것이다.

133) 내열(內熱)이 …… 장의(張毅) : 장의는 《장자(莊子)》 〈달생(達生)〉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로, 부귀한 사람이나 빈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부지런히 사귀었으나 40세의 나이에 내열병(內熱病)을 얻어 죽고 말았다. 한유가 많은 사람과 부지런히 교제한 것을 비유하여 이른 것이다.

134) 같은 것을 숭상하여 : 상동(尙同)은 '상동(上同)'이라고도 하는데, 묵자의 정치사상이다. 묵자는 국가를 다스릴 때 반드시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같아야 하고 신하가 임금과 같아야 한다고 하여 "윗사람이 옳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모두 옳게 여겨야 하고, 그르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모두 그릇되게 여겨야 한다.[上之所是, 必皆是之, 所非必皆非之上.]"라고 하고,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하늘과 같아야 한다.[天下之百姓, 皆上同於天]"라고 하였다. 《墨子 卷3 尙同上》

135) 한 자를 …… 범하였다 : 한 자를 굽혀 한 길을 펴는 짓은 《맹자》 〈등문공 하〉에 보이는 말인데, 도(道)를 행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다소 의리에 맞지 않은 짓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맹자는 "한 자를 굽혀 한 길을 편다는 것은 이익으로써 말한 것이니, 만약 이익으로써 말한다면 한 길을 굽혀 한 자를 펴서 이익이 있더라도 또한 하겠는가.[且夫枉尺而直尋者, 以利言也. 如以利, 則枉尋直尺而利, 亦可爲與?]"라고 하고, "자기를 굽힌 자가 남을 곧게 펴는 경우는 없다.[枉己者, 未有能直人者也]"라고 하여, 이러한 짓을 엄중하게 경계하였다. 그런데 한유는 맹자를 존숭한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도를 행하기 위해 의리에 맞지 않은 일을 행하여 맹자의 경계를 앞장서 범하였다.

136) 왕승복전(王承福傳)을 …… 하였으니 : 왕승복전의 원제는 '오자왕승복전(圬者王承福傳)'이다. 미장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왕승복이 부귀를 탐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검소하게 살고 가정도 이루지 않으며 마음 편하게 산다고 하자, 한유가 그를 현자(賢者)라 여기면서도 "자신을 위하는 것이 지나지게 많고 남을 위하는 것이 지나치게 적으니, 그가 혹 양주(楊朱)의 도를 배운 자인가. 양주의 도는 자신의 한 가닥 털을 뽑아 세상을 이롭게 하더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한번 마음을 움직여 처자식을 봉양하려고 하지 않으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여 남을 위하려고 하겠는가.[其自爲也過多, 其爲人也過少, 其學楊朱之道者邪? 楊之道, 不肯拔我一毛而利天下, 而夫人以有家爲勞心, 不肯一動其心以畜其妻子, 其肯勞其心以爲人乎哉?"라고 폄하하였다. 《唐宋八大家文鈔 卷8 昌黎文鈔8 圬者王承福傳》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퇴지에게 “그대 역시 묵적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논박한다면 한퇴지가 장차 뭐라고 해명할는지 모르겠다. 이미 성명(性命)의 이치를 잘 모르는 채 양주와 묵적의 차이점에 대해 호리(毫釐)를 따졌고, 또 기질의 편벽됨으로 인하여 평가가 형평을 잃어 묵적을 사랑하고 양주를 미워함을 면치 못하였다. 여기에서 천리(天吏)가 있은 뒤에야 포악한 자를 주벌할 수 있고,[137] 말을 알고 호연지기를 기른 군자가 있은 뒤에야 사도(邪道)를 배척하고 이단(異端)을 변별하는 일을 맡을 수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退之於孟子, 有見於表與粗, 而未透於內與精, 故其闢楊墨, 都是影響耳. 今讀答孟簡書, 稱述孟子謂功不在禹下者, 在於快闢楊墨, 而至其讀墨之說, 則以爲與孔子同道, 卽其說之矛盾, 而可知其見處之不洒落也. 且楊墨之所以爲楊墨, 只緣氣質有偏, 意見斯差. 墨則有見乎統體之仁, 無此疆爾界, 以是爲貴而思易天下; 楊則有見乎分殊之義, 不假不奪, 以是自高而不欲涉世. 孟子之斥墨爲無父者, 惡其泯分也; 斥楊爲無君者, 惡其亂倫也. 退之於此, 旣未能明著眼目, 而又其氣質頗隣於墨子, 故爲士而交遊滿世, 頗有杜保之意氣, 干祿而奔走相門, 殆近張毅之熱中. 觀其意, 若將尙同以廣交, 普施以拯世, 而不自覺其枉尺直尋, 先犯孟子之嚴戒也. 獨以其臭味不近深惡潔身者流. 試觀王承福傳, 貶其自爲之多, 謂近於楊朱, 可知其好惡偏處. 如使承福反斥以爾亦墨也, 則未知將何以分疏耶? 旣昧性命之理, 析毫釐於楊墨之所以差, 又因氣質之偏而進攘失平, 不免愛翟而憎朱. 始知有天吏然後可以誅暴, 有知言養氣之君子, 然後可任其斥邪辨異矣.

32. 남곤(南袞)

옛날의 소인(小人) 중에는 악행인 줄 모르고 저지른 자가 있었는데, 남곤(南袞)과 같은 자는 악행인 줄 알면서도 저지른 자이다. 그 사람됨을 생각해 보면, 그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악명이 만년토록 전해지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자신의 글을 불 속에 던지며, “후세에 누가 내 글을 보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스스로를 잘 알았다고 하겠다. 또한 일찍이 그가 지은 〈백사정기(白沙汀記)〉를 보았는데, 질탕하게 놀 때에 그가 개연히 탄식하며, “문장이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의 여부

137) 천리(天吏)가 …… 있고 : 이는 《맹자》 〈공손추 하(公孫丑下)〉에, 혹자가 맹자에게 제(齊)나라를 권하여 연(燕)나라를 치도록 하였는지를 묻자, 맹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며 “천리가 되면 정벌할 수 있다.[爲天吏, 則可以伐之.]”라고 말한 데에서 온 말이다. 천리는 천명을 받들어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이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는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에 달려 있다."[138]라고 하였으니, 이 말을 어째서 했는가? 이때에 만약 그가 명예를 아끼는 생각을 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사림(士林)은 복을 받았을 것이고 지정(止亭; 南袞)의 이름 역시 백세토록 인멸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 너무도 통탄스럽다!

古之小人, 有不知其惡而爲之者矣, 如南袞者, 自知其惡而爲之者也. 想其爲人, 所不足者非慧黠. 故旣作如此擧止, 自知其遺臭萬年, 投其文於火中曰: "後孰有見我文者?" 可謂能自知矣. 亦嘗見其所撰〈白沙汀記〉, 至其跌蕩之際, 慨然興歎, 謂文章之傳遠與否, 在其人善惡如何, 此言何爲而發也? 於斯時也, 苟有惜名之念, 萌於方寸而不懈, 則士林受福, 而止亭之名, 亦將百世不磨. 嗚呼! 可勝痛哉!

33. 대화를 나누는 법

무릇 사람들이 말할 때 대부분 경솔하게 말하고 또한 남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때 십중팔구는 어긋난다. 말이 엉성하여 말의 맥락을 찾지 못하거나, 말이 치밀하여 설명하는 말에 막히거나, 자질이 영특하여 억측하는 데 잘못되거나, 자질이 어리석어서 귀결처를 찾지 못하거나, 천근한 말을 듣고 고원한 뜻으로 찾거나, 오묘한 의론을 듣고 대뜸 천박한 의론이라 여기기도 한다. 이로써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더라도 어긋나고 모순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그러나 남의 말을 제대로 들을 줄 모르는 것은 비단 성질이 편벽되어 그러할 뿐만이 아니다. 대체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경우는 적고 마음을 풀어 놓은 경우는 많아서 바쁘고 분란한 가운데 정신없이 응대하기 때문이니, 곡절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컨대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으로 대

138) 백사정기(白沙汀記) …… 달려 있다 : 백사정기의 원제는 '유백사정기(遊白沙汀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린 남곤의 〈유백사정기〉를 살펴보면, 끝부분에 "이름이란 것은 실상의 빈(賓)이니, 실상이 있지 않으면 이름이 설 수가 없다. 문자란 것은 또 이름의 나머지이니, 문자에 의탁하여 불멸하려고 하는 것 역시 너무도 지엽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른바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과 땅 가운데에 서서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땅에 부끄럽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를 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절로 알고, 천하 후세에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아도 천하 후세가 절로 알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을 실상이라 한다. 우리 선비들은 어찌 또한 실상에 힘쓰지 않겠는가. [名者, 實之賓, 實之不存, 名無所立. 文字者, 又名之緖餘也, 欲托文字, 以圖不腐, 噫亦末矣! 所謂實者, 何物歟? 中天地而立, 仰不愧, 俯不怍, 不求聞於人, 而人自聞之, 不求知於天下後世, 而天下後世自不得不知, 如是之謂實也. 吾黨之士, 盍亦勉夫實乎?]"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김창흡이 이 부분을 본문과 같이 요약하여 말한 듯하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답하는 것은 상고하지 못한 데 잘못된 것이므로 그 허물이 그래도 작지만, 낮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밤으로 대답하고 추위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더위로 대답하는 것은 바로 숨바꼭질[迷藏] 놀이와 같은 부류이니 더욱 괘씸하다.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고 바위로 양치질 한다는 것[139]과 노루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사슴이고 사슴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노루라고[140] 한 부류의 경우는, 혹은 익살을 부리다가 잘못을 이루고 혹은 모호하게 말하여 졸렬함을 숨긴 것이니, 가장 심하게 마음을 해친다. 남과 논쟁할 때 조금이라도 이와 같은 증후를 느끼면 통렬히 제거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논리상 남에게 꿀리다가 화가 치밀어 호승심(好勝心)이 발동되어 남의 말 중에 허술한 부분을 찾아 억지로 꺾으려고 하여 혹은 앞뒤를 잘라내고 한 구절만 거론하거나 혹은 지엽만 깊이 따지고 본지는 살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적으로 평정심을 갖지 못하고 힘써 남을 이기려고 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대개 마음을 깊이 쓸수록 병은 더욱 위중해진다. 순자(荀子)가 "다투려는 기세가 있는 자와는 더불어 논변하지 말라."[141]라고 하였는데, 이는 남과 대화를 나눌 때 이와 같은 부류를 만나면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천하에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가 "더불어 말할 만한데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사람을 잃는 것이라 하고,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데도 말하는 것을 말을

---

139) 흐르는 …… 한다는 것 : 이는 《세설신어(世說新語)》 〈배조(排調)〉에, "손자형(孫子荊)이 젊었을 적에 은거하고자 하여 왕무자(王武子)에게 '바위를 베개로 삼고 흐르는 물로 양치질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바위로 양치질을 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고자 한다.'고 잘못 말하였다. 왕무자가 '흐르는 물을 베게로 삼고 바위로 양치질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손자형이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 것은 귀를 씻고자 해서이고, 바위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이를 잘 닦기 위해서이다.'라고 대답하였다.[孫子荊年少時, 欲隱, 語王武子當枕石漱流, 誤曰漱石枕流. 王曰: "流可枕, 石可漱乎?" 孫曰: "所以枕流, 欲洗其; 所以漱石, 欲礪其齒."]"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40) 노루 옆에 …… 노루라고 : 이는 《주자어류》 권130 〈본조(本朝)4〉에, 왕안석(王安石)의 학문을 논하는 것으로 인하여 "원택(元澤)이 어려서부터 영특하였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노루와 사슴 각 한 마리씩을 우리에 넣어서 왕개보(王介甫; 王安石)에게 보냈는데, 원택이 당시 노루와 사슴을 모두 알지 못한 상태였다. 혹자가 '어느 것이 사슴이며, 어느 것이 노루이냐?'라고 묻자, 원택이 '노루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사슴이며 사슴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노루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뒤에 경서를 해석한 것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元澤幼即穎悟. 嘗有人籠獐·鹿各一, 以遺介甫, 元澤時俱未識也. 或問之曰: '孰爲鹿? 孰爲獐?' 元澤曰: '獐邊者是鹿, 鹿邊者是獐.' 其後解經大抵類此.]"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원택은 왕안석의 아들인 왕방(王雱 1044~1076)의 자이다. 왕방은 아버지를 도와 《삼경신의(三經新義)》를 찬술하였다. 저서에 《노자주(老子注)》, 《시의(詩義)》 등이 있다.

141) 다투려는 …… 말라 : 이는 《순자》 〈권학편(勸學篇)〉에 보인다. 【校】 원문의 "勿與較"의 '較'는 《순자》에 의거하여 '辨'으로 교감하여 번역하였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잃는 것이라 한다."[142]라고 하였고, 또 "중등 인물 이상은 높은 것을 말해줄 수 있지만, 중등 인물 이하는 높은 것을 말해줄 수 없다."[143]라고 하였는데, 남과 대화를 나누는 자는 이 가르침을 명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凡人發言, 多失之率易, 而亦未能審聽他人之言, 故酬酢之間, 十八九不湊著. 或麤疎而不尋語脉, 或密固而滯於言詮, 或英邁而失之臆度, 或昏短而不究歸著, 或聽邇言而尋之於高遠, 或聽眇論而忽以爲膚淺, 以此終日接話, 而其不爲齟齬矛盾者幾希. 然其不會聽言者, 非但由性質有偏而然也. 大抵定心者少, 而放心者多, 忩忩擾擾之中, 撥忙酬應, 宜未能審悉曲折而善爲往復也. 如問東答西, 則失之未詳, 其過猶少. 如聞說晝, 必反以夜, 聞說寒, 必反以暑, 乃迷藏之類, 尤爲可憎. 至於枕流漱石·獐邊鹿鹿邊獐之類, 或滑稽而遂非, 或依違而藏拙, 最爲心術之害. 與人爭辨之際, 乍覺有如此證候, 不可不痛祛而不留根也. 亦有理屈於人而怫然勝心之發, 尋討人言句罅漏而强拗折之, 或截去首尾而孤擧一句, 或窮搜枝葉而不察本旨. 此則全出於未能平心而務欲勝人, 蓋用意愈深而做病愈重. 荀子曰: "有爭氣者, 勿與較." 凡與人接話, 如逢如此之類, 括囊可也. 以此知可與晤語之人, 天下鮮矣. 孔子曰: "可與言而不言, 謂之失人, 未可與言而言, 謂之失言." 又曰: "中人以上, 可以語上, 中人以下, 不可以語上." 凡與人酬酢者, 不可不服膺此訓.

34. 반고(班固)의 《한서(漢書)》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반고(班固)가 《한서(漢書)》에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윤색한 것은 대부분 글자를 줄이거나 글자를 첨가시킨 데 잘못되었다. 예컨대 〈이광전(李廣傳)〉에 '끝내 화살촉이 바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144][終不能復入石]'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고가 '석(石)'자를 줄였으니, 그 신묘함을 잃게 하였다. 또 〈흉노전(匈奴傳)〉에 묵돌(冒頓)이 한 고조(漢高祖)를 포위하였을 때 사방의 말 색깔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청방마(靑騅馬), 백마(白馬), 오려마(烏驪馬), 성마(騂馬)"[145]라고 써서 네 개의 '마(馬)'자를 매우 장대(壯大)하게 안배하였는

142) 더불어 …… 한다 : 이는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보이는데, 원문과 다소 차이가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 知者不失人, 亦不失言."

143) 중등 …… 없다 : 이는 《논어》 〈옹야(雍也)〉에 보인다.

144) 끝내 …… 못하였다 : 이 부분은 《사기》 권109 〈이장군열전(李將軍列傳)〉에는 "廣出獵, 見草中石, 以爲虎而射之, 中石沒鏃, 視之, 石也. 因復更射之, 終不能復入石矣."라고 하였고, 《한서》 권54 〈이광전(李廣傳)〉에는 "廣出獵, 見草中石, 以爲虎而射之, 中石沒矢, 視之, 石也. 他日射之, 終不能入矣."라고 하였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데, 반고는 단지 한 개의 '마'자로 합쳤으니 비록 간략한 듯하지만 기염은 크게 줄어든다. 이것은 글자를 줄여 잘못된 것이다. 예컨대 거록(鉅鹿) 전투를 서술하면서 '초(楚)나라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 정도였다.[楚兵呼聲動天]'[146]라고 한 부분의 경우 사마천은 단지 한 자의 '천(天)'자를 써서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구름까지 곧장 올라가 닿을 듯한데, 반고는 '지(地)'자를 첨가해 짝을 맞췄으니 둔중하여 도리어 힘이 적어진다. 이것은 글자를 첨가하여 잘못된 것이다. 문장도 성현(聖賢)의 등급과 같으니 상성(上聖)이 지은 문장은 대현(大賢) 이하가 진실로 그 말을 보완하기 어렵다.

> 班固之潤色馬史, 多失於減字, 或失於增字. 如<李廣傳>, '終不能復入石', 減其石字, 則使其神凋喪. 如<匈奴傳>, 冒頓之圍漢祖, 四方馬色, 一一列書曰: "靑騅馬·白馬·烏驪馬·騂馬" 四馬字, 排得甚壯, 而只以一馬字統之, 雖似簡省, 而氣焰則頓減. 此則減而失者也. 如叙鉅鹿之戰, '楚兵呼聲動天', 只擧一天字, 而軍聲之直上干雲壯矣, 添配以地字, 則鈍重却少力. 此則增而失者也. 文章亦如聖賢等品, 上聖作用, 自大賢以下, 固難贊其辭也.

35. 공자(孔子)의 말

공자의 말은 간략하지만 또한 번다하여도 줄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관중(管仲)을 논할 때 방군(邦君)과 관중을 세 차례나 짝하여 말하였다.[147] 또 자장(子張)이 밝음[明]을 물은 데 대한 대답에서 '서서히 젖어드는 참소와 피부로 받는 하소연'을 두 차례나 거듭 말하였는데,[148] 첫 번째는 강개한 뜻에서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간곡한 뜻을 지극히

---

145) 청방마(靑騅馬) …… 성마(騂馬) : 이 부분은 《사기》 권110 〈흉노전〉에는 "七日, 漢兵中外不得相救餉. 匈奴騎, 其西方盡白馬, 東方盡靑騅馬, 北方盡烏驪馬, 南方盡騂馬."라고 하였고, 《한서》 권94 〈흉노전〉에는 "七日, 漢兵中外不得相救餉. 匈奴騎, 其西方盡白, 東方盡騅, 北方盡驪, 南方盡騂馬."라고 하였다.

146) 초(楚)나라 …… 정도였다 : 이 부분은 《사기》 권7 〈항우본기(項羽本紀)〉에는 "及楚擊秦, 諸將皆從壁上觀. 楚戰士無不一以當十, 楚兵呼聲動天, 諸侯軍無不人人惴恐."라고 하였고, 《한서》 권31 〈진승전(陳勝傳)〉에는 "及楚擊秦, 諸侯皆從壁上觀. 楚戰士無不一當十, 呼聲動天地. 諸侯軍人人惴恐"라고 하였다.

147) 이는 《논어》 〈팔일(八佾)〉에, "나라의 임금이어야 병풍으로 문을 가릴 수 있는데 관씨(管氏)도 병풍으로 문을 가렸으며, 나라의 임금이어야 두 임금이 우호로 만날 때 술잔을 되돌려 놓는 자리를 둘 수 있는데 관씨도 술잔을 되돌려 놓는 자리를 두었으니, 관씨가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는가.[邦君樹塞門, 管氏亦樹塞門; 邦君爲兩君之好, 有反坫, 管氏亦有反坫. 管氏而知禮, 孰不知禮?]"라고 한 것을 이른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한 것으로, 그 말이 번다한지 깨닫지 못하게 한다. 〈단궁(檀弓)〉도 비록 간략하지만 '목욕하지 않고 옥을 차지 않았다.'[149]고 한 부분은 상세함으로 신묘함을 삼았다.

孔子之言雖簡, 而亦有繁而不殺者. 如論管仲, 以邦君與管仲三次對說. 如答子張問明, 以浸潤膚受, 申說至再, 一則發於慷慨, 一則致其丁寧, 不自覺其言之爲繁耳. 檀弓雖簡, 而不沐浴佩玉, 以詳爲妙.

36. 한유(韓愈)가 말한 진부한 말

한퇴지(韓退之)가 말한 진부한 말이란 육조(六朝) 시대 사람들처럼 고사(故事)를 인용하거나 전인(前人)의 말을 그대로 따라 쓴 것이니, 예컨대 문정(問鼎),[150] 진양(晉陽)의 군대[晉陽甲],[151] 역책(易簀),[152] 망금(亡琴)[153]과 같은 따위가 이것이다. 한퇴지가 진부한 말을

148) 서서히 …… 말하였는데 : 이는 《논어》 〈안연(顔淵)〉에, "서서히 젖어드는 참소와 피부로 받는 하소연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밝다고 할 만하다. 서서히 젖어드는 참소와 피부로 받는 하소연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멀다고 할 만하다.[浸潤之譖, 膚受之愬, 不行焉. 可謂明也已矣. 浸潤之譖, 膚受之愬, 不行焉, 可謂遠也已矣.]"라고 한 것을 이른다.

149) 목욕하지 …… 않았다 : 이는 《예기(禮記)》 〈단궁 하(檀弓下)〉에, "석태중(石駘仲)이 죽었는데 적자(嫡子)가 없고 여섯 명의 서자(庶子)만 있으므로 후계자를 점을 쳐서 정하려고 하였다. 점치는 사람이 '목욕하고 옥을 차면 점괘가 나올 것입니다.'라고 하니, 다섯 명의 서자가 모두 목욕하고 옥을 찼는데, 석기자(石祁子)만은 '어찌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는데 목욕하고 옥을 차겠는가.' 하고, 목욕하지 않고 옥을 차지 않았다. 석기자가 길하다는 점괘가 나왔다. 위(衛)나라 사람들이 거북점이 영험하다고 여겼다.[石駘仲卒, 無適子, 有庶子六人, 卜所以爲後者. 曰: "沐浴佩玉則兆." 五人者皆沐浴佩玉, 石祁子曰: "孰有執親之喪, 而沐浴佩玉者乎?" 不沐浴佩玉. 石祁子兆. 衛人以龜爲有知也.]"라고 한 것을 이른다.

150) 문정(問鼎) : 이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 3년에, "초자(楚子)가 육혼(陸渾)의 오랑캐를 물리치고 마침내 낙읍(雒邑)에 이르러서 주(周)나라 국경에서 열병(閱兵)을 하자, 정왕(定王)이 왕손만(王孫滿)을 시켜 초왕(楚王)을 위로하게 하였는데 초자가 구정(九鼎)의 크기와 무게에 대해서 물었다.[楚子伐陸渾之戎, 遂至於雒, 觀兵於周疆. 定王使王孫滿勞楚子, 楚子問鼎之大小輕重焉.]"에서 유래한 말이다. 구정(九鼎)은 우(禹)임금이 주조한 것으로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가 국보(國寶)로 여겨온 것인데, 초자가 구정에 대해 물은 것은 구정을 취해 주나라를 대신하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후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도모하는 것을 '문정'으로 비유하여 썼다.

151) 진양(晉陽)의 군대 : 이는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정공(定公) 13년에, 진(晉)나라 조앙(趙鞅)이 진양의 군대[晉陽之甲]를 일으켜 임금의 곁을 깨끗이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순인(荀寅)과 사길석(士吉射)을 쫓아낸 일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후로 지방관이 조정에 불만이 있어 군대를 일으키는 것을 '진양의 군대'를 일으킨다고 이른다.

152) 역책(易簀) : 이는 《예기》 〈단궁 상(檀弓上)〉에, 증자(曾子)가 임종할 때 일찍이 계손(季孫)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힘들게 제거하려고 힘쓴 것은[154] 대개 말을 반드시 자기로부터 나오게 하려고 해서이니, 맹자, 장자, 반고, 사마천의 글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한 마디 말도 표절하여 쓰지 않았다. 이른바 '팔대(八代)의 쇠함을 일으켰다.'[155]는 것이 바로 이 점에 있다. 모곤(茅坤) 무리가 진부한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평상시에 쓰는 속어(俗語)로 풀었는데, 이와 같다면 한퇴지가 힘쓴 것은 끝내 규호(虯戶)나 선계(銑溪)와 같은 말[156]을 쓰는 부류로 귀결되니, 어찌 그릇되지 않겠는가. 한퇴지의 글 가운데에는 실로 평상시에 쓰는 말이 많은데, 예컨대 "불행스럽게도 두 눈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不幸兩目不見物]"라고 하고, "촌보(寸步)도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寸步不能自致]"[157]라고 하였으니, 어찌 기괴한 자구(字句)로 바꿀 뜻이 있었겠는가. 가령 엄주(弇州 왕세정(王世貞) 무리들이 이러한 글을 지었더라면 '양목(兩目)'이라 말하지 않고 반드시 '금비(金篦)'[158]로 썼을 것이고 '촌보(寸步)'라 말하지 않

에게 받은 대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자신은 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깔 수 없다 하고 다른 자리로 바꾸게 한[易簀] 다음 졸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이후로 사람이 병을 앓아 죽는 일 및 스승이나 현자의 죽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153) 망금(亡琴) : 이는 《진서(晉書)》 권80 〈왕희지열전(王徽之列傳)〉에, 동생 왕헌지(王獻之 344~386)가 죽자, 왕희지(338~386)가 왕헌지의 거문고를 가져다가 탔으나 오래도록 조율되지 않자 마침내 탄식하기를, "아, 자경(子敬 왕헌지의 자)이여! 사람과 거문고가 모두 죽었구나![嗚呼子敬! 人琴俱亡!]"라고 한 데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후로 죽은 동생을 추모하는 말로 쓰였다.

154) 힘들게 …… 힘쓴 것은 : 이는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 권4 창려문초(昌黎文鈔)4 〈답이익서(答李翊書)〉에 "진부한 말을 제거하려고 힘쓰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惟陳言之務去, **戛戛**乎其難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55) 팔대(八代)의 쇠함을 일으켰다 : 이는 소식(蘇軾)이 〈조주한문공묘비(潮州韓文公廟碑)〉에서 한유에 대해 "문(文)은 팔대의 쇠함을 일으키고 도(道)는 천하가 이단에 빠진 것을 구제하였다.[文起八代之衰, 而道濟天下之溺]"라고 극찬한 데에서 온 말이다. 《唐宋八大家文鈔 卷142 東坡文鈔26 潮州韓文公廟碑》

156) 규호(虯戶)나 선계(銑溪)와 같은 말 : 이는 남이 알기 어려운 괴벽한 문자나 고어(古語)를 이른다. 《전당시화(全唐詩話)》 〈서언백(徐彦伯)〉에, "서언백은 글을 지을 때 대부분 변화를 주어 새로운 언어를 추구해 봉각(鳳閣)을 원각(鵷閣)으로, 용문(龍門)을 규호(虯戶)로, 금곡(金谷)을 선계(銑溪)로, 옥산(玉山)을 귤악(璚岳)으로, 죽마(竹馬)를 소참(篠驂)으로, 월토(月兔)를 백토(魄兔)로 썼는데, 진사들이 그를 본받고 그 문체를 '삽체(澀體)'라 불렀다[徐彦伯爲文, 多變易求新, 以鳳閣爲鵷閣, 龍門爲虯戶, 金谷爲銑溪, 玉山爲璚嶽, 竹馬爲篠驂, 月兔爲魄兔. 進士效之, 謂之澀體.]"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57) 불행스럽게도 …… 없다 : 이는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 권3 창려문초3 〈대장적여이절동서(代張籍與李浙東書)〉에 "不幸兩目不見物, 無用於天下, 胸中雖有知識, 家無錢財, 寸步不能自致."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58) 금비(金篦) : 금비는 고대(古代)에 눈병을 치료하는 도구로, 금비로 안막(眼膜)을 긁어내어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고 반드시 ‘분지(賁趾)’[159]로 썼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제거할 만한 진부한 말이다.

退之所謂陳言, 如六朝人之引用古事與踵襲前人言語, 如問鼎·晉陽甲·易簀·亡琴之類是已. 退之之戛戛務去, 蓋欲必自己出, 雖孟·莊·班·馬之文, 未嘗勦襲一語. 所謂起八代之衰者, 正爾在此. 茅坤輩不知陳言之爲何, 解作平常俗語, 若是則退之之所務, 終歸於虬戶銑溪之類, 豈不誤哉? 退之文中, 實多平常語, 如曰: “不幸兩目不見物, 寸步不能自致.” 曷嘗有換字之意乎? 若使弇州輩當此, 則不言兩目而必用金篦, 不言寸步而必用賁趾, 此正陳言之可去者也.

37.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유형

매화를 감상하는 데 여러 유형이 있다. 천기(天機)가 발현되어 하나하나 태극(太極)이 됨을 완미하며 즐기던 자가 있었으니 주돈이(周敦頤)와 소옹(邵雍) 등의 제현이 이들이다. 고고함과 깨끗함을 취해 지기(知己)로 의탁하여 즐기던 자가 있었으니 임포(林逋)[160] 무리가 이들이다. 고유 빛깔을 완상하고 맑은 향기를 맡음으로써 시흥(詩興)이 일어나도록 하며 즐기던 자가 있었으니 시인(詩人)과 묵객(墨客)이 이들이다. 경국지색(傾國之色)처럼 매화를 가까이하여 풍류를 금치 못해 금으로 장식한 휘장을 올리고 양고주(羊羔酒)를 마시며[161]

눈병을 치료한다. 일설에 의하면 금비로 치료하여 맹인(盲人)의 눈을 다시 뜨게 했다고 한다.

159) 분지(賁趾) : 이는 《주역(周易)》 〈비괘(賁卦)〉 초구(初九)에, “그 발을 꾸밈이니 수레를 버리고 도보로 걷는다.[賁其趾, 舍車而徒]”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일반적으로 보행을 뜻한다.

160) 임포(林逋) : 967~1028. 중국 북송 때의 저명한 은일(隱逸) 시인으로, 자는 군복(君復)이다. 행서(行書)에 능하고 시 짓기를 좋아하며 기구(奇句)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가 졸한 뒤 송 인종(宋仁宗) 때 ‘화정선생(和靖先生)’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저서에 《화정시집(和靖詩集)》이 있다. 임포는 벼슬하지 않고 20년 동안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은거하였다. 종신토록 장가가지 않고,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기를 좋아하였다. 스스로 ‘매화로 처를 삼고 학으로 자식을 삼았다.’라고 하였고, 사람들도 그를 두고 ‘매처학자(梅妻鶴子)’라 일컬었다. 그는 매화를 읊은 시를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산원소매(山園小梅)〉 시의 “성긴 그림자는 맑고 얕은 물 위에 비껴 있고, 은은한 향기는 황혼 달빛 아래 부동하누나.[疎影橫斜水淸淺, 暗香浮動月黃昏.]”라는 구절이 유명하다. 《宋史 卷457 林逋列傳》

161) 금으로 …… 마시며 : 이는 《녹창신화(綠窗新話)》 권2 〈상강근사(湘江近事)〉에, 송나라 때 한림학사 도곡(陶穀)이 일찍이 당 태위(党太尉; 党進) 집의 기녀를 얻어 가지고 정도(定陶)에 들러 설수(雪水)를 취해 차를 끓이면서 그 기녀에게 말하기를 “당 태위의 집에서는 이런 풍류를 모를 것이다.”라고 하자, 그 기녀가 대답하기를 “저 당 태위는 비루한 사람이니 어찌 이런 풍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는 금으로 장식한 휘장 아래 앉아 조용히 조금씩 술을 음미하면서 미인의 고운 노랫소리를 들으며, 양고주(羊羔酒)나 마실 뿐이랍니다.[彼粗人也,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즐기던 자가 있었으니 공자(公子)와 왕손(王孫)이 이들이다. 눈 속에서 능히 봄기운을 띠어 잎은 없고 꽃만 있는 것을 기이하게 보는 자가 있으니 범부(凡夫)의 속견(俗見)이 이것이다.

> 看梅花有許多般, 有玩其天機呈露, 箇箇太極而樂者, 周·邵諸賢是也. 有取夫孤標冷韻, 託爲知己而樂者, 林逋輩是也. 有賞眞色, 挹淸芬, 助發詩興而樂者, 詞人·墨客是也. 有親近國艷, 不耐風流, 褰金帳, 酌羔酒而樂者, 公子·王孫是也. 有以雪中能春, 無葉有花, 爲可異者, 凡夫俗見是也.

38. 사마천(司馬遷)의 〈백이전(伯夷傳)〉

〈백이전(伯夷傳)〉은 백이를 찬미하여 쓴 것이 아니라 허유(許由)와 무광(務光)을 슬퍼한 것이고, 허유와 무광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태사공(太史公; 司馬遷)이 자신을 슬퍼한 것이다. 그가 살아서는 비방을 받아 쓰이지 못한 것이 굶어 죽은 백이보다 심하고, 죽어서는 인멸되어 일컬어지지 않아서 허유와 무광의 경우와 똑같이 될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이 한 편의 대지(大旨)가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음을 안다면 처음부터 술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개 백이와 허유는 똑같이 은거한 고사(高士)인데 한 사람은 공자(孔子)에게 칭송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경전(經傳) 등의 글에서 대략이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유(世儒)의 의론이 백이의 행적은 믿고 허유의 행적은 의심하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에 태사공이 직접 증명하여 이르기를, "기산(箕山)에 올라가 허유의 무덤을 보았으니,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과연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백이와 함께 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성인(聖人)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우열을 가리는 뜻으로 격앙되어 이르기를, "천하 사람들이 주(周)나라를 종주국(宗主國)으로 여기니 백이가 부끄러워하였고 요(堯) 임금이 천하를 선양(禪讓)하려고 하니 허유가 부끄러워하였다. 나라를 사양하는 것은 작은 일이고 천하를 사양하는 것은 큰일이다. 또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은 의리와 천하를 사양한 의리 중에 어느 쪽이 높고 어느 쪽이 낮은가?"라고 하였다. 특별히 허유와 무광의 뜻이 지극히 높다고 말하여 마치 백이를 능가하는 것처럼 하였다. '채미가(採薇歌)'로 인하여 백이가 원망하는 뜻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으니, 마침내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치가 어긋나는 점을 가지고 하늘에 따져 묻기를, "안회(顔回)처럼 어진 사람은 어찌 곤궁하게 살다가 요절하였으며, 도

安有此景? 但能銷金暖帳下, 淺斟低唱, 飮羊羔美酒耳.]"라고 한 고사에서 온 말이다. 양고주(羊羔酒)는 산서(山西) 지방에서 생산되는 미주(美酒)를 이른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척(盜跖)처럼 악한 사람은 어찌 즐겁게 살다가 천수를 누렸단 말인가?"라고 하여 반복하여 의심스럽게 여겨 마치 천도(天道)의 시비(是非)에 대해 석연치 않게 여기는 것처럼 하였다. '자왈도부동(子曰道不同)'부터 '기중약피기경약차(其重若彼其輕若此)'까지는 의리로써 바름을 판단한 것이니, 대개 한때 곤궁하거나 영달하는 것은 기러기 털처럼 가볍고 만세토록 전해지는 덕망과 명예는 태산처럼 무거움을 이른 것이다. '군자질몰세이명불칭(君子疾沒世而名不稱)'부터 '중서풍생(衆庶馮生)'까지는 한결같이 이름을 내는 것을 귀히 여긴 것이다. 그러나 이름은 스스로 낼 수 없고 반드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려야 명성을 드날릴 수 있기 때문에 '동명상조(同明相照)'부터 '운룡풍호(雲龍風虎)'까지는 취하여 성인이 성인을 알아주는 증거로 삼았다. 예컨대 백이와 안연은 공자에 대해서 혹은 같은 시대에 살아 공자의 문하(門下)에 의탁하거나 혹은 시대가 멀리 떨어졌으나 공자에게 서술되어 모두 성인을 만나 불후의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또한 행운이라 하겠다. 사마천과 같은 경우는 살아서는 지위가 높고 이름이 드러난 사람에게 의탁하지 못하였고 죽어서는 임금의 표창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백이와 안회가 생전에 겪었던 곤궁함을 가지고 허유와 무광이 사후에 그 이름이 인멸된 것을 따른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좋은 것이 없는 것이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 한 편의 결말은 취사(取捨)가 때가 있다[趨捨有時]는 것으로 긴요한 관건을 삼고 있다. 백이와 안연은 부자(夫子)에게 취해진 자들이고 허유와 무광은 버려진 자이다. 무릇 암혈(巖穴)에 은거하는 선비는 고상한 이름을 얻어야 마땅한데도 성인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행불행(幸不幸)이 있다. 더구나 또 이보다 못한, 여항(閭巷)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이겠는가. 이것이 바로 사마천이 낮은 지위를 달게 여겼지만 이름이 인멸되고 드러나지 않을까 근심하고 슬퍼한 까닭이다.

〈伯夷傳〉, 非贊述伯夷也, 乃悲弔由·光也; 非弔由光也, 乃太史公自悲也. 生而身毁不用, 有甚於伯夷之餓, 沒而湮滅不稱, 將與由光同歸, 豈不悲乎? 知一篇大旨, 不過如此, 則從頭釋去, 可迎刃而解矣. 蓋伯夷·許由, 等是巖穴高士, 而一則見稱於孔子, 一則不少概見, 故世儒論者, 信伯夷而疑許由, 有足慨惋. 於是以身質之曰: "登箕山而見許由之塚, 則果有其人矣. 果有其人, 而未能與伯夷同傳者, 其於聖人遇不遇存焉." 遂以扶抑軒輊之意, 激昂其辭曰: "天下宗周, 則伯夷恥之, 堯讓天下, 則許由恥之, 讓國爲小, 讓天下爲大. 且不食周粟與讓天下之義, 孰高孰低?" 特言由·光義至高, 若將凌駕伯夷也. 因採薇之歌, 知伯夷之不能不怨, 而遂以福善禍淫之理有所謬戾者, 致詰于天曰: 賢如顔回, 何以窮夭也? 惡如盜跖, 何以樂壽也? 反復疑難, 若未釋然於天道是非也. 自'子曰道不同', 至'其重若彼其輕若此', 方以義理決正. 蓋謂一時窮通, 輕若鴻毛, 萬世德譽, 重若泰山. 自'君子疾沒世而名不稱', 以至'衆庶馮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生', 斷斷以立名爲貴. 然名不自立, 必待知己而揚聲, 故自'同明相照', 以至'雲龍風虎', 取以爲以聖知聖之證. 若伯夷·顔淵之於孔子, 或並世而託門墻, 或曠世而蒙叙列, 皆得聖人而不朽, 亦云幸矣. 如馬遷者, 存未能附靑雲之士, 沒未有華衮之褒, 是則以夷·回之窮阨, 從由·光之堙滅, 擧其終始, 無一可者, 豈不寃鬱乎? 一篇結局, 以趨捨有時爲緊關, 伯夷·顔淵, 於夫子趨焉者也, 由·光則捨焉者也. 夫巖穴之士, 合得高尙之名, 而邂逅有幸不幸焉, 况處閭巷者, 又其下焉者乎? 此則馬遷甘心下流, 而恐其名之磨滅而不章, 以爲忉怛耳.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Ⅳ. 맺음말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은 17·18세기의 대표적인 학자, 문학가, 사상가로서 전 시대의 학문, 문학, 사상 등을 폭넓게 비판·수용하여 방대한 저술을 남겼으며, 그의 학문, 문학, 사상은 후대에 당색을 초월하여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의 많은 저술 중에 만록(漫錄)은 그의 만년 시기인 68세(1720)에 저술되어 그가 평생 동안 축적한 학문, 문학, 역사, 사상 분야의 식견이 응축된 글로 그의 학문과 사상 등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적합하고, 심도 있는 학술적 내용이 짧은 글 속에 압축되어 있어 정밀하고 상세한 주석이 필요한 연구번역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삼연만록》은 총 70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인물, 역사, 제도, 문학 등에 관한 것인데, 대체로 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논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고에서 원문에는 제목이 별도로 없는데 임의로 각 조항마다 번호를 매기고 제목을 달아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앞의 해제 부분에서 각 조항마다 논의의 대상이나 근거로 직접적으로 인용되는 서명 및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서명을 밝혀 삼연의 독서 범위와 지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당시 사대부 지식인의 독서 범위와 지식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삼연만록을 연구번역의 대상으로 삼아 정밀하고 상세한 주석을 갖추어 번역함으로써 연구자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학술성을 담보한 연구번역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한편 당대를 대표하는 삼연의 저술을 역주하여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삼연의 학문, 문학, 사상의 성격과 사유체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삼연 시대의 사회상 및 학문, 문학, 사상의 윤곽을 유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학술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밀하고 상세한 주석을 달아 번역하기는 하였지만 주석의 심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주석 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듯하다. 앞으로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바탕 아래에서 주석범례를 만들고자 한다. 또 본고에서는 만록의 일부분을 번역하였는데, 앞으로 좁게는 《삼연집》 안에 만록과 유사한 장르 즉 잡저(雜著), 잡록(雜錄), 일록(日錄) 등도 번역하고, 넓게는 삼연과 동시대에 살았던 대표적 학자의 필기류도 번역함으로서 삼연 시대의 학문, 문학, 사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고려대학교
1905
KOREA UNIVERSITY

참고문헌

원전자료

金昌翕, 《(原集)三淵集 卷36 漫錄》, 奎章閣 奎4903.

_____, 《三淵集Ⅱ 卷36 漫錄》, 한국문집총간 166집, 한국고전번역원.

_____, 《三淵集》, 한국문집총간 165~167집, 한국고전번역원.

金邁淳, 《三淵先生年譜》, 국립중앙도서관 BC-古朝57-가902.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08~116집, 한국고전번역원.

張 維, 《谿谷集》, 한국문집총간 92집, 한국고전번역원.

申 欽, 《象村稿》, 한국문집총간 71~72집, 한국고전번역원.

《新增東國輿地勝覽》, 奎章閣.

《續國譯漢文大成》, 東京, 日本圖書, 1978.

朱 熹, 《朱子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2.

_____, 《朱熹集》, 成都, 四川教育出版社, 1996.

《論語集註》, 四庫全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孟子集註》, 四庫全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春秋左氏傳》, 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禮記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7.

《周易傳義》, 四庫全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性理大全》,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十八史略》, 漢文大系, 東京, 富山房, 1984.

《史記注譯》, 北京, 三秦出版社, 1988.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96.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1976.

《唐宋八大家文鈔校注集評》, 西安, 三秦出版社, 1998.

《荀子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5.

《老子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2008.

《莊子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2002.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단행본

이상현 역, 《계곡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2.
임정기 외 역, 《상촌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6.
이성우 외 역, 《송자대전》,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5.
성낙훈 외 역,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5.
엄우, 김해명·이우정 역,《창랑시화》, 서울, 소명출판, 2001.
정태현 역, 《춘추좌씨전》,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1.
성백효 역, 《논어집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7.
_____, 《맹자집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5.
_____, 《주역전의》,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8.
_____, 《고문진보후집》,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4.
이상옥 역, 《예기》, 서울, 명문당, 1987.

논문

김남기, 〈三淵 金昌翕의 詩文學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1
이승수, 〈三淵 金昌翕 硏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7
이종호, 〈三淵 金昌翕의 詩論에 關한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2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문학과 기행도의 비교연구 : 농연그룹과 정선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0
조성산,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의 학풍과 현실관〉, 《역사와현실》 제51호, 2004
정무룡, 〈17세기 후반 경화사인간의 문학론 공방의 한 양상 - 김창흡과 조성기의 왕복서한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1999

웹사이트 및 전산자료

한국고전번역종합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koreanhistory.or.kr/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905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尙友千古 http://www.s-sangwoo.kr/
百度 http://www.baidu.com/
四庫全書 電子版